

석사학위논문

제주도민의 윈드서핑 활동실태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철 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기 윤

2000년 8월

제주도민의 윈드서핑 활동실태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철 원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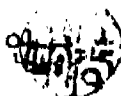
2000년 6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기윤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0년 7월 일

심사위원장 吳 萬元 
심사위원 金 鐵元 
심사위원 任 尚鎔 

제주도민의 윈드서핑 활동실태에 관한 연구

김기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지도교수 김철원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내의 윈드서핑 활동실태 연구를 위해 윈드서핑 활동장소의 실태와 행동적 참여실태, 윈드서핑 활동의 경비실태, 참여동기와 제약요인, 윈드서핑 활동을 통한 심리·생리적인 효과와 활성화 방안 등의 현재 실태를 파악하여 관광레저스포츠로의 위상을 제고하고 발전전략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56명의 연구대상자에 대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로 자료를 구했으며, 조사 결과 얻어진 윈드서핑 활동실태에 자료들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일곱 가지의 연구문제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윈드서핑의 주 활동장소 이용실태는 연령이 적고, 수입이 적고, 기량수준이 낮을수록 가까운 활동장소를 찾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성,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윈드서핑 인구는 제주시(65.5%)가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주 활동장소가 제주시권 내의 이호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성별로는 남자(80.1%)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52%)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수입별로 볼 때 월 평균 120만원 미만의 수입자가 (49.6%)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실력별로는 초급자(4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활동하는 윈드서핑 인구중 대부분은 초보자와 학생이 많은 경향이 있으므로 인해 좋은 활동여건보다는 주로 가까운 활동장소를 많이 찾고 있으며 활동빈도 또한 주1회 수업 시간 또는 1년에 1번 이하의 무료강습 등만을 이용하여 경험에 그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윈드서핑의 행동적 참여실태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성,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주 활동 시기를 보면 일요일이 가장 많은 편이며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규칙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여름의 휴가 또는 방학 등을 잠깐만 활동하는 자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3) 윈드서핑의 활동경비실태를 보면 활동경비는 대부분 5만원 이하(78.1%)이며 희망경비 또한 5만원 이하(84.9%)를 많이 원하고 있으며, 장비구비 상황으로는 대부분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장비를 이용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장비(51%)를 많이 희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면 장비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거주지역별, 성,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 본 논문은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4) 윈드서핑 참여동기와 참여계약요인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성,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참여동기로 볼 때 여성이나 저 연령층, 초급자나 저수입자들은 학교수업 또는 무료강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 연령층 고수입 상급자 수준으로 갈수록 흥미와 취미가 있어서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활동 목적으로는 건강과 체력증진 스트레스 해소에 많다고 하고 있다. 또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활동제약을 많이 받고 있으며 주 활동장소를 찾는 이유를 보면 거리와 동호인, 활동조건 등을 들고 있다. 협회 가입상황을 보면 초급자와 상급자가 많음을 볼 수 있고 미 가입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를 많이 들고 있다.

5) 윈드서핑의 심리·생리적인 효과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성,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윈드서핑활동에 대한 만족도 변인, 생활 만족도, 건강 체력해택에 대한 평가에서 보면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자는 윈드서핑 활동을 시작한 후 생활만족도가 높고, 여성은 건강체력에 대한 평가를 높이 보고 있으며, 윈드서핑이 주는 스트레스 해소에 있어서는 4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계수입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해소 또한 높아지고 있고, 기량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와 스트레스 해소의 효과에 높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이나 가계수입, 기량수준이 높을수록 전신지구력 강화에 좋다고 하고 있고 낮을수록 유연성 강화와 근력강화에 좋다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6) 윈드서핑 의식, 홍보, 개선방안, 관광레저스포츠로의 정책 등의 윈드서핑 활성화 방안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성, 연령, 직업, 기량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윈드서핑 즐길 수준 의식을 보면 기량별로 볼 때 상급자에게서는 알맞다고 보고 있으나 중급 실력자는 아직 이른 편이라고 보고 있으며 정보출처로는 고 연령층이나 고수입 상급 기량으로 갈수록 동호인 단체에서 주로 얻고, 낮아질수록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활성화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장비가격 인하와 편의시설 확충을 많이 들고 있으며 윈드서핑의 정책반영의 면에서 보면 기량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체육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은 관광레저스포츠로의 발전에 대한 정책 반영을 원하고 있다.

7)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변인들은 성,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생활 만족은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윈드서핑에 대한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30대가 높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가계수입별로 보면 생활 만족에 대해서는 수입이 높을수록 높은 만족을 갖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문제	2
4.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현대인과 레포츠 활동	4
1) 현대 여가문화의 특성	4
2) 여가문화의 대중화	5
2. 여가시장	6
1) 여가소비패턴의 변화	6
2) IMF 관리체제 이후 여가시장	7
3) 미래의 소비패턴 양상	7
4) 미래의 여가시장 전망	7
3. 레포츠 시장	8
1) 레포츠의 개념과 특성	8
2) 레포츠활동의 기능	9
3) 레포츠시장 현황	9
4) 레포츠시장의 문제점	10
5) 레포츠시장 전망	11
4. 미래 레포츠시장	11
1) 대중 레포츠 개발	12
2) 저 비용 레포츠시설 개발방안	12
3) 체류형 시설 개발	12
4) 개발 법규 및 제도의 개선	12
5) 외국의 규제완화 실태	13
6) 여가문화의 개선	13
7) 효과적인 운영 마인드 개선	14
8) 21세기 관광정책의 방향	14
5. 해양레저스포츠의 현실과 그 전망	15
6. 생활체육으로서의 윈드서핑	16

1) 윈드서핑의 역사	18
2) 국내의 보급현황 및 전망	19
3) 제주도내의 윈드서핑 현황	20
7. 선행연구의 고찰	21
III. 연구 방법	23
1. 연구대상	23
2. 연구기간	24
3. 연구도구	24
4. 자료처리	25
IV. 연구결과	26
1.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 이용실태	26
1) 현재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	26
2)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와의 거리	27
3) 제주도 윈드서핑 활동경험 장소 및 시설 현황	28
2. 윈드서핑의 행동적 참여실태	29
1) 윈드서핑 활동경력	29
2) 윈드서핑 활동참여빈도	31
3) 윈드서핑 참여계절	33
4) 윈드서핑 참여 때(요일)	35
5) 윈드서핑 참여시간대	37
6) 윈드서핑 일회참여시간	39
7) 윈드서핑 장비준비	41
8) 윈드서핑 협회에 가입 여부	43
3. 윈드서핑 활동경비 실태	44
1) 윈드서핑 장비가격	44
2) 윈드서핑 회망가격	46
3) 윈드서핑 월 평균경비	48
4) 윈드서핑 월 평균 회망경비	49
4. 윈드서핑 참여동기와 제약요인	51
1) 윈드서핑 참여동기	51
2) 윈드서핑 활동목적	53
3) 윈드서핑 활동참여의 제약요인	55
4)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를 찾는 이유	57

5) 윈드서핑 활동시설 이용 시 애로사항	59
6) 윈드서핑 동호인 조직에 미 가입 이유	61
5. 윈드서핑운동의 효과	62
1) 윈드서핑 활동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효과	63
2) 윈드서핑활동이 미치는 생활만족도	64
3) 윈드서핑활동이 미치는 건강과 체력만족도	65
4) 윈드서핑활동이 미치는 스트레스 해소만족도	66
6. 윈드서핑이 관광레저스포츠로의 활성화 방안	66
1) 윈드서핑 활동을 즐길 수준 시기의식	66
2) 윈드서핑에 대한 정보출처	68
3) 윈드서핑 활성화의 개선방안	69
4) 윈드서핑의 정책반영	71
7. 성, 연령, 가계수입, 기량수준에 따른 만족도 변인들이 차이 검증	72
1) 성별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72
2) 연령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73
3) 가계수입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73
4) 기량수준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74
V. 결과의 요약	75
1. 조사대상자의 특성	75
2.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 이용실태	76
3. 윈드서핑의 행동적 참여 실태	76
4. 윈드서핑 활동경비 실태	78
5. 윈드서핑 참여동기와 제약요인	78
6. 윈드서핑 활동의 운동효과	79
7. 윈드서핑이 관광 레저스포츠로의 활성화 방안	80
8. 성, 연령, 가계수입, 기량수준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81
VI. 결론 및 제언	83
1. 결론	83
2. 제언	85
참고문헌	86
Abstract	88
부 록	91

표 목 차

〈표-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23
〈표-2〉 설문지 구성 내용	25
〈표-3〉 현재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	26
〈표-4〉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와의 거리	27
〈표-5〉 제주도 윈드서핑 활동경험 장소 현황	28
〈표-6〉 윈드서핑 활동경력의 차이	29
〈표-7〉 윈드서핑 활동참여의 빈도	31
〈표-8〉 윈드서핑의 참여계절	33
〈표-9〉 윈드서핑의 참여 때(요일)	35
〈표-10〉 윈드서핑의 참여시간대	37
〈표-11〉 윈드서핑의 1회 참여시간	39
〈표-12〉 윈드서핑의 장비 준비	42
〈표-13〉 협회가입	43
〈표-14〉 윈드서핑의 장비가격	44
〈표-15〉 윈드서핑의 희망가격	46
〈표-16〉 윈드서핑의 월 평균경비	48
〈표-17〉 윈드서핑의 월 평균 희망경비	49
〈표-18〉 윈드서핑의 참여동기	51
〈표-19〉 윈드서핑의 활동목적	53
〈표-20〉 윈드서핑의 활동제약	55
〈표-21〉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를 찾는 이유	57
〈표-22〉 윈드서핑의 애로사항	59
〈표-23〉 윈드서핑의 미 가입 이유	61
〈표-24〉 윈드서핑의 운동효과	63
〈표-25〉 각 변인들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차이 검증	65
〈표-26〉 윈드서핑의 즐길 수준	66
〈표-27〉 윈드서핑의 정보출처	68
〈표-28〉 윈드서핑의 개선방안	70
〈표-29〉 윈드서핑의 정책반영	71
〈표-30〉 성별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변인들의 차이 검증	72
〈표-31〉 연령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변인들의 차이 검증	73
〈표-32〉 가계수입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변인들의 차이 검증	73
〈표-33〉 기량수준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변인들의 차이 검증	74

그림 목 차

〈그림-1〉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	26
〈그림-2〉 성별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경력의 차이	30
〈그림-3〉 연령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경력 차이	31
〈그림-4〉 기량수준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참여의 빈도	33
〈그림-5〉 연령에 따른 윈드서핑 참여계절	34
〈그림-6〉 기량수준에 따른 윈드서핑 참여계절	35
〈그림-7〉 기량수준에 따른 윈드서핑의 참여 때(요일)	37
〈그림-8〉 기량수준에 따른 윈드서핑의 참여시간대	39
〈그림-9〉 기량수준에 따른 윈드서핑의 1회 참여시간	41
〈그림-10〉 기량수준에 따른 윈드서핑 장비의 준비	42
〈그림-11〉 가계수입에 따른 협회가입	44
〈그림-12〉 기량수준에 따른 윈드서핑 장비의 가격	45
〈그림-13〉 가계수입에 따른 윈드서핑 장비의 희망가격	47
〈그림-14〉 기량수준에 따른 윈드서핑의 월 평균경비	49
〈그림-15〉 기량수준에 따른 윈드서핑의 월 평균 희망경비	51
〈그림-16〉 연령에 따른 윈드서핑의 참여동기	52
〈그림-17〉 성별에 따른 윈드서핑의 활동목적	55
〈그림-18〉 가계수입에 따른 윈드서핑의 활동계약	57
〈그림-19〉 기량수준에 따른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를 찾는 이유	59
〈그림-20〉 기량수준에 따른 윈드서핑의 운동효과	64
〈그림-21〉 기량수준에 따른 윈드서핑의 즐길 수준 의식	67
〈그림-22〉 연령에 따른 윈드서핑의 정보출처	69
〈그림-23〉 윈드서핑 활성화의 개선방안	70
〈그림-24〉 윈드서핑의 정책반영	7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사회는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여 이른바 잘사는 나라로서의 급속한 변화 과정을 경험하여 왔다.

특히 경제발전 계획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 및 고도의 경제성장은 과학기술의 발달 및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국민소득의 증대,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의 증대 등을 수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스포츠의 대중화 및 보편화 현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는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이 과거의 수단적인 스포츠 활동이라는 근시안적 인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나은 삶의 영위”라는 삶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 합목적 신체활동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이원형, 1997).

경제발전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 및 고도의 경제성장은 과학기술의 발달 및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국민소득의 증대,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의 증대 등이 수반되면서 현대사회에서의 스포츠는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포츠는 대중문화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관여되고 있다. 스포츠 활동은 단순히 건강 유지 및 체력단련의 차원을 초월하여 신체활동과 레크리에이션 영역으로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책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복지국가 건설의 일환으로서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의 가치를 더욱 폭넓게 이해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특성은 점차 스포츠 활동이 고급화된 레저활동을 통해 생활의 리듬과 활력소를 갖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윈드서핑은 1984년 LA올림픽에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국내에서도 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유망한 해양레저스포츠로서 평가되고 있으면서도 윈드서핑 또는 보드 세일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정립이나 연구결과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영태(1993), 이영태(1994), (이영태, 1996), 안두옥(1996), 박진우(1997), 양명환(2000)등 몇편의 연구결과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레저 스포츠에 대한 일반 대중인식의 개혁과 해양레저 스

포츠활동에 대한 요구 증대 및 전문화와 다양화의 경향에 맞추어 바람이 좋고 사면이 바다라는 최적의 여건을 갖고 있고 남녀노소 구애 없이 쉽게 배울 수 있고 평소 활동을 함으로써 생활의 즐거움과 체력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구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본 조건이 되어 있으면서도 윈드서핑의 활성화차원에서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도내에서 윈드서핑이 활성화와 더불어 도민의 건강과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연구의 필요성을 갖는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내의 윈드서핑 활동장소의 현황과 행동적 참여실태, 윈드서핑 활동의 경비실태, 참여동기와 제약요인, 윈드서핑을 통한 심리·생리적인 효과와 활성화 방안 등의 현재 실태를 파악하여 관광레저스포츠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발전전략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윈드서핑 활동에 대한 실태를 연구하기 위하여 윈드서핑에 대한 활동실태 측면, 참여동기 및 제약요인의 측면, 윈드서핑 활동의 심리·생리적 효과 측면, 관광레저스포츠로의 관점 측면 등을 성별, 연령별, 한달 가계수입별, 기량수준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윈드서핑 활성화의 방안을 추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윈드서핑의 주 활동장소 이용실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성,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가?
- 2) 윈드서핑의 행동적 참여실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성,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가?
- 3) 윈드서핑의 활동경비 실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성,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가?
- 4) 윈드서핑 참여동기와 참여제약요인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성,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가?
- 5) 윈드서핑의 심리·생리적인 효과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성,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가?
- 6) 윈드서핑 의식, 홍보, 개선방안, 관광레저스포츠로의 정책 등의 윈드서핑 활

성화 방안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성,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가?

7)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변인들은 성,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윈드서핑 참여 경험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나. 윈드서핑 실태조사는 심층면접이나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질문지로 자료를 얻었다.

다. 연구대상자의 표집은 윈드서핑 활동 인구에 대한 정확한 모집단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 모집단을 추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비확률적인 편의표본추출법이 이용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현대인과 레포츠 활동

현대인들의 바람직한 여가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동을 수행한 후에 갖게 된 여유시간을 사회성, 재생산성, 창조성 등이 있는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 가능하다. 이때 충분한 에너지와 열정으로 흥미와 재미를 갖고 수행해야 한다. 남은 시간들을 억지로, 또는 무의미하게 채우는 지루한 일들이 아닌 구속과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다양한 일들을 활기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순수한 감수성과 특 특 튀는 창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가를 갖는 자신과 타인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관광이란 것도 일상적인 거주지를 벗어나 새로운 체험과 재충전을 원하는 사람들과 관련 사업체가 관광지역의 자연, 시설,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주면서 즐기는 자유로운 경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결국 만족스런 여가생활을 위해서는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공감하면서 기쁨과 흥미, 즐거움, 스트레스 해소 등을 누릴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바로 이 영역을 현대인들은 레저스포츠로 채우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레포츠활동은 특정 스포츠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스포츠 및 레저유형들을 재미, 흥미, 즐거움, 기쁨, 보람, 기분전환 등을 목적으로 할 때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으로 얻어지는 효익(benefit)들은 각종 공해물질과 환경오염, 지나친 스트레스, 비만, 운동부족 등으로 자칫 흔들리기 쉬운 현대인의 건강과 생활에 활기와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에서는 레포츠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특히 고가의 대규모 레포츠시설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가 널리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현대생활은 레포츠와 함께 하지 않고서는 삶의 활력과 건강관리,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 시대이다. 그리고 향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커져 나갈 것이 분명한 레포츠시장은 어느 단편적인 시각에 의해 왜곡(歪曲)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전해줄 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1) 현대 여가문화의 특성

현대 여가문화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내용과 형태, 주체 등이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 창조성, 유행성 등을 추구하며 빠르게 변화한다. 그러므로 각종 스트레스와 공해환경에 둘러싸인 현대인들은 여가시간을 통해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극복하거나 삶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한다.

여가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추구될 수 있다.

첫째, 여가를 통해 장시간의 업무와 스트레스에서 오는 긴장완화(relaxation)를 갖도록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휴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탈피해 일상 생활을 벗어난 생활의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또는 체험을 통해 내재된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자아시련(self-testing)을 추구한다. 인간 내면의 도전의식은 인생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면적 투쟁이 될 수 있다. 성취와 능력, 자아가치 등을 여가를 통해 확인한다.

셋째, 자아감(self-image)을 고취시킨다. 자기 자신을 잊기 쉬운 현대생활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넷째, 사랑의 감수성을 찾는다. 자연과 자신에 대한 경탄과 자긍심으로 주위 환경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다섯째, 추억을 아름답게 회상한다. 과거 매우 부정적이었던 경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해되면서 좋은 추억으로 정리될 수 있게 해준다.

여섯째, 뛰어난 통찰력과 창조력을 제공한다. 당면한 과제에 매달리다 보면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하게될 수 있는데, 여가를 통하여 높은 의지력이 바탕이 된 지혜를 가질 수 있다. 일곱째, 자기반성(self-introspection)의 기회를 준다. 자기답지 않은 언행에 대한 성찰과 주위 환경과 사람들, 업무 등을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제공해 준다.

2) 여가문화의 대중화

현대인의 여가문화가 대중화되고 시장이 확대될 수 있었던 원인은 소득의 증가에 있다. 전세계적인 산업, 통신, 교통 등의 발달은 부의 축적과 여가문화를 부흥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배고픔 해소와 생산량의 증대를 위해 노동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맹목적인 생산을 하지 않는다.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맞추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남은 시간을 자신과 가족, 친구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더 이상 노동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삶은 지향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념은 현대적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소비지출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가활동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1996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볼 때, 도시가구의 총 가계지출에 대한 교양오락비는 80년 2.6%, 85년 3.3%, 90년 4.4%, 95년 5%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이와 같이 여가와 관련된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사람들의

여가욕구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소득과 많은 여가시간 시대를 맞이하면서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생활의 질과 문화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광 등의 여가관련 지출과 문화예술이나 교양관련 소비지출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2. 여가시장

우리 나라의 여가시설은 다양하고 차별적인 소비자욕구에 따라 대규모 또는 최고급으로 개발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는 IMF 관리체제로 인해 많은 여가시설들이 부도나거나 신규개발이 취소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는 주원인이 되었다. 각종 부도와 구조조정 여파로 실직자가 증가해 노동 외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실질소득은 급속히 감소되는데도 원치 않는 가처분시간은 퇴직, 명예퇴직, 해고, 구조조정 등의 명목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늘어난 시간과 실질소득의 감소가 배려된 저 비용 대중 레저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한적하고 음산한 구석에 실직자들을 방치하기보다는 쾌적하고 밝은 공간에서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면서 유사한 사람들과 만나 능동적인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출발의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는 과거에 사업 다각화와 부동산 투자의 일환으로 수동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레저시설 개발을 다양성과 차별성, 독창성, 향토성 있게 추진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은 매년 수십 억불의 외화를 해외여행으로 탕진하는 것을 방지하는 근원책이며, 많은 해외관광객을 유치해 공해 없는 고품질의 서비스품질로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길이다. 그리고 많은 서비스인력을 육성해 수많은 고용창출을 가능하게 해준다.

1) 여가소비패턴의 변화

97년 이후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결과인데, 그 중에서도 여가관련 지출은 우선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볼 때도 소득이 큰 폭으로 변할 경우 여가 및 관광, 레포츠 등에서 소비지출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여가지출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문화 및 레저 부문에서 급격한 지출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등 상품만이 판매(사람들이 몰린다)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는 소득감소로 많은 참여와 구

매기회가 상실되어 신중히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99년 7월)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다시 퇴폐, 향락, 사치성 여가활동이 시작되고 있는데, 특히 중산층이 무너져 상대적으로 소수층이 된 상류층에 의해 모든 소비가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 명분으로 이러한 편중된 소비형태를 방관 내지는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향후 사회계층간의 위화감 조성과 사회불안, 부조화의 주원인으로 많은 사회비용을 지불하게 만들 것이다.

2) IMF 관리체제 이후 여가시장

97년 이전까지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높아진 소득과 늘어난 여가시간을 사치와 퇴폐로 몰든 여가문화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었다. 무분별한 사치와 향락에 젖은 해외여행은 많은 외화의 낭비는 물론 외국인들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원인은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문화가 양적·질적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IMF 관리체제 시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환란을 국가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좋은 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여가시장은 과거의 불건전하고 좋지 않았던 이미지에서 벗어나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흥미와 재미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튼튼한 여가문화를 선도하는데 기업과 정부,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다. 이 길만이 좋은 대중 이미지를 통해 시장의 확대를 모색할 수 있으며, 정부정책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안이 된다.

3) 미래의 소비패턴 양상

IMF 관리체제 이후 나타난 전반적인 레저시장의 소비패턴 변화는 다음과 같다 (강신겸, 박용규, 1998).

- 가. 소극적 여가활동의 만연
- 나. 실질가치의 추구
- 다. 여가의 테마(theme)화 확산
- 라. 시설보다 프로그램 중시
- 마. 거주지 밀착형 여가형태
- 바. 시설의 소규모화

4) 미래의 여가시장 전망

90년대 들어 레저문화의 특징은 첫째, 가족단위의 레저생활이 일반화되었다. 둘째, 자동차 대중화 시대의 도래로 가족단위의 오토 투어가 가능해지고 각종 레저산

업의 발전으로 가족동반의 체재형 레저생활이 정착되고 있다. 셋째, 레저세대가 급부상 하면서 모험과 체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다양한 레저 소비패턴이 선호되고 있다. 넷째, 래프팅, 트레킹,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파라글라이딩, 암벽타기, 번지점프 등 매우 다양한 신종 레저 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자연친화적 레포츠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도심의 폐쇄된 공간에서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접하며 건강을 관리하거나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앞으로 레저수요와 공급요인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 레포츠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 레저관련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년의 2.63%에서 2000년에는 3.2%, 2005년에는 3.7%로 높아진다고 예측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성장이 가능하다면 레저시장 규모는 95년 9조 1400억 원에서 2000년에는 15조 9천억 원으로 95년 보다 1.6배 확대되고, 2005년에는 24조 6000억 원으로 95년보다 2.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90~95년 동안 17%씩 성장했던 우리나라 레저시장은 95~2000년 동안 13.8%씩, 2000~2005년 동안에는 10.7%씩 성장하면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즉 90년대 중반부터 성장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향후 2005년경까지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나 2005년 이후에는 성숙기에 접어들어 현재 일본의 경우처럼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서천범, 1998).



3. 레포츠 시장

1) 레포츠의 개념과 특성

레포츠란 레저(leisure)와 스포츠(sports)가 합성된 신조어다. 레저는 여가시간을 즐기는 것으로 여행이나 캠핑, 위락, 놀이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되며, 스포츠는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관리 또는 체력·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게임과 트레이닝 등을 수행한다. 즉 레포츠활동이란 즐거움과 재미,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사회학자 켈리(Kelly, J. R)는 "대부분의 스포츠활동은 참여자에게 있어 확실한 레저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스포츠 참여는 즐거움과 기분전환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또한 1992년 4월에 설립된 일본 레저스포츠진흥협회는 레포츠에 대해 "스포츠에는 골프를 비롯해 오토바이의 대륙횡단, 스쿠버 다이빙과 같이 레저성이 강한 스포츠가 있는데, 레저스포츠는 특정 스포츠종목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스포츠를 즐거움이나 기분전환 등의 목적으로 할 때, 그것을 레포츠라고 부를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레포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흥미 있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게임이다. 운동과는 달리 해당 종목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시간적 노력과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의 적응훈련만으로도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레포츠활동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특수한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레포츠는 오락적인 흥미와 재미, 운동의 기능을 갖고 있다.

넷째, 참여 집단간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이 강해진다.

다섯째,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새로운 유행과 대중적 인기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곱째, 재생산을 위한 충전의 기능을 갖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레포츠활동은 특정스포츠종목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스포츠 종목을 재미, 흥미, 즐거움, 기쁨, 보람, 기분전환 등을 목적으로 할 때 가능해진다.

2) 레포츠활동의 기능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관리 차원에서 레포츠시설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병원 치료비로 인한 개인의 1차적 손실을 방지해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를 유인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와 내재된 욕구를 대리 만족시켜 국민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레포츠시장의 활성화는 국가적 차원으로나 개인의 차원에서도 순기능으로 작용해 삶의 질과 국가복지를 개선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레포츠에 대한 인식이 낮은 관여도를 가진 소비자들에게는 참여의 즐거움과 양질의 프로그램, 이벤트 등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높은 관여도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다양성과 차별적인 시설, 프로그램 등으로 새로운 흥미와 도전의식을 계속적으로 부추겨야 한다. 특히 생활의 중심이 일에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레포츠참여를 통한 즐거움과 흥미를 맛보게 해주면서, 일과 여가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과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극적인 레포츠참여는 건강한 삶과 생활의 활력을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나 소속집단의 여가활동, 위락, 놀이의 패턴은 곧바로 해당 사회와 국가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다음 기사들은 우리 생활 속에 미치는 여가활동의 기능들이다.

3) 레포츠시장 현황

글로벌시대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많은 레포츠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하고 세분

화된 레포츠시장을 경험하거나 정보를 갖게 되면서 쾌적한 시설이나 자연 공간에서 흥미 있는 스포츠를 즐기려는 선진국형 여가인구가 늘고 있다. 특히 레포츠활동을 통해 노동력의 재생산과 창조력, 새로운 활력, 건강관리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기업과 개인은 보다 적극적으로 여가를 위한 레포츠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각종 레포츠가 이미 생활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골프, 스키, 리조트, 윈드서핑, 패러글라이딩, 스킨스쿠버 등이 더 이상 사치놀이가 아닌 대중레포츠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제공하고 있다. 선진 레포츠문화의 영향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우리도 개인의 취향과 계절에 따라 재미와 스텔을 만끽하며 즐길 수 있는 수십 개의 레포츠가 보급되어 있다. 특히 소비생활의 선진화와 국제화에 따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여가생활 성향이 달라져 가고 있는데,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으로 그치던 예전의 정적이고 소극적인 여가참여가 아닌 동적이며 적극적인 체류형, 체험형을 지향하고 있다.

국내 레포츠시장에 대한 사업적 인식은 그 동안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극히 제한적인 소규모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레포츠시설의 시장성을 확인한 대기업들이 이미지전략과 직원후생복지차원, 수익대체효과를 기대하며, 거대 자금을 투자해 스키장, 골프장, 종합리조트, 레저시설 및 자연경관을 이용한 각종 종합 레포츠시설 등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주변지역에 호텔과 콘도, 위락단지, 테마 파크 등을 함께 조성하거나 많은 소규모 레포츠시설들과 함께 체인망을 구축해 시설의 다양성과 우수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4) 레포츠시장의 문제점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관광수지 흑자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의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 특히 레저스포츠시설 개발은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가장 좋았던 시기였고, 미래 관광산업의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였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기회를 기업들은 단기적인 시설개발 이익에만 몰두해 지역 사회와 자연을 파괴하는 무차별적인 시설개발을 강행하였다. 또한 대중시설보다는 고가에 회원권을 판매해 투자비를 재빨리 환수할 수 있는 고급의 대규모시설 위주의 개발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사치성 대규모 레저스포츠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터전을 파괴하고, 생계 위협, 자연 파괴,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사치성 시설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일반 국민들에게 강하게 인식되고 말았다.

90년도에 들어선 문민정부는 국민정서에 편승한다는 명분으로 레포츠시설에 각

종 세금과 혜택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버리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와 실명제의 실패로 자금이 지하에 묶이는 바람에 더 이상 레포츠 시설 개발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국내 관광시장은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쇠퇴기를 맞게 되었으며, 국민들의 여가문화도 더 이상 성숙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민소득이 만분로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보다 나은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은 욕구를 해외관광을 통해 밖에서 해소하게 되었다. 때문에 급속히 증가된 해외여행은 세계를 배우고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었지만, 사치성 비용으로 퇴폐성 관광을 즐기면서 달러를 홍침망침 쓰는 부정적 여가문화가 만연되고 말았다. 사치성 해외여행으로 인한 달러의 무차별 유출은 IMF 관리체제 행을 재촉하는 결정적 역할을 제공하였다.

5) 레포츠시장 전망

전세계적으로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과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수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레포츠시설은 관광자원으로 활용성이 매우 크다. 자연 친화적 그린 소비자층의 증가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소비자층의 증가는, 자연 속에서 체류하면서 흥미 있는 레포츠를 경험하고자 하는 미래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소득 증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여가시간의 증가, 동적 여가활동추구, 건강관리 관심증가, 레포츠활동 공간의 부족, 기업과 개인의 시설개발 투자 증가 등으로 레포츠시장의 확대·발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미래 레포츠시장

미래 레포츠시장은 급속한 소비패턴의 변화가 특성이다. 특히 이미지가 중요시되는 레포츠시장은 소비자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기 위한 수준 높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만 만족을 높일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가능한 빨리, 효율적으로 최적의 경영마인드와 서비스 운영에 대한 체질개선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고금리, 부동산 경기침체, 회원권의 하향 안정조정 등에 적합한 개발전략을 찾으면서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한 전략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해야 한다. 한편 시간요인보다는 비용요인이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비용 여가시설의 개발을 추진해 레포츠의 대중화와 여가활동 기회제공을 늘려 시장의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1) 대중 레포츠 개발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가 줄고 대량실업과 구조조정으로 위축된 분위기지만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정된 사회정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가기획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실질소득이 감소한 여건을 감안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중 레포츠시설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저비용 대중 레포츠시설 개발은 금융기관 차입에 의한 대규모 레포츠단지 개발 방식이 아닌 중·소규모의 시설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주거 인구와 시장경쟁력을 제고한 적정고객 유인시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시설로 사회복지를 지향한다.

2) 저비용 레포츠시설 개발방안

저비용 레포츠시설 개발방안 중에는 기존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차별화해 강조하는 방안이 있다. 우선 기존 중·소 레포츠시설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시설 및 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공동 마케팅함으로써 비용과 효율성을 극대화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학생이나 직장 단체를 주요시장으로 한 대규모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 수련장 등과 같이 남녀노소 가족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저비용 레포츠시설 개발을 확충해야 한다.

3) 체류형 시설 개발

도심권의 다양하고 차별화 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쇼핑, 숙박시설 등을 복합화 한 종합 테마레포츠시설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래 레저소비자의 특성은 환경 친화적이며, 체류형, 체험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도심권에 집중된 시설투자보다는 산림지역, 해안지역, 지방색이 있는 교외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개발 법규 및 제도의 개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레저시설개발이 선행되고, 지역과 문화적 특성을 살린 아이টে으로 특색 있고 차별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여가관련 법규나 제도는 시대성과 효율성에서 선진 관광국가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적용기준을 아직까지도 10년 이전의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며, 시설의 차별성과 다양성, 규모 등을 고려치 않은 법률적용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인 관광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요구된다(강신겸, 박용규, 1998).

- 가. 관련 인 허가제도 개선
- 나. 휴양업종의 신규도입
- 다. 투자비 회수를 위한 규제완화
- 라. 관광시설 면적규제 완화

5) 외국의 규제완화 실태

선진 관광국들은 정부와 민간이 관광시장을 창조하고 개척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관광사업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알아본다(이광휘, 박기홍, 1997).

(1) 규제완화의 배경 및 경위

일본 경제·사회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규제완화는 소비자의 다양한 수용에 부응하고, 내수확대 및 수입촉진을 통하여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국민이나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관점에서 수차의 행정개혁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관광진흥을 추진하고 있다.

(2) 인허가 실태

일본 총무청은 각 성청의 협력을 얻어 매년 인허가 등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5년 3월 관광업과 관련된 인허가 총수는 10,760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 건수는 1년 전의 10,945건과 비교할 때 185건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1994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규제완화추진계획에 의해 각 성청에서 인허가 등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규제완화 추진계획

경제분야의 규제는 없애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하고 있다. 사회적 규제에 관해서는 본래 정책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시장진입 및 설비에 관한 규제는 사업의 내용과 성격 등을 감안하여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6) 여가문화의 개선

현재 지나치게 여름에 집중된 휴가로 인해 발생하는 짜증과 불편, 손실 등을 줄이고 여가시설의 효율성과 가용성을 높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4계절로 분산된 여가문화의 정착으로 가능하다. 여름 휴가시즌과 주말에 집중된 레저수요패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휴가기간의 연장과 분산 등 휴가제도의 획기적인 개선도 필요하고, 기존 레저시설에서 계절과 주말에 집중된 행사와 각종 서비스품질, 테마 등을 표적시장에 맞춰 평일과 비수기에 더 효과적으로 개최하고 홍보하는 적극적인 벤처마케팅전략을 시도하는 것이 장기적인 여가문화 개선 안이 될 수 있다.

7) 효과적인 운영 마인드 개선

미래 레포츠시장에서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IMF 관리체제 이후 냉각기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감안한 전략적 시설개발과 효율적인 운영마인드가 필요하다. 과거의 대규모적이고 대다수를 대상으로 한 시설 투자와 막대한 운영비 투자로는 더 이상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소비자 만족을 높일 수 없어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하고 차별적인 시설을 시장규모에 알맞게 세분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의 운영과 설치 등 사업전반에 걸쳐 저비용 사업구조를 구축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8) 21세기 관광정책의 방향

특별한 자원이 없는 우리의 경우 자연, 문화, 풍습, 레저시설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다양하고 차별적인 소프트웨어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게 개발한다면 국가적인 전략산업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민경제를 상승시키는 효과와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해 사회복지 실현하는 방안이 된다.

가까운 장래에 국내 관광시장은

- 가. 대상 관광객을 다국적화 한다
- 나. 관광자원 개발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다. 해외여행객들을 국내여행으로 유도한다
- 라. 다양하게 다변화하는 소비자 기호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개발과 운영 마인드를 축적한다
- 마. 레저스포츠의 대중화와 가족중심의 여가문화를 확산시킨다
- 바. 관광정책 수립과 결정이 정부보다는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져 탄력적으로 소비자 수요패턴에 대응한다
- 사. 현실적으로 법규 및 체도를 정비한다
- 아. 사회기반시설로서 공공 여가시설을 다양하고 차별적으로 확충한다
- 자. 고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용창출과 연계된 관광정책을 추진한다
- 차. 여가정책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활성화시킨다
- 카. 여름시즌에 집중되어 있는 휴가제도를 개선한다
- 타. 네트워크 또는 체인화를 강화한다

5. 해양레저스포츠의 현실과 그 전망

공해물질과 산업폐기물 없이 쾌적한 시설과 공간, 서비스인력을 통해 달리를 벌어들이는 관광산업은 선진국형 미래산업이 분명하다. 국가 전략산업인 관광산업을 중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레저시설의 개발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 레저시장은 경기의 침체와 정책부재, 사회불안 등으로 제자리를 맴돌거나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시설투자 없이는 앞으로의 관광산업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정부 주도의 해안선 관광지개발이 "2000년대 구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연, 산, 바다의 그 웅대함, 그 아름다움은 우리 인간을 사로잡는다. 해양기상의 변화는 모험심과 고난을 이겨내는 도전정신을 고양시키며 자연의 순리를 이용하여 풍요한 인생을 즐기는 요건을 만족시켜주기도 한다. 해양레저스포츠는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는 반면 여러 가지 사고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해상에서 안전하게 활동하기 위한 상황판단과 레저스포츠의 기법과 자연에 대한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해양레저스포츠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일부 특정 인물만 즐기는 편이었으나 서울올림픽이후 사회스포츠가 발전하고 다양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레저스포츠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선풍적인 인기와 붐이 일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가 국내에서도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대폭 신장되어 선진국형 레저활동의 패턴의 변화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해양레저 스포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도 레저활동은 육상에서의 활동이 주된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양을 이용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용인구도 급증함에 따라 이벤트 상에서 해양레저 강습회 등을 개최하여 기초기술을 가르치고 관광의 코스로도 선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뉴비전 밀레니엄 시대에는 더욱 폭발적인 인기와 장비, 전문인력이 크게 요구되리라고 전망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관광시장의 개발은 지역의 향토성과 전통성이 가미된 차별화 된 관광상품을 테마성 있게 개발하는 것이 지역균등발전과 사회복지개선, 외국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광고와 이벤트, 프로그램, 서비스 등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투자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필요한 대규모시설은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이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끌어들이 사면이 바다인 제주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6. 생활체육으로서의 윈드서핑

생활체육은 영어로 "Sport for All"로 표현되고 있으며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로 간단히 설명되어 지기도 하나 좀 더 자세하게는 취학 전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성별 연령 인종 종교에 관계없이 종합적인 신체적성의 수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실행하는 모든 종류의 스포츠 활동 및 신체건강의 총체를 스포츠로 정의하고 이 스포츠를 범 국민적으로 보급 향상 발전시키려는 운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간 이외에 행해지는 소극적인 여가 스포츠로 이해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각종 스포츠 및 신체운동을 모든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도덕적, 문화적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에 널리 보급 실천하는 국민운동을 의미한다.

생활체육은 건강의 증진과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인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목표로 들고 있다.

가. 기본전환의 삶의 즐거움을 충족함으로써 보람된 일상생활을 즐긴다.

나. 체력을 향상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한다.

다. 운동기능의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한다.

라. 타인과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사회적 특성을 함양한다.

마. 자연과 접촉하여 올바른 자연관 및 인생관을 확립한다(임번장, 1986).

모든 스포츠가 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겠으나 윈드서핑 역시 타 스포츠에 비해 우수하다고 할 특성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윈드서핑은 자연과 호흡하는 스포츠라고 하겠다.

윈드서핑은 물위에서 바람을 이용하여 하는 스포츠이므로 세일링하는 것 자체가 자연과 호흡하는 것이다. 강, 호수 또는 바다 위에서 미풍인 때는 미풍인대로 폭풍에 가까운 강풍에도 그 나름대로 자연과 호흡하게 됨으로써, 자연에 대하여 친근하게 해주며, 겸허하게 해주고, 자연에 동화되게 함으로써 타는 이로 하여금 순수해지게 하는 대자연과 일체가 되는 스포츠이다.

둘째, 윈드서핑은 장비가 간편한 스포츠이다.

윈드서핑은 종래의 요트경기와는 달리 장비가 간편한 것이 또한 특징이다. 혼자서도 쉽게 옮길 수 있는 보드에 간단히 조작하여 결합시키는 뜻만으로 스포츠가 이루어지면서 대 해안을 횡단할 수 있는 스포츠임을 감안할 때 너무나 간단한 장비로 이루어지는 스포츠라 할 수 있겠다.

셋째, 윈드서핑은 레저를 겸한 아름다운 스포츠이다.

윈드서핑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므로 가족단위로 또는 직장이나 단체의 동호회 단위로 즐길 수가 있어 오늘날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최적의 스포츠라 하겠다. 아울러 물위에서 바람을 타고

그러지는 원색의 돛은 그대로가 한 폭의 그림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평화를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스포츠라 하겠다.

넷째, 윈드서핑은 전신운동 및 두뇌운동에 적당한 운동이다.

윈드서핑은 물위에서 또 좁은 보드 위에 서서 세일링을 함으로써 집중력, 평형성, 조정력, 유연성, 민첩성을 요하게 되면서 체력증진요소가 전신에 걸쳐 작용하며 타 종목에 비하여 운동효과도 크고 두뇌운동에도 적당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이영태, 1990; 1993; 1996).

윈드서핑에 대하여 정리하여 간략히 설명하여보면 윈드서핑 세일링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자연이다”라고 서슴없이 말 할 정도로 수면과 바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신종 스포츠로서 보드 위에 서서 세일(돛)로 바람의 양을 조절하여 타며 세일링을 하게 되는데 보통 시속 20km 이상을 달릴 수 있으며 보드와 세일로 이루어진 비교적 간단한 장비와 간편한 복장으로 임할 수 있는 것이 커다란 장점이며 장비를 비싸게 구입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 탈수도 있으며 각 클럽에 동호인으로 가입하여 약간의 월 회비 또는 년 회비를 내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안두옥, 1988; 1989).

초보자는 우선, 아무 것도 잡지 않고 보드 위에 서는 연습인 수상 밸런스 적응 훈련과 모의 연습기에서 바람 감각을 익힌 후 간단한 준비운동으로 긴장을 풀고 세일링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루 4~5시간씩 2~3일정도면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전적으로 물에서 즐기는 스포츠이지만 수영하고는 무관하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물이 쫄쫄 얼지 않는 한 연중 내내 세일링이 가능하고 파도와 바람을 타는 동안에 맑은 공기와 탁 트인 공간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수면을 가르며 일상의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형형색색의 세일들이 무리를 지어 맑은 수면, 푸른 하늘과 맞닿아 달리는 모습은 어느 스포츠도 주기 어려운 시각적 아름다움까지도 제공하여 준다.

또한 윈드서핑은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도전성이 무한하고 다양한 코스를 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는 투지와 모험심을 길러 주고 중년층에게는 운동량이 많고 맑은 대기를 호흡할 수 있게 하여 성인병 예방과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좋은 레저스포츠라 하겠다.

남녀노소 구애 없이 바람과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손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서 취급과 조작성이 용이하고 간편한 짜임새로 구성되어 파도와 바람 속에서 절묘한 밸런스 감각과 조종성이 뛰어나 원시적인 감각을 활주하는 사람에게 전해 주는 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주는 풍부한 운동량이 숨겨져 있어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으로서 선호도가 높은 운동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장비 렌트 비용이 저렴하고 활동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어떠한 레저스포츠 종목보다도 경제적이라 할 수 있겠다(KWA 홍보위원회, 1994).

1) 윈드서핑의 역사

새로운 감각의 해양 스포츠인 윈드서핑의 역사는 비록 그 기간은 짧지만 단기간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개량되어 왔다. 윈드서핑 장비의 변천과정은 그 자체가 윈드서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대변하고 있다.

윈드서핑의 발명은 1967년에 당시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의 부사장이면서 서핑인 이었던 호일 슈바이처 (Hoyle Schwiter)의 “단순한 파도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을 빌어서 달린다면 얼마나 편리할까?”라는 생각과 당시 요트인 이었던 짐 드레이크 (Jim Drake)의 “요트는 세일링의 준비시간과 마친 다음 뒷마무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긴다. 서핑과 같이 손질을 하거나 셋팅을 할 필요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이들은 요트의 항해성과 서핑의 기민성을 함께 맞출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슈바이처의 머리 속에는 처음부터 보드 위에 타는 사람이 서서 조정하는 것을 그리고 있었으나 가장 큰 문제는 키를 어떻게 붙여서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요트를 잘 알고 있던 짐 드레이크는 키가 없을 지라도 어느 만큼은 세일을 움직여서라도 방향이 잡힐 것이라는 힌트에서 마스트-세일 (돛대)을 세우는 기둥-의 움직임에 의해서 보드를 조정하는 방법을 착안하였다. 이 생각을 밑고 나아감으로서 고안된 것이 혁명적인 유니버설·조인트 (Universal-Joint) -보드와 세일 (돛대)를 연결시켜 주는 결합체로 360° 상하좌우로 자유스런 유동이 가능-와 활 모양의 붐 (Boom) -마스트와 세일을 펼쳐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손잡이-으로 마스트를 움직임으로서 세일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후 슈바이처는 보드 장비 생산에만 열중하던 중 처음으로 장비를 사 갔었던 버트 셀리스버리 (Bert Salisbury)가 “바람을 이용한 파도타기”라는 뜻으로 “윈드서퍼 (Windsurfer)”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장영주,1983;김영철,1988;김교준,1990).

그후 윈드서핑은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200여가지 이상의 같은 기능의 여러 유형이 생겨나게 되었고 국제요트경기연맹(IYRU)에 의하여 이를 세일보드라고 칭하게 되었고 이를 타는 행위를 보드세일링이라는 합성어로 불리게 되었다(최강렬,1993).

1974년 제 1 회 국제대회가 개최된 이후 매년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84년 제 23회 L.A.올림픽에선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제24회 서울올림픽에 이어 제 25회 바르셀로나 대회에서는 여자종목까지 채택이 되어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권희범, 1996).

2) 국내의 보급현황 및 전망

국내의 보급은 70년대 초부터 몇몇 동호인에 의하여 시작되어 1985년도에 전국보드세일링협회가 결성되었고 이어 1986년 10월 23일에 대한요트협회(KYA)에 한국보드세일링협회로 가맹 승인되기 전까지는 경기라기보다는 레저의 한 종목으로 행하여져 왔다(이한기, 1990).

그후 일반인에게는 윈드서핑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알려진 것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는 1990년 5월 10일 당시 국제요트경기연맹(IYRU) - 1996년 8월 1일자로 국제세일링연맹(ISAF)으로 개칭됨 - 의 가맹단체인 대한요트협회(KYA)에 클래스협회로 등록되어 국내 세일보드의 제 클래스를 통괄하고 있던 한국보드세일링협회(KBSA)는 그간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던 사회체육 윈드서핑 연맹과 해양소년단 윈드서핑연맹을 통합하여 대한 윈드서핑 협회 (KWA)를 설립하고 사단법인으로 등록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윈드서핑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서울윈드서핑협회, 1990).

따라서, 한국보드세일링협회는 요트협회의 클래스 협회이면서 아울러 대한 윈드서핑협회의 산하 협회가 된 것이다.

이들 각 협회의 기능은 전국체전이나 올림픽등 공식경기에 관계되는 선수선발이나 훈련 등의 일은 요트협회의 가맹 단체인 한국보드세일링 협회가 주관하고 윈드서핑협회는 협동기구가 되며 그 밖의 국내 보급이나 동호인 지도 관리 등의 일은 윈드서핑 협회가 주관하며 한국 보드세일링 협회는 협동 및 지도하는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맨 처음 일반인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던 계기는 1980년도 당시 대한요트협회 심판이었던 권희범씨의 부산과 대마도간(80km)의 횡단이 효시가 되었으며 그후 1986년 5월에 엄용대(당시 해양소년단 윈드서핑연맹 코치)씨의 한일해협 횡단과 한국해양대학 보드세일링팀의 1988년 8월에 88서울올림픽 성공기원 부산 제주간 제주해협횡단, 아울러 한강윈드서핑 크로스 컨츄리로 161명이 올림픽 참가국기를 달고 8시간에 걸친 대장정, 그리고 1990년 9월에 제주도에 열렸던 국내 최초의 프로대회인 제주 신라월드컵대회 등으로 많은 홍보가 되어 가며 각 클럽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김효윤, 1997; 배길진, 1996).

현재 대한 윈드서핑협회 산하에는 14개의 시도지부협회가 있으며 등록된 클럽 수는 130개 클럽, 회원 수는 7000여명정도이다. 회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활동중이거나 경험자는 3만 여명쯤, 이중 여성은 전체의 15%를 차지한다고 추정하고 있다(한광일, 1995).

일본의 경우 1992년 당시 활동중인 자는 40만 명, 경험자는 1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이다(이영태, 1993).

3) 제주도내의 윈드서핑 현황

1980년대 우리 나라에 보급되어 급속도로 전파, 윈드서핑 연구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제주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최적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식치 못한 채 도외시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현재 도내에서는 200여 명의 동호인과 100여대의 장비가 있으며 각 클럽별로 제주시지구에서는 6개 클럽이 이호해수욕장에서 주로 활동하고 또한 제주관광대학 관광레저스포츠과에서는 학과수업과정 및 제주대학교 체육과 학생 등의 해양훈련을 이곳에서 실시하고 있고 신양해수욕장에 대한윈드서핑훈련원과 1개 클럽과 한라대학 생활체육과 학생의 학과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로 화순해수욕장에 1개 클럽과 함덕해수욕장과 협재해수욕장 제주시 해안도로, 탐동 앞바다, 중문해수욕장 등지에서 간간히 개인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동호인 단체 및 개인들은 대부분 88년도 이후 결성하여 빈약하나마 상호 협력적으로 도내 윈드서핑계를 선양하고 있으며 이들이 결성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88년 10월 3회 한국 윈드서핑 선수권 대회에서 헤비급 클래스 2위와 일반부 오픈 클래스 14위를 차지했으며 89년도 5월 제 4회 전국윈드서핑 선수권 대회에서는 일반부 오픈 클래스 8위, 9위, 11위와 대학부 오픈 클래스에서 장려상을 획득하여 오면서 90년 7월 14일에는 제주협회가 창립되고(김영기,1990), 최근 96년 이후에는 제주 사대부고의 홍아람 선수가 1위 석권을 다수 하면서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되면서 해외훈련에 파견되기도 하고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하는 등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부에서는 97년 이후 회장배 전국 윈드서핑대회 및 문화체육부장관기 등 전국규모 대회에서 본 협회 소속 여러 선수들이 각 클래스별로 1위 및 2위 3위를 자주 하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해상여건이 윈드서핑 훈련을 하기에 좋은 지역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머지않아 전국대회 석권은 물론 국위선양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윈드서핑의 보급발전 및 선수발굴,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하겠으며 제주도민 전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속에 천연적 최적의 해양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주도민이 건강증진과 생활복지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특기 적인 생활체육으로의 선양함과 아울러 앞으로 큰 전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방안도 모색해 봐야 할 때로 본다(제주도윈드서핑협회, 1996).

7. 선행연구의 고찰

이 부분에서는 윈드서핑 종목이 생활체육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생활체육참여실태를 연구한 자료들을 고찰하고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론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연구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20~30년 동안 세계 각국은 신체활동과 운동의 잠재적인 건강혜택에 대한 단·장기적인 효과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으며, 건강·체력의 측면에서 운동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국민들에게 규칙적인 운동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도들로는 Sport for All program(유럽), TRIMM campaign(독일), Life -Be In It campaign(호주), Participation campaign(캐나다), Fitness USA campaign(미국) 등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80년 이후 사회·생활체육참여 캠페인이 정책적으로 홍보되면서 국민들이 운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나라의 성인들도 스포츠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지난 1985년 26.8%에서 1991년도에는 51.9%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당 2~3회 이상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양명환, 1999).

최근에 임번장·고은하·정영린(2000)은 1985년부터 1997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인의 스포츠 참여 양상의 성장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주요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체육활동의 질적, 양적인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체육활동의 규칙적인 참여율이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참여빈도의 증가는 완만하지만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육활동의 질적인 참여증대가 이루어져 한국체육이 양적 증가에서 질적 내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984년 LA올림픽에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국내에서도 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유망한 해양레저스포츠로서 평가되고 있으면서도 윈드서핑 또는 보드 세일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정립이나 연구결과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몇 편의 연구결과들이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 이영태(1993)는 국내 보드세일링 경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정책적, 제도적, 교육적 차원에서 발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이 부분에서 이론적인 고찰과 접목을 이루려는 시도들을 독려했다. 또한 이영태(1994)는 보드세일링의 안전사고에 대한 비평과 정책 제안을 하고 있으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정신연습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이영태, 1996). 또한 국내에 적합한 훈련프로그램 모형의 개발의

필요성과 대안모형을 제시한 안두옥(1996)의 자료, 박진우(1997)의 특별소비세가 윈드서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포츠마케팅 전략으로 접근한 자료가 있다.

보다 최근에 양명환(2000)은 윈드서핑 레저스포츠의 참여동기 분석연구에서 윈드서핑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의 다차원적인 동기구조를 확인한 결과 학습동기, 정화동기, 친화동기, 건강·체력동기, 즐거움 동기의 5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개별문항들의 중요도 분석에서 "윈드서핑을 배우고 싶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타보고 싶은 충동과 호기심이 중요한 이유들로 평가되었다. 이 연구에서 양명환(2000)은 레저,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동기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 선정은 제주도내에 거주하며 윈드서핑 활동 경험이 있는 도민 256명을 비확률적인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방법에 의거 추출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으로는 제주도생활체육윈드서핑연합회에 관련이 있거나 무료강습회 참가자, 대학에서 학과목으로 이수하거나 현재 학과시간에 활동이 있는 사람과 또는 예전에 활동을 하였던 사람, 최근에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 연락이 가능하고 설문내용에 솔직하게 응답하여주시신 분들을 선정하였고 그 일반적 특성을 보면 아래<표-1>과 같다.

<표-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거주지	제주시	167	65.2	65.2
	서귀포시	21	8.2	8.2
	남제주군	29	11.3	11.3
	북제주군	39	15.2	15.2
	합계	256	100.0	100.0
성별	남자	205	80.1	80.1
	여자	51	19.9	19.9
	합계	256	100.0	100.0
연령별	20대이하	133	52.0	52.0
	30대	75	29.3	29.3
	40대이상	48	18.8	18.8
	합계	256	100.0	100.0
수입별	120만원미만	127	49.6	54.5
	200만원미만	76	29.7	32.6
	200만원이상	30	11.7	12.9
	시스템 결측값	23	9.0	
	합계	256	100.0	
기량수준	초급자	110	43.0	45.8
	중급자	65	25.4	27.1
	상급자	65	25.4	27.1
	시스템 결측값	16	6.3	
	합계	256	100.0	

2. 연구기간

- 1) 논제선정 및 논문계획서 제출 : 1999년 4월 27일 - 1999년 6월 21일
- 2) 선행연구 및 자료수집 : 1999년 6월 21일 - 1999년 9월 15일
- 3) 설문지 작성 : 1999년 9월 16일 - 1999년 9월 30일
- 4) 설문지 배부 및 회수 : 1999년 10월 1일 - 1999년 10월 31일
- 5) 자료 처리 및 고찰 : 1999년 11월 1일 - 1999년 11월 15일
- 6) 논문 작성 : 1999년 11월 16일 - 2000년 5월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선행연구자 이영태(1993; 1994; 1996), 안두옥(1996), 박진우(1997), 양명환(2000) 등의 윈드서핑 또는 보드세일링에 관한 설문지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연구소(1986), 체육부(1988; 1989) 등의 국민여가활동과 국민생활 체육활동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설문지를 토대로 기초적인 질문지를 고안 구성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 경험이 있거나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체육 또는 레저스포츠 전공 교수를 중심으로 1차 예비검토를 하여 지적된 사항을 질문지 개정에 반영 수정하여 다시 윈드서핑에 관련된 경험자 50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설문대상자로 하여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을 지적하도록 요구한 다음, 제기된 문제를 최종적으로 설문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내용은 <표-2>과 같다.

〈표-2〉 설문지 구성 내용

영역	항목	문항번호	문항수
배경 질문	0. 거주지	1	6
	0. 성별	2	
	0. 연령	3	
	0. 가계수입	4	
	0. 직업	5	
	0. 기량수준	6	
윈드서핑 참여실태	0. 활동경력, 빈도	1, 2, 6	17
	0. 주활동 시기	3, 4, 5	
	0. 윈드서핑 장비	7, 8, 9, 10	
	0. 활동경비	11, 12	
	0. 소속단체, 자격유무	13, 14, 15	
	0. 주 활동지역	16, 17	
참여동기 및 제약요인	0. 참여동기	1	8
	0. 활동만족	2	
	0. 활동목적	3	
	0. 활동제약	4	
	0. 주 활동장 시설	5, 6, 7	
	0. 소속 미가입 이유	8	
윈드서핑의 효과	0. 생활 만족도	1	4
	0. 건강과 체력	2, 3	
	0. 스트레스	4	
윈드서핑 활성화 방안	0. 여가생활로의 의식	1, 2	8
	0. 즐길수준	3	
	0. 윈드서핑 정보	4, 5	
	0. 활성화 개선방안	6	
	0. 정책반영	7, 8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 중에서 기재된 내용이 부족하거나 자료 검색 과정에서 신뢰도가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질문지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유효 표본만을 자료화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대한 자료분석은 SPSSwin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자료의 일반적 경향성과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 인구 사회학적 변인들(거주지, 성, 연령, 직업, 소득, 기량)과 참여실태, 참여동기와 제약, 윈드서핑의 효과,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문항들간의 관련성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할표의 카이제곱(χ^2)검증을 실시하였다.

3) 또한 등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항목들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Scheffé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문지를 통하여 얻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 이용실태

1) 현재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에 대한 결과를 보면 <표-3>과 같다.

<표-3> 현재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현재 주 활동장소	이호	172	67.2	67.2
	함덕	4	1.6	1.6
	하도	2	0.8	0.8
	신양	59	23.0	23.0
	중문	3	1.2	1.2
	화순	9	3.5	3.5
	협재	1	0.4	0.4
	곽지	5	2.0	2.0
	해안도로	1	0.4	0.4
합계		256	100.0	100.0

<표-3>에서 보면 전체응답자의 제주시 이호에서 67.2%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장소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제주군지구의 신양이 23.0%를 차지하고, 남제주군지구 화순 3.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1> 현재 윈드서핑 주 활동 장소

2)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와의 거리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와의 거리를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17>과 같다.

성별에 따른 활동장소와의 거리를 비교하여 보면 특별히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남자는 차로 30분 이상이 39.4%로 가장 많고, 여자는 차로 10-30분 미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남녀 공히 차로 30분 이상과 차로 10-30분 미만이 거리에 있는 활동장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74.0%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에 따라서 활동장소와의 거리를 비교하여 보면 20대의 있어서는 차로 10-30분 사이 거리의 활동장소를 41.2%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30대와 40대에 서는 차로 30분 이상이 각 36.0%, 45.8%로 높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계수입별에 따른 활동장소와의 거리를 비교하여 보면 특별히 유의한 차이를 볼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볼 때 차로 30분 이상과 10분 이상의 거리에 있는 활동장을 72.3%가 이용하고 있다.

기량수준별에 따른 활동장소와의 거리를 비교하여 보면 특별히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차로 30분 이상의 거리에 있는 활동장소를 주로 이용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표-4>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와의 거리

〈성별에 따른 거리〉		거리					전 체
		걸어서 10분 미만	걸어서 10-30분	차로 10분 미만	차로 10-30분	차로 30분 이상	
성 별	남 자	21(10.3%)	12(5.9%)	24(11.8%)	66(32.5%)	80(39.4%)	203(100.0%)
	여 자	3(5.9%)	4(7.8%)	2(3.9%)	23(45.1%)	19(37.3%)	51(100.0%)
전 체		24(9.4%)	16(6.3%)	26(10.2%)	89(35.0%)	99(39.0%)	254(100.0%)
$\chi^2=5.477, df=4, p=.242$							
〈연령에 따른 거리〉		거리					전 체
		걸어서 10분 미만	걸어서 10-30분	차로 10분 미만	차로 10-30분	차로 30분 이상	
연 령	20대 이하	8(6.1%)	4(3.1%)	15(11.5%)	54(41.2%)	50(38.2%)	131(100.0%)
	30대	10(13.3%)	10(13.3%)	4(5.3%)	24(32.0%)	27(36.0%)	75(100.0%)
	40대 이상	6(12.5%)	2(4.2%)	7(14.6%)	11(22.9%)	22(45.8%)	48(100.0%)
전 체		24(9.4%)	16(6.3%)	26(10.2%)	89(35.0%)	99(39.0%)	254(100.0%)
$\chi^2=18.895 df=8, p=.015$							

〈가계수입에 따른 거리〉		거 리					전 체
		걸어서 10분 미만	걸어서 10-30분	차로 10분 미만	차로 10-30분	차로 30분 이상	
가계수입	120만원 미만	13(10.4%)	11(8.8%)	15(12.0%)	40(32.0%)	46(36.8%)	125(100.0%)
	120-200 만원 미만	9(11.8%)	2(2.6%)	7(9.2%)	29(38.2%)	29(38.2%)	76(100.0%)
	200만원 이상	1(3.3%)	2(6.7%)	4(13.3%)	8(26.7%)	15(50.0%)	30(100.0%)
전 체		23(10.0%)	15(6.5%)	26(11.3%)	77(33.3%)	90(39.0%)	231(100.0%)
$\chi^2=6.946, df=8, p=.542$							

〈기량수준에 따른 거리〉		거 리					전 체
		걸어서 10분 미만	걸어서 10-30분	차로 10분 미만	차로 10-30분	차로 30분 이상	
기량수준	초급자	7(6.5%)	4(3.7%)	9(8.3%)	40(37.0%)	48(44.4%)	108(100.0%)
	중급자	10(15.4%)	5(7.7%)	9(13.8%)	18(27.7%)	23(35.4%)	65(100.0%)
	상급자	7(10.8%)	6(9.2%)	7(10.8%)	17(26.2%)	28(43.1%)	65(100.0%)
전 체		24(10.1%)	15(6.3%)	25(10.5%)	75(31.5%)	99(41.6%)	238(100.0%)
$\chi^2=9.439, df=8, p=.307$							

3) 제주도 윈드서핑 활동경험 장소 및 시설 현황

〈표-5〉 제주도 윈드서핑 활동경험 장소 현황

(단위 : 개)

구 분	활동경험장소		활동편의 시설		
	개소	활동장소	훈련장	클럽하우스	계
제 주 시	4	이호	0	1	1
		삼양	0	0	0
		탑동	0	0	0
		해안도로	0	0	0
남제주군	5	신양	1	0	1
		하도	0	0	0
		시흥	0	0	0
		화순	0	1	1
		표선	0	0	0
북제주군	4	함덕	0	0	0
		김녕	0	0	0
		곽지	0	0	0
		협재	0	0	0
서귀포시	2	중문	0	0	0
		서귀포항외부	0	0	0
계	15		1	2	3

생활체육제주도윈드서핑연합회(1999. 11. 4 : 발송 문서번호 99-46)

생활체육제주도윈드서핑연합회에서 제주도 스포츠 산업 기획단과 제주도 생활체육 협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표-5>에서 보면 제주도내 활동경험이 있었던 장소의 수는 총 15개소이다. 이 중에서 활동편의 시설이 있는 곳은 훈련장 1개소와 클럽하우스 2개소이다.

윈드서핑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였던 활동장소로는 이호(67.2%), 신양(23.0%), 화순(3.5%)등의 순서이며 간간이 괄지(2.0%), 합덕(1.6%), 하도(0.8%), 협재(0.4%), 해안도로(0.4%)등지에서도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활동하기 좋은 자연조건이 있거나 활동편의 시설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생활체육제주도윈드서핑연합회(1999)의 문서자료를 볼 때 윈드서핑 활동경험 장소 15개소 중 3개소의 활동편의 시설이 있지만 시설이 너무 빈약하여 장비보관장소로나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4계절 윈드서핑을 할 수 있는 활동장소는 2개소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윈드서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4계절을 막론하고 운동할 수 있는 잘 갖추어진 활동편의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뜻 있는 민간사업가의 출현도 중요하겠지만, 신규시설훈련장 및 공영훈련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2. 윈드서핑의 행동적 참여실태 중앙도서관

윈드서핑의 행동적 참여실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성별,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가?

1) 윈드서핑 활동경력

윈드서핑 활동경력을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6>과 같다.

<표-6> 윈드서핑 활동경력의 차이

〈성별에 따른 활동경력의 차이〉		활동 경력					전 체
		1주일 미만	1주-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1년 이상	
성 별	남 자	68(33.2%)	26(12.7%)	39(19.0%)	35(17.1%)	37(18.0%)	205(100.0%)
	여 자	22(43.1%)	14(27.5%)	12(23.5%)		3(5.9%)	51(100.0%)
전 체		90(35.2%)	40(15.6%)	51(19.9%)	35(13.7%)	40(15.6%)	256(100.0%)
$\chi^2=19.847, df=4, p=.001$							

〈연령에 따른 활동경력의 차이〉		활동경력					전 체
		1주일 미만	1주-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1년 이상	
연령	20대미만	78(58.6%)	24(18.0%)	16(12.0%)	12(9.0%)	3(2.3%)	133(100.0%)
	30대	10(13.3%)	12(16.0%)	25(33.3%)	13(17.3%)	15(20.0%)	75(100.0%)
	40대이상	2(4.2%)	4(8.3%)	10(20.8%)	10(20.8%)	22(45.8%)	48(100.0%)
전 체		90(35.2%)	40(15.6%)	51(19.9%)	35(13.7%)	40(15.6%)	256(100.0%)

$\chi^2=106.040, df=8,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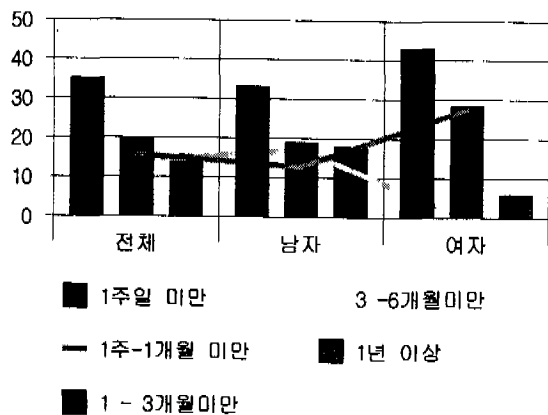
〈가계수입에 따른 활동경력의 차이〉		활동경력					전 체
		1주일 미만	1주-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1년 이상	
가계수입	120만원 미만	56(44.1%)	29(22.8)	21(16.5%)	12(9.4%)	9(7.1%)	127(100.0%)
	120-200만원 미만	11(14.5%)	8(10.5%)	23(30.3%)	17(22.4%)	17(22.4%)	76(100.0%)
	200만원 이상	6(20.0%)	2(6.7%)	5(16.7%)	4(13.3%)	13(43.3%)	30(100.0%)
전 체		73(31.3%)	39(16.7%)	49(21.0%)	33(14.2%)	39(16.7%)	233(100.0%)

$\chi^2=52.493, df=8, p=.000$

〈기량수준에 따른 활동경력의 차이〉		활동경력					전 체
		1주일 미만	1주-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1년 이상	
기량수준	초급자	80(72.7%)	24(21.8%)	5(4.5%)		1(.9%)	110(100.0%)
	중급자	5(7.7%)	11(16.9%)	40(61.5%)	4(6.2%)	5(7.7%)	65(100.0%)
	상급자		2(3.1%)	2(3.1%)	29(44.6%)	32(49.2%)	65(100.0%)
전 체		85(35.4%)	37(15.4%)	47(19.6%)	33(13.8%)	38(15.8%)	24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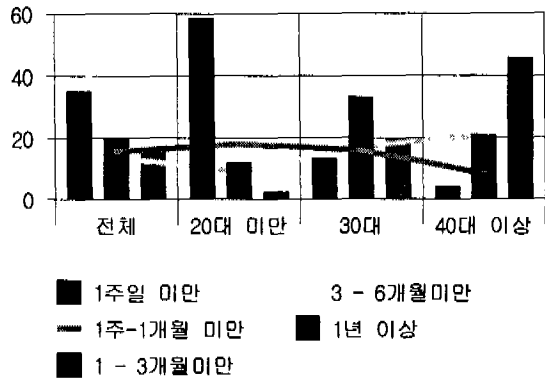
$\chi^2=296.847, df=8, p=.000$

성별에 따른 활동경력을 비교하여 보면 남자는 3개월 이상인 자가 많고 여자는 3개월 미만이며, 1주일 미만도 43%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주일미만이 35.2%, 일주일에서 1개월 미만이 15.6%이고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이 19.9%로 전체적으로 3개월 미만의 경력자는 7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성별에 따른 활동경력의 차이

연령에 따라서 윈드서핑 활동 경력을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일주일미만이 3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0대에서 보면 대부분이 일주일미만이 58.6%로 나타나고 30대에서는 1개월에서 3개월미만이 많고 40대에서는 1년 이상인 자가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3〉 연령에 따른 활동경력의 차이

가계수입별에 따른 활동경력을 비교하여 보면 가계수입이 120미만인 자는 일주일미만이

44.1%, 120에서 200만원미만인 자는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이 30.3%, 200만원이상인 자는 1년 이상 활동경력을 43.3%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3개월 미만 활동경력자가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량수준별에 따른 활동경력을 비교하여 보면 초급자는 1주일미만이 77.7%, 중급자는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이 61.5%로 많고 상급자는 3개월 이상이 93.8%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3개월 미만 경력자가 7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주일미만이 3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초급교육으로 일주일미만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2) 윈드서핑 활동참여빈도

윈드서핑 활동참여빈도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7>과 같다.

〈표-7〉윈드서핑 활동참여의 빈도

〈성별에 따른 활동참여 빈도〉		활동 참여 빈도					전체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한 달에 2-3회	한 달에 1회		1년에 1회 이상
성별	남자	24 (11.8%)	33 (16.2%)	50 (24.5%)	29 (14.2%)	30 (14.7%)	38 (18.6%)	204 (100.0%)
	여자	2 (3.9%)	7 (13.7%)	11 (21.6%)	5 (9.8%)	7 (13.7%)	19 (37.3%)	51 (100.0%)
전체		26 (10.2%)	40 (15.7%)	61 (23.9%)	34 (13.3%)	37 (14.5%)	57 (22.4%)	255 (100.0%)

$\chi^2=9.721, df=5, p=.084$

〈연령에 따른 활동참여 빈도〉		활동참여빈도						전 체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한 달에 2-3회	한 달에 1회	1년에 1회 이상	
연령	20대 미만	8 (6.1%)	23 (17.4%)	41 (31.1%)	13 (9.8%)	20 (15.2%)	27 (20.5%)	132 (100.0%)
	30대	12 (16.0%)	7 (9.3%)	15 (20.0%)	11 (14.7%)	13 (17.3%)	17 (22.7%)	75 (100.0%)
	40대 이상	6 (12.5%)	10 (20.8%)	5 (10.4%)	10 (20.8%)	4 (8.3%)	13 (27.1%)	48 (100.0%)
전 체		26 (10.2%)	40 (15.7%)	61 (23.9%)	34 (13.3%)	37 (14.5%)	57 (22.4%)	255 (100.0%)

$\chi^2=20.626, df=10, p=.024$

〈가계수입에 따른 활동참여 빈도〉		활동참여빈도						전 체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한 달에 2-3회	한 달에 1회	1년에 1회 이상	
가계수입	120만원 미만	15 (11.9%)	17 (13.5%)	34 (27.0%)	10 (7.9%)	20 (15.9%)	30 (23.8%)	126 (100.0%)
	120-200만원 미만	9 (11.8%)	15 (19.7%)	9 (11.8%)	14 (18.4%)	14 (18.4%)	15 (19.7%)	76 (100.0%)
	200만원 이상	2 (6.7%)	4 (13.3%)	9 (30.0%)	7 (23.3%)	2 (6.7%)	6 (20.0%)	30 (100.0%)
전 체		26 (11.2%)	36 (15.5%)	52 (22.4%)	31 (13.4%)	36 (15.5%)	51 (22.0%)	232 (100.0%)

$\chi^2=16.486, df=10, p=.087$

〈기량수준에 따른 활동참여 빈도〉		활동참여빈도						전 체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한 달에 2-3회	한 달에 1회	1년에 1회 이상	
기량수준	초급자	7 (6.4%)	10 (9.2%)	37 (33.9%)	2 (1.8%)	16 (14.7%)	37 (33.9%)	109 (100.0%)
	중급자	8 (12.3%)	11 (16.9%)	10 (15.4%)	14 (21.5%)	8 (12.3%)	14 (21.5%)	65 (100.0%)
	고급자	10 (15.4%)	17 (26.2%)	11 (16.9%)	12 (18.5%)	10 (15.4%)	5 (7.7%)	65 (100.0%)
전 체		25 (10.5%)	38 (15.9%)	58 (24.3%)	28 (11.7%)	34 (14.2%)	56 (23.4%)	239 (100.0%)

$\chi^2=47.945, df=10,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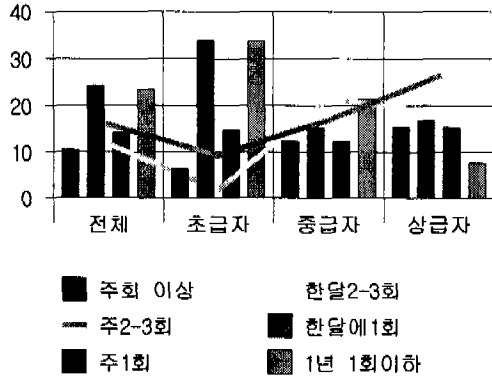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활동참여빈도를 비교하여 보면 특별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주1회 활동하는 자가 23.9%로 많고 1년에 1회 이상으로 적게 활동하는 자가 22.4%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에 따라서 윈드서핑 활동참여빈도를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주1회 참여 활동하는 자가 23.9%로 가장 많고 주 4회 이상 활동하는 자는 10.2%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20대 미만으로 보면 주 1회 활동하는 자가 31.1%로 가장 많고 30대에서는 1년에 1회 이하인 자가 22.7%로 가장 많고 40

대에서 또한 1년에 1회 이하가 27.1%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가계수입별에 따른 활동참여빈도를 비교하여 보면 가계수입에 따른 활동참여 빈도에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주 1회(22.4%) 또는 1년에 1회 이하(22.0%)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기량수준별에 따른 활동참여빈도를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초급자에서는 주 1회 활동자(33.9%)와 1년에 1회 이하(33.9%)가 두드러지게 많고 중급자에서는 한 달에 2-3회(21.5%) 또는 1년에 1회 이하(21.5%)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급자에서는 주2회 또는 3회(26.2%)활동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주 1회(24.3%) 활동자와 1년에 1회 이하(23.4%) 활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4〉 기량수준에 따른 활동참여빈도



3) 윈드서핑 참여계절

윈드서핑 참여계절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8>과 같다.

〈표-8〉 윈드서핑의 참여계절

〈성별에 따른 참여계절〉		참여계절					전 체
		봄	여름	가을	봄-가을	사계절	
성 별	남 자	4(2.0%)	104(51.0%)	1(.5%)	40(19.6%)	55(27.0%)	204(100.0%)
	여 자	2(4.0%)	34(68.0%)	3(6.0%)	5(10.0%)	6(12.0%)	50(100.0%)
전 체		6(2.4%)	138(54.3%)	4(1.6%)	45(17.7%)	61(24.0%)	254(100.0%)

$\chi^2=16.424, df=4, p=.002$

〈연령에 따른 참여계절〉		참여계절					전 체
		봄	여름	가을	봄-가을	사계절	
연령	20대미만	3(2.3%)	89(67.9%)		20(15.3%)	19(14.5%)	131(100.0%)
	30대	1(1.3%)	31(41.3%)	3(4.0%)	20(26.7%)	20(26.7%)	75(100.0%)
	40대이상	2(4.2%)	18(37.5%)	1(2.1%)	5(10.4%)	22(45.8%)	48(100.0%)
전 체		6(2.4%)	138(54.3%)	4(1.6%)	45(17.7%)	61(24.0%)	254(100.0%)

$\chi^2=35.190, df=8, p=.000$

(가계수입에 따른 참여계절)		참여계절					전 체
		봄	여름	가을	봄-가을	사계절	
가계수입	120만원 미만	2(1.6%)	73(58.4%)	1(.8%)	26(20.8%)	23(18.4%)	125 (100.0%)
	120-200만원 미만	3(3.9%)	36(47.4%)	2(2.6%)	13(17.1%)	22(28.9%)	76 (100.0%)
	200만원 이상	1(3.3%)	13(43.3%)	1(3.3%)	2(6.7%)	13(43.3%)	30 (100.0%)
전 체		6(2.6%)	122(52.8%)	4(1.7%)	41(17.7%)	58(25.1%)	2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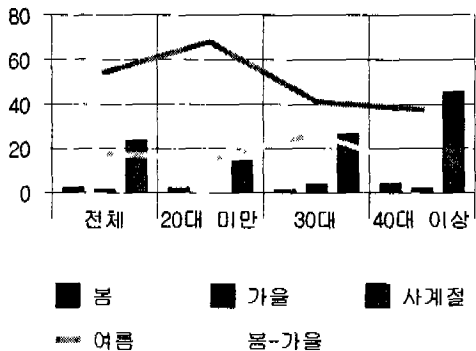
$\chi^2=13.581, df=8, p=.093$

(기량수준에 따른 참여계절)		참여계절					전 체
		봄	여름	가을	봄-가을	사계절	
기량수준	초급자	2(1.9%)	82(75.9%)	2(1.9%)	12(11.1%)	10(9.3%)	2108 (100.0%)
	중급자	1(1.5%)	34(52.3%)	2(3.1%)	18(27.7%)	10(15.4%)	65 (100.0%)
	상급자	2(3.1%)	9(13.8%)		15(23.1%)	39(60.0%)	65 (100.0%)
전 체		5(2.1%)	125(52.5%)	4(1.7%)	45(18.9%)	59(24.8%)	238 (100.0%)

$\chi^2=84.123, df=8, p=.000$

성별에 따른 윈드서핑활동 참여계절을 비교하여 보면 남녀모두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계절 모두 활동하는 사람이 24.3%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자의 경우 여름에 활동하는 사람이 51.1%가장 많고 사계절 활동하는 사람이 27%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에게 있어서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68%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에 따라서 윈드서핑 참여계절을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여름에 활동하는 자가 54.3%로 두드러지게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사계절을 활동하는 사람은 24.0%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볼때 20이하에서는 67.9%로 대부분이 여름에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30대에서는 여름에 41.3%로 봄-가을까지 26.7%, 사계절을 활동하는 사람은 26.7%로 나타나고 있다. 40대에서는 사계절 활동하는 사람이 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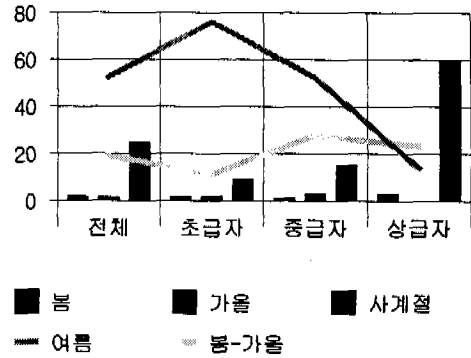


〈그림-5〉 연령에 따른 참여계절

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여름이 37.5%로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계절을 활용하여 윈드서핑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계수입별에 따른 참여계절을 비교하여 보면 가계수입에 따른 참여계절을 보면 특별한 유의도를 볼 수 없으나 120만원 미만에서는 여름활동자가 58.4%, 120-200만원 미만인 자는 47.4%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200이상인 자는 여름에 43.3% 사계절 활동에 43.3%로 같은 비율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수입이 많아질수록 여름활동에 못지 않게 사계절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량수준별에 따른 참여계절을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초급자참여 상황에서는 여름에 75.9%로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고 중급자는 여름에 51.3%, 봄, 가을에 27.7%, 사계절에 15.4%의 순서로 나타나며 상급자에게 있어서는 사계절활동자가 60.0%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봄-가을까지 활동하는 자가 23.1%로 많은 것으로



〈그림-6〉 기량수준에 따른 참여계절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 여름이 활동하는 사람은 주로 초급자가 많은 편이며 상급자로 갈수록 사계절을 이용하여 윈드서핑 활동하는 자가 많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4) 윈드서핑 참여 때(요일)

윈드서핑 참여 때(요일)를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9〉과 같다.

〈표-9〉 윈드서핑의 참여 때(요일)

〈성별에 따른 참여 때〉		참여 때(요일)					전 체
		평 일	토요일	일요일 (휴일)	휴가 (방학)	구분 없이 바람 좋은 날	
성 별	남 자	16(7.8%)	18(8.8%)	81(39.7%)	37(18.1%)	52(25.5%)	204(100.0%)
	여 자	4(7.8%)	4(7.8%)	19(37.3%)	17(33.3%)	7(13.7%)	51(100.0%)
전 체		20(7.8%)	22(8.6%)	100(39.2%)	54(21.2%)	59(23.1%)	255(100.0%)

$\chi^2=6.998, df=4, p=.136$

〈연령에 따른 참여 때〉		참여 때(요일)					전 체
		평 일	토요일	일요일 (휴일)	휴가 (방학)	구분 없이 바람 좋은 날	
연령	20대미만	16(12.1%)	13(9.8%)	50(37.9%)	29(22.0%)	24(18.2%)	132(100.0%)
	30대	3(4.0%)	5(6.7%)	34(45.3%)	17(22.7%)	16(21.3%)	75(100.0%)
	40대이상	1(2.1%)	4(8.3%)	16(33.3%)	8(16.7%)	19(39.6%)	48(100.0%)
전 체		20(7.8%)	22(8.6%)	100(39.2%)	54(21.6%)	59(23.1%)	255(100.0%)
$\chi^2=30.356, df=8, p=.000$							

〈가계수입에 따른 참여 때〉		참여 때(요일)					전 체
		평 일	토요일	일요일 (휴일)	휴가 (방학)	구분 없이 바람 좋은 날	
가계수입	120만원 미만	14(11.1%)	14(11.1%)	47(37.3%)	37(29.4%)	14(11.1%)	126(100.0%)
	120-200만원 미만	3(3.9%)	8(10.5%)	32(42.1%)	11(14.5%)	22(28.9%)	76(100.0%)
	200만원 이상	2(6.7%)		13(43.3%)	2(6.7%)	13(43.3%)	30(100.0%)
전 체		19(8.2%)	22(9.5%)	92(39.7%)	50(21.6%)	49(21.1%)	232(100.0%)
$\chi^2=30.356, df=8,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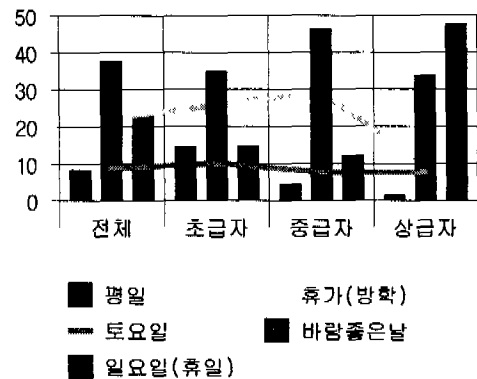
〈기량수준에 따른 참여 때〉		참여 때(요일)					전 체
		평 일	토요일	일요일 (휴일)	휴가 (방학)	구분 없이 바람 좋은 날	
기량수준	초급자	16(14.7%)	11(10.1%)	38(34.9%)	28(25.7%)	16(14.7%)	109(100.0%)
	중급자	3(4.6%)	5(7.7%)	30(46.2%)	19(29.2%)	8(12.3%)	65(100.0%)
	상급자	1(1.5%)	5(7.7%)	22(33.8%)	6(9.2%)	31(47.7%)	65(100.0%)
전 체		20(8.4%)	21(8.8%)	90(37.7%)	53(22.2%)	55(23.0%)	239(100.0%)
$\chi^2=42.723, df=8, p=.000$							

성별에 따른 참여 때(요일)를 비교하여 보면 특별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일요일에 활동하는 자가 39.2%로 가장 많고 요일구분 없이 바람이 좋은 날에 활동하는 사람이 23.1%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휴가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자가 21.2%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 별로 볼 때 특별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에 따라서 참여 때(요일)를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일요일에 참여 활동하는 자는 39.2%로 가장 많고 구분 없이 바람좋은 날에 활동하는 자가 23.1%로 다음을 차지하고 휴가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자가 21.6%로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로 비교해 볼 때 20대 이하에서는 일요일 37.9%, 휴가 또는 방학 22.0% 바람좋은 날 18.2%로 나타나고 있으며 30대에서는 45.3%가 일요일에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휴가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자가 21.7%이고 바람좋은 날에 21.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0대 이상에서는 바람좋은 날에 39.6%로 가장 많고 일요일 또는 휴일이 33.3%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가계수입별에 따른 참여 때(요일) 비교하여 보면 120만원 미만에서는 37.3%로

일요일이 가장 많고 휴가 또는 방학을 이용해서 활동하는 자는 29.4%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120-200만원 미만인 자는 42.1%가 일요일에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바람 좋은 날에 28.9%를 차지하고 있다. 2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갖는 자는 일요일과 바람 좋은 날 모두가 43.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입이 많아질수록 일요일 또는 휴가보다는 바람 좋은 날에 윈드서핑 활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는 39.7%가 일요일과 휴일을 이용하고 있으며 휴가 또는 방학을 이용하는 형태와 바람 좋은 날 활동하는 형태가 각 21.6%, 21.1%로 비슷한 양상으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7〉 기량수준에 따른 참여 때(요일)

기량수준별에 따른 참여 때(요일)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초급자에서는 34.9%로 일요일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휴가 또는 방학이 많으며 중급자에서는 46.2%가 일요일이고 다음으로 29.2%가 휴가 방학을 이용하는데 상급자에 있어서는 구분 없이 바람 좋은 날에 47.7%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33.8%가 일요일 또는 휴일에 활동하고 있다. 이로 보면 상급자로 갈수록 요일에 구분 없이 바람 좋은 날을 택하여 활동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일요일에 37.7%로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윈드서핑 참여시간대

윈드서핑 참여시간대를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10〉과 같다.

〈표-10〉 윈드서핑의 참여시간대

〈성별에 따른 참여 시간〉		참여시간대				전 체
		오전 9-12시	오후 12-5시	오후 5-일몰직전	구분없이 바람좋은시간	
성 별	남 자	24(12.0%)	105(52.5%)	17(8.5%)	54(27.0%)	200(100.0%)
	여 자	10(19.6%)	34(66.7%)	1(2.0%)	6(11.8%)	51(100.0%)
전 체		34(13.5%)	139(55.4%)	18(7.2%)	60(23.9%)	251(100.0%)

$\chi^2 = 9.578, df = 3, p = .023$

〈연령에 따른 참여시간〉		참여시간대				전 체
		오전 9-12시	오후 12-5시	오후 5-일몰직전	구분 없이 바람 좋은 시간	
연 령	20대미만	14(10.8%)	86(66.2%)	10(7.7%)	20(15.4%)	130(100.0%)
	30대	15(20.0%)	29(38.7%)	7(9.3%)	24(32.0%)	75(100.0%)
	40대이상	5(10.9%)	24(52.2%)	1(2.2%)	16(34.8%)	46(100.0%)
전 체		34(13.5%)	139(55.4%)	18(7.2%)	60(23.9%)	251(100.0%)
$\chi^2=20.304, df=6, p=.002$						

〈가계수입에 따른 참여시간〉		참여시간대				전 체
		오전 9-12시	오후 12-5시	오후 5-일몰직전	구분 없이 바람 좋은 시간	
가계수입	120만원 미만	17(13.7%)	71(57.3%)	16(12.9%)	20(16.1%)	124(100.0%)
	120-200만원 미만	14(18.7%)	37(49.3%)	2(2.7%)	22(29.3%)	75(100.0%)
	200만원 이상	1(3.4%)	15(51.7%)		13(44.8%)	29(100.0%)
전 체		32(14.0%)	123(53.9%)	18(7.9%)	55(24.1%)	228(100.0%)
$\chi^2=22.155, df=6, p=.001$						

〈기량수준에 따른 참여시간〉		참여시간대				전 체
		오전 9-12시	오후 12-5시	오후 5-일몰직전	구분 없이 바람 좋은 시간	
기량수준	초급자	12(11.3%)	73(68.9%)	4(3.8%)	17(16.0%)	106(100.0%)
	중급자	15(23.1%)	34(52.3%)	7(10.8%)	9(13.8%)	65(100.0%)
	상급자	6(9.4%)	18(28.1%)	7(10.9%)	33(51.6%)	64(100.0%)
전 체		33(14.0%)	125(53.2%)	18(7.7%)	59(25.1%)	235(100.0%)
$\chi^2=46.202, df=6,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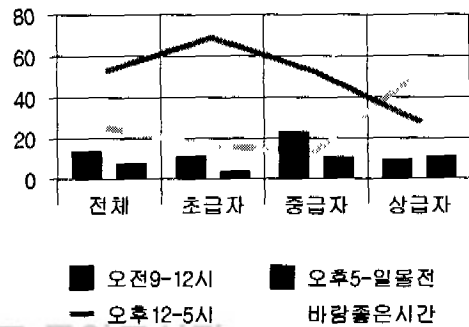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참여시간대를 비교하여 보면 남녀 모두 55.4%로 오후 12시부터 5시 사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23.9%가 바람 좋은 시간을 택하여 윈드서핑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여자는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66.7%로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남자는 52.5%가 오후 12부터 5시까지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바람 좋은 시간을 27.0%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에 따라서 윈드서핑 참여시간대를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오후 12시부터 5시 사이가 55.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바람 좋은 시간에 23.9%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 볼 때 20대 이하에서는 66.2%로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가 가장 많고 30대에서는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가 38.7%, 바람 좋은 시간이 32.0%로 나타나고 있으며 40대에서는 52.2%가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바람 좋은 시간에 23.9%로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20대 이하에서는 12시에서 5시까지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고 30대와 40대에서

는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활동 외에도 바람 좋은 시간을 많이 택하여 활동하고 있다.

가계수입별에 따른 참여시간대를 비교하여 보면 120만원이하의 수입자들은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 활동자가 57.3%이고 120-200만원 미만에서는 49.3%이며 29.3%로 바람 좋은 시간을 택하고 있다. 또한 200만원 이상 수입자들은 51.7%가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간대 구분 없이 바람 좋은 시간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44.8%나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53.9%가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25.1%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수입이 높아질수록 시간에 구분 없이 바람 좋은 때를 택하여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기량수준별에 따른 참여시간대를 비교하여 보면 초급자에 있어서는 68.9%가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급자에서는 52.3%가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주 활동을 하며 상급자에 있어서는 구분 없이 바람 좋은 시간에 51.6%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후 12시에서 5시 사이가



〈그림-8〉 기량수준에 따른 참여시간대

53.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바람 좋은 시간이 25.1%로 차지하고 있다. 위에서 보면 기량수준이 상급자로 갈수록 시간대 구분 없이 바람 좋은 시간을 택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 윈드서핑 일회참여시간

윈드서핑 일회참여시간을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11>과 같다.

〈표-11〉 윈드서핑의 1회 참여시간

〈성별에 따른 일회참여시간〉		일회참여시간					전 체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성 별	남 자	26(13.1%)	47(23.7%)	67(33.8%)	46(23.2%)	12(6.1%)	198(100.0%)
	여 자	10(19.6%)	21(41.2%)	14(27.5%)	5(9.8%)	1(2.0%)	51(100.0%)
전 체		36(14.5%)	68(27.3%)	81(32.5%)	51(20.5%)	13(5.2%)	249(100.0%)

$\chi^2=11.077, df=4, p=.026$

〈연령에 따른 일회참여시간〉		일회참여시간					전 체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연령	20대미만	19(14.5%)	37(28.2%)	48(36.6%)	27(20.6%)		124(100.0%)
	30대	11(15.1%)	23(31.5%)	23(31.5%)	11(15.8%)	5(6.8%)	73(100.0%)
	40대이상	6(13.3%)	8(17.8%)	10(22.2%)	13(28.9%)	8(17.8%)	45(100.0%)
전 체		36(14.5%)	68(27.3%)	81(32.5%)	51(20.5%)	13(5.2%)	249(100.0%)
$\chi^2=27.641, df=8, p=.001$							

〈가계수입에 따른 일회참여시간〉		일회참여시간					전 체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가계수입	120만원미만	21(16.9%)	38(30.6%)	43(34.7%)	20(16.1%)	2(1.6%)	124(100.0%)
	120-200만원	9(12.3%)	16(21.9%)	22(30.1%)	21(28.8%)	5(6.8%)	73(100.0%)
	200만원이상	3(10.3%)	5(17.2%)	10(34.5%)	5(17.2%)	6(20.7%)	29(100.0%)
전 체		33(14.6%)	59(26.1%)	75(33.2%)	46(20.4%)	13(5.8%)	226(100.0%)
$\chi^2=22.584, df=8, p=.004$							

〈기량수준에 따른 일회참여시간〉		일회참여시간					전 체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기량수준	초급자	21(19.6%)	34(31.8%)	41(38.3%)	11(10.3%)		107(100.0%)
	중급자	10(15.4%)	20(30.8%)	17(26.2%)	14(21.5%)	4(6.2%)	65(100.0%)
	상급자	4(6.6%)	7(11.5%)	18(29.5%)	23(37.7%)	9(14.8%)	61(100.0%)
전 체		35(15.0%)	61(26.2%)	76(32.6%)	48(20.6%)	13(5.6%)	233(100.0%)
$\chi^2=42.779, df=8,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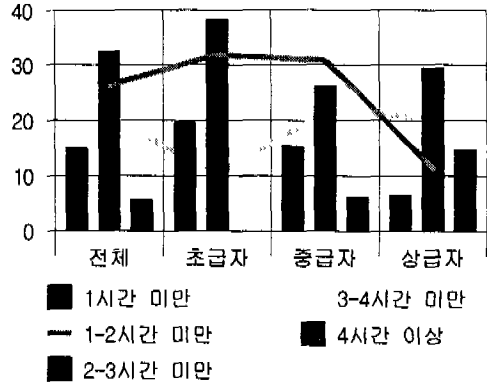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일회참여시간을 비교하여 보면 남자에 있어서는 33.8%로 2-3시간 미만이 가장 많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1-2시간 미만이 41.2%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2-3시간 미만이 32.5%로 가장 많고 1-2시간 미만이 27.3%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남자는 2-3시간 정도의 일회참여시간을 많이 갖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1-2시간 사이가 많이 참여하고 있다.

연령에 따라서 윈드서핑 일회참여시간을 비교하여 보면 20대 이하에서는 2-3시간 사이가 36.6%로 가장 많고 30대에서는 1-2시간 또는 2-3시간 사이가 각 31.5%로 공이 같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다. 40대에서는 3-4시간 사이가 28.9%로 가장 많고 2-3시간 사이는 22.2%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2-3시간 사이가 32.5%, 1-2시간 사이는 27.3%, 3-4시간 사이는 20.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수입별에 따른 일회참여시간을 비교하여 보면 120만원 미만에서는 2-3시간 미만에서가 3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2시간 미만이 30.6%를 차지하고 있고 120-200만원 사이는 2-3시간 30.1%, 3-4시간이 28.8%, 1-2시간이 21.9% 순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0만원 이상에서는 34.5%가 2-3시간에 활동하고 있는

며 4시간이상 활동자로 20.7%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2-3시간 정도의 1회 참여시간을 갖는 사람이 가장 많으며 수입이 많아질수록 1회 참여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

기량수준별에 따른 일회참여시간을 비교하여 보면 초급자에 있어서는 2-3시간이 38.3%, 1-2시간이 31.8% 순이며 중급자는 1-2시간이 30.8%, 2-3시간이 26.2%, 3-4시간이 21.5% 순으로 나타나며 상급자



〈그림-9〉 기량수준에 따른 1회 참여시간

에 있어서는 3-4시간이 37.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3시간이 29.5%, 4시간 이상이 14.8%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기량 수준이 상급자로 갈수록 윈드서핑 1회 참여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윈드서핑 장비준비

윈드서핑 장비준비를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12〉과 같다.

〈표-12〉 윈드서핑의 장비 준비

〈성별에 따른 장비 준비〉		장비 준비					전 체
		유료 임대	공동장비 이용	활동장애 보관	이동 운반	무료 사용	
성 별	남 자	32(15.8%)	76(37.4%)	23(11.3%)	26(12.8%)	46(22.7%)	203(100.0%)
	여 자	7(14.0%)	23(46.0%)	2(4.0%)	2(4.0%)	16(32.0%)	50(100.0%)
전 체		39(15.4%)	99(39.1%)	25(9.9%)	28(11.1%)	62(24.5%)	253(100.0%)
$\chi^2=7.254, df=4, p=.123$							
〈연령에 따른 장비 준비〉		장비 준비					전 체
		유료 임대	공동장비 이용	활동장애 보관	이동 운반	무료 사용	
연 령	20대미만	17(13.1%)	58(44.6%)	5(3.8%)	4(3.1%)	46(35.4%)	130(100.0%)
	30대	14(18.7%)	27(36.0%)	9(12.0%)	12(16.0%)	13(17.3%)	75(100.0%)
	40대이상	8(16.7%)	14(29.2%)	11(22.9%)	12(25.0%)	3(6.3%)	48(100.0%)
전 체		39(15.4%)	99(39.1%)	25(9.9%)	28(11.1%)	62(24.5%)	253(100.0%)
$\chi^2=48.764, df=8,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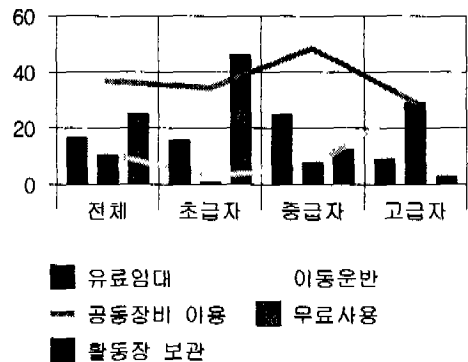
〈가계수입에 따른 장비 준비〉		장비 준비					전 체
		유료 임대	공동장비 이용	활동장에 보관	이동 운반	무료 사용	
가계수입	120만원 미만	17(13.1%)	58(44.6%)	5(3.8%)	4(3.1%)	46(35.4%)	130(100.0%)
	120-200만원 미만	15(19.7%)	27(35.5%)	10(13.2%)	13(17.1%)	11(14.5%)	76(100.0%)
	200만원 이상	1(3.3%)	13(43.3%)	6(20.0%)	8(26.7%)	2(6.7%)	30(100.0%)
전 체		25(15.2%)	91(39.6%)	24(10.4%)	26(11.3%)	54(23.5%)	230(100.0%)
$\chi^2=34.775, df=8, p=.000$							

〈기량수준에 따른 장비 준비〉		장비 준비					전 체
		유료 임대	공동장비 이용	활동장에 보관	이동 운반	무료 사용	
기량수준	초급자	17(15.7%)	37(34.3%)	1(.9%)	3(2.8%)	50(46.3%)	108(100.0%)
	중급자	16(25.0%)	31(48.4%)	5(7.8%)	4(6.3%)	8(12.5%)	64(100.0%)
	상급자	6(9.2%)	19(29.2%)	19(29.2%)	19(29.2%)	2(3.1%)	65(100.0%)
전 체		39(16.5%)	87(36.7%)	25(10.5%)	26(11.0%)	60(25.3%)	237(100.0%)
$\chi^2=103.233, df=8, p=.000$							

성별에 따른 장비준비를 비교하여 보면 특별한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고 남녀 공이 공동장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령에 따라서 윈드서핑 장비준비를 비교하여 보면 20대 미만에서는 공동장비 이용을 44.6%로 무료 강습시 35.4%로 많은 편이며 30대에 있어서는 클럽 공동 장비이용이 36%로 가장 많고 18.7%를 유료 임대하여 사용하는 형태가 많다. 40대 이상에서는 클럽공동장비이용29.2%, 개인장비 이동운반25.0%, 개인장비 활동장에보관22.9%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가 많아질수록 개인장비를 구입하여 장비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계수입별에 따른 장비준비를 비교하여 보면 120만원 미만에서는 공동 장비이용44.6%와 무료사용35.4%로 의 순이며 120-200만원 사이에서는 공동장비이용이 35.5%, 유료임대 19.7%, 개인장비이동17.1%순위며 200만원 이상에서는 공동 장비 이용이 43.3%, 개인장비 이동운반이 26.7%, 또한 개인장비를 활동장에 보관하여 장비를 준비하는 사람도



〈그림-10〉 기량수준에 따른 장비준비

20%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만원 이상에서는 개인장비 준비상황에서 46.7%를 차지하고 있으며 120만원 미만대로 갈수록 개인장비 준비상황에서는 6.9%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입에 따른 장비준비상황에 많은 유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기량수준별에 따른 장비준비를 비교하여 보면 초급자에 있어서는 주로 공동장비와 무료 사용을 하고 있고 중급자에 있어서는 공동장비이용과 유료임대 상황이 많은 편이며 상급자에 있어서는 공동장비 이용과 더불어 개인장비에 이동운반과 활동장에 보관상태로 장비준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8) 윈드서핑 협회에 가입 여부

윈드서핑 협회에 가입여부를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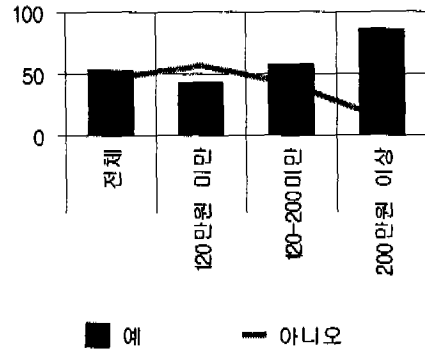
<표-13> 협회가입

〈성별에 따른 협회가입〉		협회가입		전 체
		예	아니오	
성 별	남 자	110(53.9%)	94(46.1%)	204(100.0%)
	여 자	28(54.9%)	23(45.1%)	51(100.0%)
전 체		138(54.1%)	117(45.9%)	255(100.0%)
$\chi^2 = .016, df = 1, p = .900$				
〈연령에 따른 협회가입〉		협회가입		전 체
		예	아니오	
연령	20대 이하	74(55.6%)	59(44.4%)	133(100.0%)
	30대	35(46.7%)	40(53.3%)	75(100.0%)
	40대 이상	29(61.7%)	18(38.3%)	47(100.0%)
전 체		138(54.1%)	117(45.9%)	255(100.0%)
$\chi^2 = 2.890, df = 2, p = .236$				
〈가계수입에 따른 협회가입〉		협회가입		전 체
		예	아니오	
가계수입	120만원 미만	55(43.3%)	72(56.7%)	127(100.0%)
	120-200만원 미만	44(57.9%)	32(42.1%)	76(100.0%)
	200만원 이상	25(86.2%)	4(13.8%)	29(100.0%)
전 체		124(53.4%)	108(46.6%)	232(100.0%)
$\chi^2 = 18.361, df = 2, p = .000$				
〈기량수준에 따른 협회가입〉		협회가입		전 체
		예	아니오	
기량수준	초급자	56(50.9%)	54(49.1%)	110(100.0%)
	중급자	23(35.9%)	41(64.1%)	64(100.0%)
	상급자	45(69.2%)	20(30.8%)	65(100.0%)
전 체		124(51.9%)	115(48.1%)	239(100.0%)
$\chi^2 = 14.396, df = 2, p = .001$				

성별에 따른 협회에 가입여부를 비교하여 보면 특별히 유의한 차이는 없고 협회에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조사자중 54.1%밖에 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 협회에 가입여부를 비교하여 보면 성별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약간 정도 40대 이상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계수입별에 따른 협회에 가입여부를 비교하여 보면 가계수입이 120만원 미만 의자는 56.7%로 가입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 120-200만원 미만이 가입 57.9%, 200만원 이상이 86.2%로 수입에 따라 점차 가입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11〉 가계수입에 따른 협회가입

기량수준별에 따른 협회가입의 정도를 비교하여 보면 기량수준이 고급자는 협회가입이 정도가 69.2%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중급자는 64.1%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편이며 초급자는 가입 유무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3. 윈드서핑 활동경비 실태

1) 윈드서핑 장비가격

윈드서핑 장비가격을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14〉과 같다.

〈표-14〉 윈드서핑의 장비가격

〈성별에 따른 장비가격〉		장비가격					전 체
		100만원 이하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성 별	남 자	10(16.4%)	13(21.3%)	16(26.2%)	12(19.7%)	10(16.4%)	61(100.0%)
	여 자	1(25.0%)		1(25.0%)	1(25.0%)	1(25.0%)	4(100.0%)
전 체		11(16.9%)	13(20.0%)	17(26.2%)	13(20.0%)	11(16.9%)	65(100.0%)

$\chi^2=1.237, df=4, p=.872$

〈연령에 따른 장비가격〉		장비가격					전 체
		100만원 이하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연령	20대이하	5(35.7%)	2(14.3%)	3(21.4%)	2(14.3%)	2(14.3%)	14(100.0%)
	30대	5(19.2%)	7(26.9%)	7(26.9%)	3(11.5%)	4(15.4%)	26(100.0%)
	40대이상	1(4.0%)	4(16.0%)	7(28.0%)	8(32.0%)	5(20.0%)	25(100.0%)
전 체		11(16.9%)	13(20.0%)	17(26.2%)	13(20.0%)	11(16.9%)	65(100.0%)

$\chi^2=9.873, df=8, p=.274$

〈가계수입에 따른 장비가격〉		장비가격					전 체
		100만원 이하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가계수입	120만원 미만	6(31.6%)	3(15.8%)	4(21.1%)	3(15.8%)	3(15.8%)	19(100.0%)
	120-200만원 미만	2(7.4%)	7(25.9%)	7(25.9%)	9(33.3%)	2(7.4%)	27(100.0%)
	200만원 이상	1(6.7%)	2(13.3%)	6(40.0%)	1(6.7%)	5(33.3%)	15(100.0%)
전 체		9(14.8%)	12(19.7%)	17(27.9%)	13(21.3%)	10(16.4%)	61(100.0%)

$\chi^2=15.005, df=8, p=.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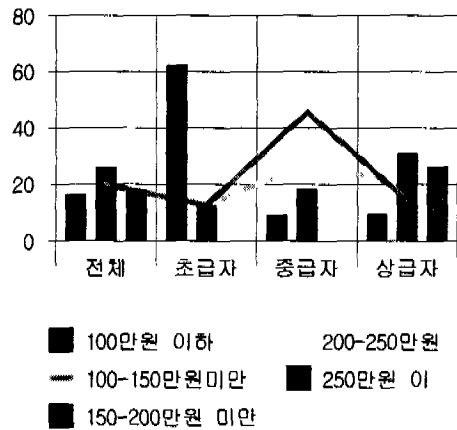
〈기량수준에 따른 장비가격〉		장비가격					전 체
		100만원 이하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기량수준	초급자	5(62.5%)	1(12.5%)	1(12.5%)	1(12.5%)		8(100.0%)
	중급자	1(9.1%)	5(45.5%)	2(18.2%)	3(27.3%)		11(100.0%)
	상급자	4(9.5%)	6(14.3%)	13(31.0%)	8(19.0%)	11(26.2%)	42(100.0%)
전 체		10(16.4%)	12(19.7%)	16(26.2%)	12(19.7%)	11(18.0%)	61(100.0%)

$\chi^2=23.207, df=8, p=.003$

성별에 따른 장비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특별한 유의의 차이가 없다.

연령에 따라서 윈드서핑 장비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20대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의 장비가 35.7%이고 가장 많고 30대에서는 100-200만원 사이가 53.8%로 많은 편이며 40대 이하에서는 150만원 이상인 자가 많은 편이다.

가계수입별에 따른 장비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가계수입이 120만원 미만에서는 장비가격이 100만원 이하가 31.6%가 가장 많고, 가계수입이 120-200만원 사이에서는 200-250만원장비구입이 33.3%로 많이 나타나고



〈그림-12〉 기량수준에 따른 장비가격

있으며 200만원 이상에서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40.4%로 가장 많고 250만원 이상이 33.4%로 나타나고 있다. 큰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량수준별에 따른 장비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초급자에 있어서는 62.5%가 100만원 이하의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중급자에 있어서는 45.5%가 100-150만원 사이 장비를 택하고 있으며 상급자에 있어서는 150-200만원 사이가 31.15%, 250만원 이상 26.2%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기량수준이 상급자로 갈수록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윈드서핑 희망가격

윈드서핑 희망가격을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15>과 같다.

<표-15> 윈드서핑의 희망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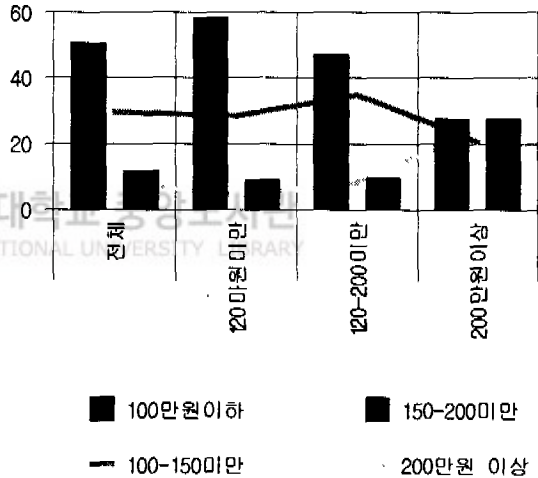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희망가격〉		희망가격				전 체
		100만원 이하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성 별	남 자	95(48.7%)	57(29.2%)	29(14.9%)	14(7.2%)	195(100.0%)
	여 자	28(60.9%)	10(21.7%)	1(2.2%)	7(15.2%)	46(100.0%)
전 체		123(51.0%)	67(27.8%)	30(12.4%)	21(8.7%)	241(100.0%)
$\chi^2=9.409, df=3, p=.024$						
〈연령에 따른 희망가격〉		희망가격				전 체
		100만원 이하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연 령	20대이하	69(57.5%)	26(21.7%)	19(15.8%)	6(5.0%)	120(100.0%)
	30대	33(44.6%)	28(37.8%)	5(6.8%)	8(10.8%)	74(100.0%)
	40대이상	21(44.7%)	13(27.7%)	6(12.8%)	7(14.9%)	47(100.0%)
전 체		123(51.0%)	67(27.8%)	30(12.4%)	21(8.7%)	241(100.0%)
$\chi^2=13.629, df=6, p=.034$						
〈가계수입에 따른 희망가격〉		희망가격				전 체
		100만원 이하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가 계수 입	120만원 미만	70(58.3%)	34(28.3%)	11(9.2%)	5(4.2%)	120(100.0%)
	120-200만원 미만	34(47.2%)	25(34.7%)	7(9.7%)	6(8.3%)	72(100.0%)
	200만원 이상	8(27.6%)	6(20.7%)	8(27.6%)	7(24.1%)	29(100.0%)
전 체		112(50.7%)	65(29.4%)	26(11.8%)	18(8.1%)	221(100.0%)
$\chi^2=24.653, df=6, p=.000$						

〈기량수준에 따른 희망가격〉		희망가격				전 체
		100만원 이하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기량수준	초급자	60(59.4%)	23(22.8%)	16(15.8%)	2(2.0%)	101(100.0%)
	중급자	30(48.4%)	25(40.3%)	3(4.8%)	4(6.5%)	62(100.0%)
	상급자	28(44.4%)	18(28.6%)	10(15.9%)	7(11.1%)	63(100.0%)
전 체		118(52.2%)	66(29.2%)	29(12.8%)	13(5.8%)	226(100.0%)

$\chi^2=15.917, df=6, p=.014$

성별에 따른 희망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남자는 48.7%가 100만원 이하의 장비, 100-150만원 29.2%, 150-200만원 14.9%, 200만원 이상 7.2%순위며 여자는 100만원 이하 60.9%, 150만원 이하 21.7%로의 순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남자보다 여자가 희망장비가격이 낮은 것을 유의하게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 윈드서핑 희망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20대 이하는 57.5%가 가장 많고 30대에서는 100만원 이하 44.6%, 100-150만원 미만 37.8%의 순서이며 40대 이상에서는 100만원 이하 44.7%, 100-150만원 미만 27.7%, 200만원 이상 14.9%, 150-200만원 미만 12.8%순서로 장비가격을 희망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30-40대에서 보면 장비 희망가격이 높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13〉 가계수입에 따른 희망장비가격

가계수입별에 따른 희망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120만원 미만의 가계수입자들은 58.3%가 100만원 이하, 100-150만원 미만 28.3%의 순서이며 120-200만원 미만의 수입자들은 100만원 이하 장비가 47.2%, 100-150만원 미만의 장비를 원하는 사람이 34.7%되는 순서이다. 또한 가계수입이 200만원 이상 수입자들은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이상까지의 가격을 고루고루 20%를 희망하고 있다.

기량수준별에 따른 희망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초급자에 있어서는 59.4%가 100이하를 원하고 있으며 중급자에 있어서는 100만원 이하 48.4%, 100-150미만 40.3%순위며 상급자에 있어서는 100만원 이하 44.4% 100-150미만 28.6%의 순서이며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150만원 미만81.4%가 희망하고 있다.

3) 윈드서핑 월 평균경비

윈드서핑 월 평균경비를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16>과 같다.

<표-16> 윈드서핑의 월 평균경비

〈성별에 따른 월 평균경비〉		월 평균경비					전 체
		1만원 이하	1-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성 별	남 자	54(27.7%)	49(25.1%)	46(23.6%)	31(15.9%)	15(7.7%)	195(100.0%)
	여 자	12(25.0%)	18(37.5%)	10(20.8%)	5(10.4%)	3(6.3%)	48(100.0%)
전 체		66(27.2%)	67(27.6%)	56(23.0%)	36(14.8%)	18(7.4%)	243(100.0%)
$\chi^2=3.257, df=4, p=.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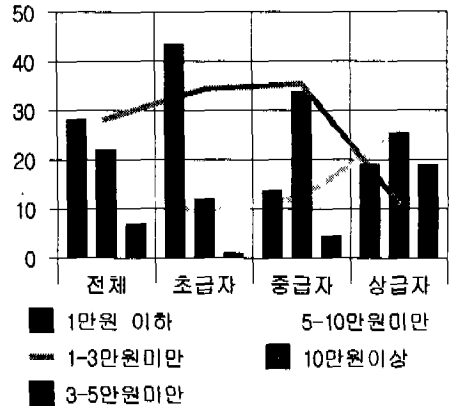
〈연령에 따른 월 평균경비〉		월 평균경비					전 체
		1만원 이하	1-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연 령	20대이하	45(36.6%)	41(33.3%)	22(17.9%)	12(9.8%)	3(2.4%)	123(100.0%)
	30대	16(21.3%)	23(30.7%)	19(33.9%)	11(14.7%)	6(8.0%)	75(100.0%)
	40대이상	5(11.1%)	3(6.7%)	15(33.3%)	13(28.9%)	9(20.0%)	45(100.0%)
전 체		66(27.2%)	67(27.6%)	56(23.0%)	36(14.8%)	18(7.4%)	243(100.0%)
$\chi^2=43.670, df=8, p=.000$							

〈가계수입에 따른 월 평균경비〉		월 평균경비					전 체
		1만원 이하	1-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가 계 수 입	120만원 미만	45(37.2%)	44(36.4%)	19(15.7%)	8(6.6%)	5(4.1%)	121(100.0%)
	120-200만원 미만	10(13.5%)	18(24.3%)	24(32.4%)	18(24.3%)	4(5.4%)	74(100.0%)
	200만원 이상	4(13.8%)	2(6.9%)	9(31.0%)	6(20.7%)	8(27.6%)	29(100.0%)
전 체		59(26.3%)	64(28.6%)	52(23.2%)	32(14.3%)	17(7.6%)	224(100.0%)

〈기량수준에 따른 월 평균경비〉		월 평균경비					전 체
		1만원 이하	1-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기 량 수 준	초급자	43(43.4%)	34(34.3%)	12(12.1%)	9(9.1%)	1(1.0%)	99(100.0%)
	중급자	9(13.8%)	23(35.4%)	22(33.8%)	8(12.3%)	3(4.6%)	65(100.0%)
	상급자	12(19.0%)	7(11.1%)	16(25.4%)	16(25.4%)	12(19.0%)	63(100.0%)
전 체		64(28.2%)	64(28.2%)	50(22.0%)	33(14.5%)	16(7.0%)	227(100.0%)
$\chi^2=58.559, df=8, p=.000$							

성별에 따른 월 평균경비를 비교하여 보면 남녀의 특별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연령에 따라서 윈드서핑 월 평균경비를 비교하여 보면 20대의 있어서는 1만원

이하 36.6%, 1-3만원 미만 33.3%, 3-5만원 미만 17.9%순이며 30대에서는 3-5만원 미만이 33.9%, 1-3만원 미만이 30.7%, 1만원 이하가 21.3%순이며 40대 이상에서는 3-5만원 미만이 33.3%, 5-10만원 미만이 28.9% 10만원 이상이 20.0%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 평균 경비를 높게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계수입별에 따른 월 평균경비를 비교하여 보면 120만원 미만 수입자에 있어서는 1만원 이하가 37.2%, 1-3만원 미만이 36.4%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20-200만원 수입자들은 3-5만원 사이가 32.4%로 가장 많고 200만원 이상 수입자들은 3-5만원 사이가 31.0% 10만원 이상이 27.6% 5-10만원 미만이 20.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수입이 많을수록 월 평균경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5만원 미만이 경비를 사용하는 사람이 78.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량수준별에 따른 월 평균경비를 비교하여 보면 초급자에 있어서는 1만원 이하가 43.4%, 1-3만원 미만이 33.4%수준이며 중급자에 있어서는 1-3만원 미만이 35.4%, 3-5만원 미만이 33.8%순이며 상급자에 있어서는 3-5만원 미만과 5-10만원 미만이 각 25.4%로 나타나고 있다. 기량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월 사용경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윈드서핑 월 평균 희망경비

윈드서핑 월 평균 희망경비를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17〉과 같다.

〈표-17〉 윈드서핑의 월 평균 희망경비

〈성별에 따른 월 평균 희망경비〉		월 평균 희망경비					전 체
		1만원 이하	1-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성 별	남 자	44(22.0%)	61(30.5%)	63(31.5%)	24(12.0%)	8(4.0%)	200(100.0%)
	여 자	15(29.4%)	17(33.3%)	13(25.5%)	6(11.8%)		51(100.0%)
전 체		59(23.5%)	78(31.1%)	76(30.3%)	30(12.0%)	8(3.2%)	251(100.0%)

$\chi^2 = 3.581, df = 4, p = .466$

〈연령에 따른 월 평균 희망경비〉		월 평균 희망경비					전 체
		1만원 이하	1-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연령	20대이하	36(27.5%)	49(37.4%)	36(27.5%)	9(6.9%)	1(.8%)	131(100.0%)
	30대	19(25.3%)	22(29.3%)	20(26.7%)	11(14.7%)	3(4.0%)	75(100.0%)
	40대이상	4(8.9%)	7(15.6%)	20(44.4%)	10(22.2%)	4(8.9%)	45(100.0%)
전 체		59(23.5%)	78(31.1%)	76(30.3%)	30(12.0%)	8(3.2%)	251(100.0%)
$\chi^2=28.396, df=8, p=.000$							

〈가계수입에 따른 월 평균 희망경비〉		월 평균 희망경비					전 체
		1만원 이하	1-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가계수입	120만원미만	38(30.4%)	50(40.0%)	26(20.8%)	9(7.2%)	2(1.6%)	125(100.0%)
	120-200만원	12(16.2%)	21(28.4%)	30(40.5%)	9(12.2%)	2(2.7%)	74(100.0%)
	200만원이상	2(6.9%)	2(6.9%)	14(48.3%)	8(27.6%)	3(10.3%)	29(100.0%)
전 체		52(22.8%)	73(32.0%)	70(30.7%)	26(11.4%)	7(3.1%)	228(100.0%)
$\chi^2=40.085, df=8, p=.000$							

〈기량수준에 따른 월 평균 희망경비〉		월 평균 희망경비					전 체
		1만원 이하	1-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기량수준	초급자	37(34.6%)	36(33.6%)	25(23.4%)	7(6.5%)	2(1.9%)	107(100.0%)
	중급자	13(20.0%)	28(43.1%)	22(33.8%)	2(3.1%)		65(100.0%)
	상급자	8(12.7%)	9(14.3%)	26(41.3%)	16(25.4%)	4(6.3%)	63(100.0%)
전 체		58(24.7%)	73(31.1%)	73(31.1%)	25(10.6%)	6(2.6%)	235(100.0%)
$\chi^2=45.256, df=8,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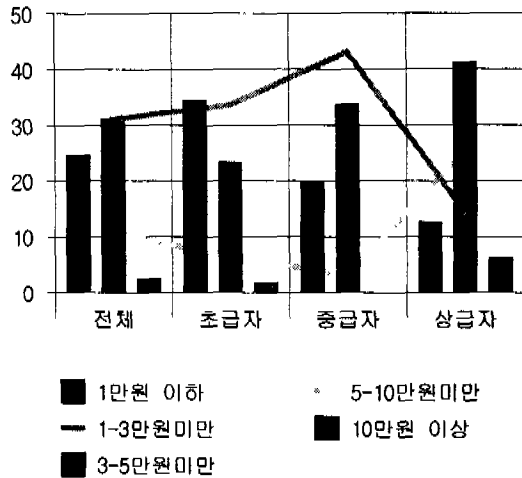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월 평균희망경비를 비교하여 보면 남녀의 특별한 유의한 차이가 없이 전체적으로 84.9%가 공히 5만원 미만의 경비를 희망하고 있다.

연령에 따라서 윈드서핑 월 평균희망경비를 비교하여 보면 20대의 있어서는 1-3만원 미만 37.4%이 제일 많고, 1만원 이하 27.5%, 3-5만원 미만 27.5%이 공히 다음순서이며, 30대에서는 1-3만원 미만이 29.3%, 3-5만원 미만이 26.7%, 1만원 이하가 25.3%순서이며 40대 이상에서는 3-5만원 미만이 44.4%, 5-10만원 미만이 22.2%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 평균 희망경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계수입별에 따른 월 평균희망경비를 비교하여 보면 120만원 미만 수입자에 있어서는 1-3만원 미만이 40.0%, 1만원 이하가 30.4%, 3-5만원 미만이 20.8%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120-200만원 수입자들은 3-5만원 사이가 40.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3만원 미만자가 28.4%를 차지하고 있고, 200만원 이상 수입자들은 3-5만원 사이가 48.3%, 5-10만원 미만이 27.6%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수입이 많을수록 월 평균희망경비 또한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5만원 미만이 경비를 희망하는 사람이 85.5%로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기량수준별에 따른 월 평균 희망경비를 비교하여 보면 초급자에 있어서는 1만원 이하가 34.6%, 1-3만원 미만이 33.6%, 3-5만원 미만이 23.4%순서이며, 중급자에 있어서는 1-3만원 미만이 43.1%, 3-5만원 미만이 33.8%, 1만원 이하가 20.0%순서이고, 상급자에 있어서는 3-5만원 미만이 41.3%, 5-10만원 미만이 25.4%로 많은 편의 경비를 희망하고 있다. 기량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월 평균사용희망경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15〉 기량수준에 따른 월평균 희망경비

4. 윈드서핑 참여동기와 제약요인

윈드서핑의 참여동기와 제약요인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성별,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가?

1) 윈드서핑 참여동기

윈드서핑 참여동기를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18〉과 같다.

〈표-18〉 윈드서핑의 참여동기

〈성별에 따른 참여동기〉		참여동기					전 체
		친구 선배의 권유	흥미와 취미가 있어	대중매체 통해	학교 수업을 통해	무료강습회 통해	
성 별	남 자	58(28.4%)	54(26.5%)	11(5.4%)	57(27.9%)	24(11.8%)	204(100.0%)
	여 자	9(17.6%)	9(17.6%)	3(5.9%)	19(37.3%)	11(21.6%)	51(100.0%)
전 체		67(26.3%)	63(24.7%)	14(5.5%)	76(29.8%)	35(13.7%)	255(100.0%)

$\chi^2=7.154, df=4, p=.128$

〈연령에 따른 참여동기〉		참여동기					전 체
		친구 선배의 권유	흥미와 취미가 있어	대중매체 통해	학교 수업을 통해	무료강습회 통해	
연령	20대 이하	26(19.5%)	19(14.3%)	5(3.8%)	72(54.1%)	11(8.3%)	133(100.0%)
	30대	31(41.3%)	17(22.7%)	6(8.0%)	4(5.3%)	17(22.7%)	75(100.0%)
	40대 이상	10(21.3%)	27(57.4%)	3(6.4%)		7(14.9%)	47(100.0%)
전 체		67(26.3%)	63(24.7%)	14(5.5%)	76(29.8%)	35(13.7%)	255(100.0%)

$$\chi^2=100.022 \text{ df}=8, \text{ p}=.000$$

〈가계수입에 따른 참여동기〉		참여동기					전 체
		친구 선배의 권유	흥미와 취미가 있어	대중매체 통해	학교 수업을 통해	무료강습회 통해	
가계수입	120만원미만	31(24.4%)	18(14.2%)	6(4.7%)	55(43.3%)	17(13.4%)	127(100.0%)
	120-200만원	20(26.3%)	29(38.2%)	4(5.3%)	6(7.9%)	17(22.4%)	76(100.0%)
	200만원이상	11(37.9%)	11(37.9%)	3(10.3%)	4(13.8%)		29(100.0%)
전 체		62(26.7%)	58(25.0%)	13(5.6%)	65(28.0%)	34(14.7%)	232(100.0%)

$$\chi^2=47.284, \text{ df}=8, \text{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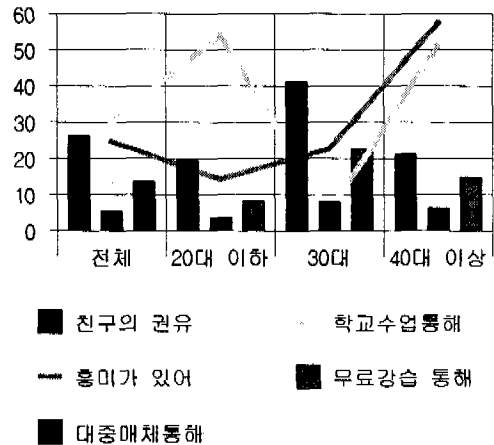
〈기량수준에 따른 참여동기〉		참여동기					전 체
		친구 선배의 권유	흥미와 취미가 있어	대중매체 통해	학교 수업을 통해	무료강습회 통해	
기량수준	초급자	18(16.4%)	8(7.3%)	2(1.8%)	64(58.2%)	18(16.4%)	110(100.0%)
	중급자	25(38.5%)	18(27.7%)	5(7.7%)	6(9.2%)	11(16.9%)	65(100.0%)
	상급자	18(28.1%)	31(48.4%)	6(9.4%)	4(6.3%)	5(7.8%)	64(100.0%)
전 체		61(25.5%)	57(23.8%)	13(5.4%)	74(31.0%)	34(14.2%)	239(100.0%)

$$\chi^2=98.826, \text{ df}=8, \text{ p}=.000$$

원드서핑 참여동기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 학교수업을 통해서 29.8%, 친구 선배의 권유에 의해서 26.3%, 흥미와 취미가 있어서 24.7%, 무료강습회를 통해서가 13.7%, 대중매체를 통해서 5.5%의 순서이다.

성별에 따른 참여동기 질문에서는 여자는 37.3%가 학교수업을 통해서, 21.6%가 무료강습회를 통해서 참여하게 된 동기가 많고 남자는 28.4%가 친구 선배의 권유로 제일 많고, 학교수업을 통해서가 27.9%, 흥미와 취미가 있어서 26.5%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나 특별히 유의한 차이는 없다.

연령에 따른 참여동기의 질문에서는 20대 이하에서는 학교수업을 통해서가



〈그림-16〉 연령에 따른 참여동기

54.1%로 많고, 30대에서는 친구 선배의 권유가 41.3%, 40대 이상에서는 흥미와 취미가 있어서가 57.4%로 참여동기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계수입별로 참여동기를 비교하여 보면 120만원 미만의 응답자중 43.3%가 학교수업을 통해서가 많고, 120-200만원 미만인 응답자에서는 흥미와 취미가 있어서 38.2%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 선배의 권유 26.3%, 무료강습회를 통해서가 22.4%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고, 200만원 이상의 수입자중에서는 흥미와 취미가 있어서와 친구 선배의 권유에 의해서가 공히 37.9%로 높게 나타나 있으며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기량수준에 따른 참여동기를 보면 초급자는 학교수업을 통해서가 58.2%로 가장 많고, 중급자에 있어서는 친구 선배의 권유에 의해서 38.5%, 흥미와 취미가 있어서 27.7%, 무료강습회를 통해서 22.4%의 순서이며 상급자에 있어서는 흥미와 취미가 있어서가 48.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는 응답자중 많은 부분이 학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으로서 20대 이하와 120만원 미만의 수입자, 초급자중 참여동기가 학교수업을 통해서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이가 높아지고, 수입이 높아지며, 기량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참여하게된 동기가 친구 선배의 권유나 자신이 흥미와 취미가 있어서 활동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윈드서핑 활동목적

윈드서핑 활동목적은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19>과 같다.

윈드서핑 활동목적은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 전체 응답자중 34.3%가 건강과 체력증진에 활동목적을 두고 있고, 다음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22.3%, 단조로운 생활탈피가 16.7%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표-19> 윈드서핑의 활동목적

〈성별에 따른 활동목적〉		활동목적						기 타	전체
		건강과 체력 증진	기술 학습	일의 능률 향상	단조로운 생활탈피	스트레스 해소	자극적 경험 통한 만족		
성 별	남 자	81 (39.5%)	16 (7.8%)	16 (7.8%)	30 (14.6%)	41 (20.0%)	8 (3.9%)	13 (6.3%)	205 (100.0%)
	여 자	8 (16.0%)	1 (2.0%)	2 (4.0%)	11 (22.0%)	16 (32.0%)	5 (10.0%)	7 (14.0%)	50 (100.0%)
전 체		89 (34.9%)	17 (6.7%)	18 (7.1%)	41 (16.1%)	57 (22.4%)	13 (5.1%)	20 (7.8%)	255 (100.0%)

$\chi^2=19.106, df=6, p=.004$

〈연령에 따른 활동목적〉		활동목적							전체
		건강과 체력 증진	기술 학습	일의 능률향상	단조로운 생활탈피	스트레스 해소	자극적 경험 통한 만족	기 타	
연령	20대 미만	43 (32.6%)	12 (9.1%)	7 (5.3%)	19 (14.4%)	26 (19.7%)	11 (8.3%)	14 (10.6%)	132 (100.0%)
	30대	24 (32.0%)	4 (5.3%)	8 (10.7%)	14 (18.7%)	20 (26.7%)	1 (1.3%)	4 (5.3%)	75 (100.0%)
	40대 이상	22 (45.8%)	1 (2.1%)	3 (6.3%)	8 (16.7%)	11 (22.9%)	1 (2.1%)	2 (4.2%)	48 (100.0%)
전 체		89 (34.9%)	17 (6.7%)	18 (7.1%)	41 (16.1%)	57 (22.4%)	13 (5.1%)	20 (7.8%)	255 (100.0%)
$\chi^2=16.878, df=12, p=.154$									

〈가계수입에 따른 활동목적〉		활동목적							전체
		건강과 체력 증진	기술 학습	일의 능률향상	단조로운 생활탈피	스트레스 해소	자극적 경험 통한 만족	기 타	
가계 수입	120만원 미만	31 (24.4%)	13 (10.2%)	13 (10.2%)	22 (17.3%)	29 (22.8%)	7 (5.5%)	12 (9.4%)	127 (100.0%)
	120-200만원 미만	32 (42.1%)	2 (2.6%)	3 (3.9%)	15 (19.7%)	17 (22.4%)	3 (3.9%)	4 (5.3%)	76 (100.0%)
	200만원 이상	17 (56.7%)	1 (3.3%)	1 (3.3%)	2 (6.7%)	6 (20.0%)	2 (6.7%)	1 (3.3%)	30 (100.0%)
전 체		80 (34.3%)	16 (6.9%)	17 (7.3%)	39 (16.7%)	52 (22.3%)	12 (5.2%)	17 (7.3%)	233 (100.0%)
$\chi^2=21.889, df=12, p=.039$									

〈기량수준에 따른 활동목적〉		활동목적							전체
		건강과 체력 증진	기술 학습	일의 능률향상	단조로운 생활탈피	스트레스 해소	자극적 경험 통한 만족	기 타	
기량 수준	초급자	27 (24.8%)	11 (10.1%)	7 (6.4%)	19 (17.4%)	25 (22.9%)	10 (9.2%)	10 (9.2%)	109 (100.0%)
	중급자	21 (32.3%)	2 (3.1%)	6 (9.2%)	12 (18.5%)	19 (29.2%)		5 (7.7%)	65 (100.0%)
	상급자	30 (46.2%)	3 (4.6%)	5 (7.7%)	9 (13.8%)	12 (18.5%)	2 (3.1%)	4 (6.2%)	65 (100.0%)
전 체		78 (32.6%)	16 (6.7%)	18 (7.5%)	40 (16.7%)	56 (23.4%)	12 (5.0%)	19 (7.9%)	239 (100.0%)
$\chi^2=19.780, df=12, p=.071$									

남자에 있어서는 39.5%로 건강과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음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20.05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는 스트레스 해소 32.0%로 많고 단조로운 생활 탈피하기 위해서가 22.0%로 활동목적에 잡고 있으며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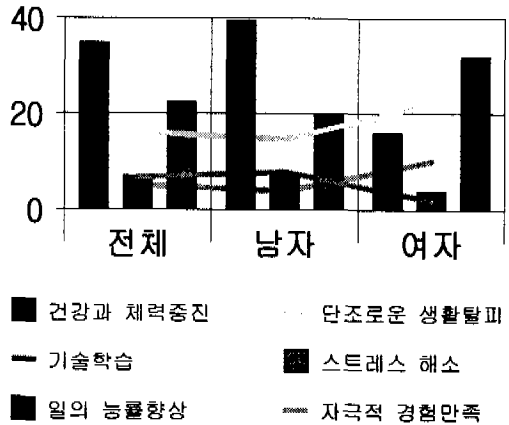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20대에 있어서는 건강과 체력증진 24.4%, 스트레스 해소 22.8%, 단조로운 생활 탈피 17.3%순서로 이들 변인간에 다소 큰 차이는 없는 편이지만, 30대와 40대 이상에 있어서는 각 42.1%와 57.7%로 나이가 들어갈수

록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윈드서핑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수입별로 도 살펴보면 120만원 미만에서는 건강과 체력증진이 24.8%, 스트레스 해소가 22.8% 단조로운 생활탈피가 17.3%의 순서로 큰 차이 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120-200미만에 있어서는 건강과 체력증진에 좀더 비중을 두어 42.1%를 차지하고 스트레스해소에 22.4%, 단조로운 생활 탈피에 19.7%를 차지하는 순서로 나타났

고, 200만원 이상의 수입자에서는 56.7%로 건강과 체력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집단간에 비교를 하여보면 수입이 많아질수록 건강과 체력증진에 더욱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량수준별로 보면은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모두가 건강과 체력증진에 많은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스트레스해소에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7〉 성별에 따른 활동목적

3) 윈드서핑 활동참여의 제약요인

윈드서핑 활동참여의 제약요인을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20>과 같다.

〈표-20〉 윈드서핑의 활동제약

〈성별에 따른 활동제약〉		활동제약						기 타	전 체
		정신적, 시간적 여유 없어서	활동할 장소, 도구, 시설 없어서	같이할 사람이 없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예상되는 만족감이 없어서	즐기는 방법과 기술을 몰라서		
성 별	남 자	80 (42.8%)	18 (9.6%)	14 (7.5%)	25 (13.4%)	16 (8.6%)	20 (10.7%)	14 (7.5%)	187 (100.0%)
	여 자	21 (42.9%)	2 (4.1%)	8 (16.3%)	1 (2.0%)	4 (8.2%)	7 (14.3%)	6 (12.2%)	49 (100.0%)
전 체		101 (42.8%)	20 (8.5%)	22 (9.3%)	26 (11.0%)	20 (8.5%)	27 (11.4%)	20 (8.5%)	236 (100.0%)

$\chi^2=10.667, df=6, p=.099$

〈연령에 따른 활동계약〉		활동계약							전 체
		정신적, 시간적 여유 없어서	활동할 장소, 도구, 시설 없어서	같이할 사람이 없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예상되는 만족감이 없어서	즐기는 방법과 기술을 몰라서	기 타	
연령	20대 이하	40 (32.5%)	15 (12.2%)	13 (10.6%)	14 (11.4%)	9 (7.3%)	19 (15.4%)	13 (10.6%)	123 (100.0%)
	30대	34 (47.9%)	2 (2.8%)	7 (9.9%)	9 (12.7%)	10 (14.1%)	5 (7.0%)	4 (5.6%)	71 (100.0%)
	40대 이상	27 (64.3%)	3 (7.1%)	2 (4.8%)	3 (7.1%)	1 (2.4%)	3 (7.1%)	3 (7.1%)	42 (50.9%)
전 체		101 (42.8%)	20 (8.5%)	22 (9.3%)	26 (11.0%)	20 (8.5%)	27 (11.4%)	20 (8.5%)	236 (100.0%)

$$\chi^2=24.381, df=12, p=.018$$

〈가계수입에 따른 활동계약〉		활동계약							전 체
		정신적, 시간적 여유 없어서	활동할 장소, 도구, 시설 없어서	같이할 사람이 없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예상되는 만족감이 없어서	즐기는 방법과 기술을 몰라서	기 타	
가계 수입	120만원 미만	31 (25.8%)	13 (10.8%)	15 (12.5%)	17 (14.2%)	15 (12.5%)	17 (14.2%)	12 (10.0%)	120 (100.0%)
	120-200만원	36 (52.9%)	4 (5.9%)	6 (8.8%)	7 (10.3%)	4 (5.9%)	6 (8.8%)	5 (7.4%)	68 (100.0%)
	200만원 이상	23 (88.5%)	2 (7.7%)					1 (3.8%)	26 (50.9%)
전 체		90 (42.1%)	19 (8.9%)	21 (9.8%)	24 (11.2%)	19 (8.9%)	23 (10.7%)	18 (8.4%)	214 (100.0%)

$$\chi^2=41.582, df=12, p=.000$$

〈기량수준에 따른 활동계약〉		활동계약							전 체
		정신적, 시간적 여유 없어서	활동할 장소, 도구, 시설 없어서	같이할 사람이 없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예상되는 만족감이 없어서	즐기는 방법과 기술을 몰라서	기 타	
기량 수준	초급자	38 (36.9%)	10 (9.7%)	11 (10.7%)	8 (7.8%)	7 (6.8%)	19 (18.4%)	10 (9.7%)	103 (100.0%)
	중급자	25 (39.1%)	7 (10.9%)	5 (7.8%)	9 (14.1%)	8 (12.5%)	4 (6.3%)	6 (9.4%)	64 (100.0%)
	상급자	28 (50.9%)	3 (5.5%)	6 (10.9%)	8 (14.5%)	5 (9.1%)	3 (5.5%)	2 (3.6%)	55 (50.9%)
전 체		91 (41.0%)	20 (9.0%)	22 (9.9%)	25 (11.3%)	20 (9.0%)	26 (11.7%)	18 (8.1%)	222 (100.0%)

$$\chi^2=16.074, df=12, p=.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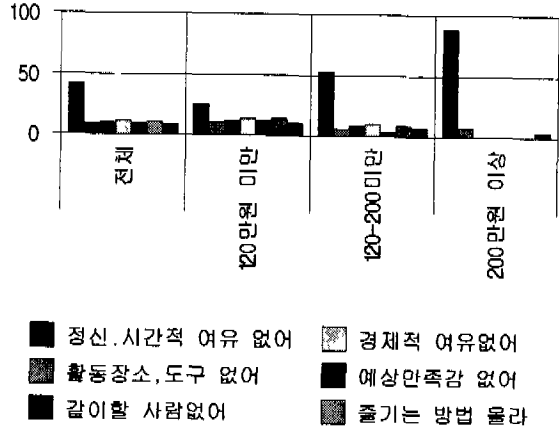
윈드서핑 활동참여의 제약요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 전체 응답자중 약 42.9%정도가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계약을 받고 있다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보아서는 남녀 공히 각 42.8%와 42.9%로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활동에 계약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남녀간의 계약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에서는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제약요인이

32.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30대 47.9%, 40대 64.3%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더욱 높아지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계수입별로도 보면 각 수입대별로 활동제약이유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의 요인을 살펴보면 120만원 미만집단이 25.8%, 120-200만원 미만집단이 52.9%, 200만원 이상집단이 88.5%로 수입이 많아질수록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활동제약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때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18〉 가계수입에 따른 활동제약

기량수준별에서도 가장 많은 활동제약요인은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모두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집단간에 특별히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를 찾는 이유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를 찾는 이유를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21>과 같다.

〈표-21〉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를 찾는 이유

〈성별에 따른 찾는 이유〉		찾는 이유					전 체
		거리가 가까워서	편의시설이 잘돼서	사용료가 적게들어	동호인이 있어서	활동조건이 좋아서	
성 별	남 자	91(46.9%)	15(7.7%)	14(7.2%)	48(24.7%)	26(13.4%)	194 (100.0%)
	여 자	30(61.2%)	7(14.3%)		11(22.4%)	1(2.0%)	49 (100.0%)
전 체		121(49.8%)	22(9.1%)	14(5.8%)	59(24.3%)	27(11.1%)	243 (100.0%)

$\chi^2=11.632, df=4, p=.020$

〈연령에 따른 찾는 이유〉		찾는 이유					전 체
		거리가 가까워서	편의시설이 잘돼서	사용료가 적게들어	동호인이 있어서	활동조건이 좋아서	
연 령	20대 이하	54(44.3%)	8(6.6%)	8(6.6%)	42(34.4%)	10(8.2%)	122 (100.0%)
	30대	48(64.9%)	6(8.1%)	2(2.7%)	10(13.5%)	8(10.8%)	74 (100.0%)
	40대 이상	19(40.4%)	8(17.0%)	4(8.5%)	7(14.9%)	9(19.1%)	47 (100.0%)
전 체		121(49.8%)	22(9.1%)	14(5.8%)	59(24.3%)	27(11.1%)	243 (100.0%)

$\chi^2=25.197, df=8, p=.001$

〈가계수입에 따른 찾는 이유〉		찾는 이유					전 체
		거리가 가까워서	편의시설이 잘돼서	사용료가 적게들어	동호인이 있어서	활동조건이 좋아서	
가계수입	120만원 미만	62(53.0%)	10(8.5%)	8(6.8%)	30(25.6%)	7(6.0%)	117 (100.0%)
	120-200만원 미만	42(56.8%)	5(6.8%)	5(6.8%)	14(18.9%)	8(10.8%)	74 (100.0%)
	200만원 이상	10(33.3%)	6(20.0%)	1(3.3%)	7(23.3%)	6(20.0%)	30 (100.0%)
전 체		114(51.6%)	21(9.5%)	14(6.3%)	51(23.1%)	21(9.5%)	221 (100.0%)

$\chi^2=13.065, df=8, p=.110$

〈기량수준에 따른 찾는 이유〉		찾는 이유					전 체
		거리가 가까워서	편의시설이 잘돼서	사용료가 적게들어	동호인이 있어서	활동조건이 좋아서	
기량수준	초급자	48(48.0%)	3(3.0%)	3(3.0%)	39(39.0%)	7(7.0%)	100 (100.0%)
	중급자	39(60.9%)	7(10.9%)	8(12.5%)	7(10.9%)	3(4.7%)	64 (100.0%)
	상급자	26(40.6%)	9(14.1%)	3(4.7%)	12(18.8%)	14(21.9%)	64 (100.0%)
전 체		113(49.6%)	19(8.3%)	14(6.1%)	58(25.4%)	24(10.5%)	228 (100.0%)

$\chi^2=39.978, df=8, p=.000$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를 찾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 응답자중 약 50.%정도가 거리가 가까워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동호인이 좋아서 24.3%, 활동조건이 좋아서 11.1%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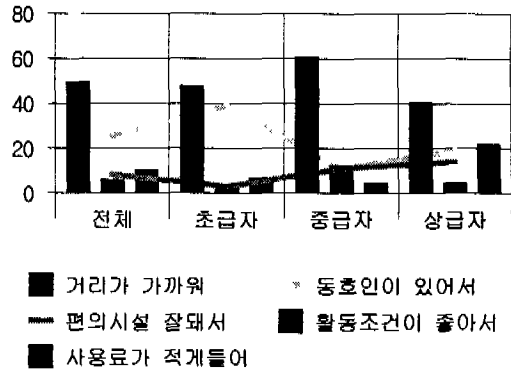
성별로 보아서는 남자 여자 모두 거리가 가까워서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를 찾는 이유가 많으나, 남자는 여자에 비해 활동조건이 좋거나 동호인이 있어서 많이 찾고 있는 반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거리가 가까운 이유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

는 활동장소를 찾는 경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각 연령층별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보면 20대에서는 동호인이 있어서 주 활동장소를 찾는 이유가 많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30대에서는 거리가 가까워서 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40대 이상에서는 타 연령층에 비해 활동 조건이 좋아서 주 활동장소를 찾는 이유로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나고 있다.

가계수입별 면에서 보면 특별히 유의한 차이가 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공히 거리가 가까워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호인이 있어서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각 기량수준별로 비교하여 주 활동장소를 찾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초급자는 타 수준집단에 비해 동호인이 있어서 많이 찾는 경향이 있고, 거리가 가까운 이유와 사용료가 적게 드는 이유가 많은 경향이 있고, 상급자는 활동조건이 좋거나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찾는 경향성을 유의하게 볼 수 있다.



〈그림-19〉 기량수준에 따른 찾는이유

5) 윈드서핑 활동시설 이용 시 애로사항

윈드서핑 활동시설 이용 시 애로사항을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22>과 같다.

〈표-22〉 윈드서핑의 애로사항

〈성별에 따른 애로사항〉	애로사항							전 체	
	활동장소와 의 거리가 멀다	장소가 협소하거나 복잡하다	오염되어 물이 더럽다	사용료가 비싸다	사용가능 시간이 제한적이다	편의시설이 불충분하다	활동지도자가 모자라다		
성 별	남 자	35 (19.7%)	25 (14.0%)	10 (5.6%)	18 (10.1%)	20 (11.2%)	11 (6.2%)	59 (33.1%)	178 (100.0%)
	여 자	11 (22.9%)	8 (16.7%)	2 (4.2%)	3 (6.3%)	4 (8.3%)	7 (14.6%)	13 (27.1%)	48 (100.0%)
전 체	46 (20.4%)	33 (14.6%)	12 (5.3%)	21 (9.3%)	24 (10.6%)	18 (8.0%)	72 (31.9%)	226 (100.0%)	

$\chi^2=5.220, df=6, p=.516$

〈연령에 따른 애로사항〉		애로사항							전 체
		활동장소와 의 거리가 멀다	장소가 협소하거나 복잡하다	오염되어 물이 더럽다	사용료가 비싸다	사용가능 시간이 제한적이다	편의시설이 불충분하다	활동지도자가 모자라다	
연령	20대 미만	18 (15.5%)	18 (15.5%)	7 (6.0%)	13 (11.2%)	17 (14.7%)	10 (8.6%)	33 (28.4%)	116 (100.0%)
	30대	11 (15.9%)	9 (13.0%)	5 (7.2%)	6 (8.7%)	5 (7.2%)	8 (11.6%)	25 (36.2%)	69 (100.0%)
	40대 이상	12 (60.0%)	2 (10.0%)		1 (5.0%)	1 (5.0%)		4 (20.0%)	20 (100.0%)
전 체		41 (20.0%)	29 (14.1%)	12 (5.9%)	20 (9.8%)	23 (11.2%)	18 (8.8%)	62 (30.2%)	205 (100.0%)

$\chi^2=27.288, df=12, p=.007$

〈가계수입에 따른 애로사항〉		애로사항							전 체
		활동장소와 의 거리가 멀다	장소가 협소하거나 복잡하다	오염되어 물이 더럽다	사용료가 비싸다	사용가능 시간이 제한적이다	편의시설이 불충분하다	활동지도자가 모자라다	
가계 수입	120만원 미만	18 (15.5%)	18 (15.5%)	7 (6.0%)	13 (11.2%)	17 (14.7%)	10 (8.6%)	33 (28.4%)	116 (100.0%)
	120-200만원 미만	11 (15.9%)	9 (13.0%)	5 (7.2%)	6 (8.7%)	5 (7.2%)	8 (11.6%)	25 (36.2%)	69 (100.0%)
	200만원 이상	12 (60.0%)	2 (10.0%)		1 (5.0%)	1 (5.0%)		4 (20.0%)	20 (100.0%)
전 체		41 (20.0%)	29 (14.1%)	12 (5.9%)	20 (9.8%)	23 (11.2%)	18 (8.8%)	62 (30.2%)	205 (100.0%)

$\chi^2=27.288, df=12, p=.007$

〈기량수준에 따른 애로사항〉		애로사항							전 체
		활동장소와 의 거리가 멀다	장소가 협소하거나 복잡하다	오염되어 물이 더럽다	사용료가 비싸다	사용가능 시간이 제한적이다	편의시설이 불충분하다	활동지도자가 모자라다	
기량 수준	초급자	21 (21.2%)	16 (16.2%)	4 (4.0%)	5 (5.1%)	12 (12.1%)	12 (12.1%)	29 (29.3%)	99 (100.0%)
	중급자	6 (10.2%)	10 (16.9%)	4 (6.8%)	9 (15.3%)	7 (11.9%)	2 (3.4%)	21 (35.6%)	59 (100.0%)
	고급자	14 (24.6%)	7 (12.3%)	4 (7.0%)	6 (10.5%)	5 (8.8%)	2 (3.5%)	19 (33.3%)	57 (100.0%)
전 체		41 (19.1%)	33 (15.3%)	12 (5.6%)	20 (9.3%)	24 (11.2%)	16 (7.4%)	69 (32.1%)	215 (100.0%)

$\chi^2=15.421, df=12, p=.219$

윈드서핑 활동시설 이용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 응답자중 약 30%정도가 활동 지도자가 모자라다라고 응답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활동장소가 멀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답변한 응답자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아서는 남녀간의 특별히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고, 남녀 공히 활동지도자가 모자란 사항과 활동거리가 멀다는 점이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나

타나고있다.

연령층별로 서로 비교하여 보면은 20대는 장소의 복잡함과 협소함과 사용료가 비싸다는 점, 사용시간이 제한적인 점을 애로사항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 30대에서는 활동지도자가 모자라다라는 애로사항을 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40대 이상에서는 활동장소가 멀다는 이유가 차이 나게 큰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수입별에 따른 애로사항을 보면은 연령별과 유사하게 120만원 미만에서는 장소의 복잡함과 협소함과 사용료가 비싸다는 점, 사용시간이 제한적인 점을 애로사항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 120-200만원 미만에서는 활동지도자가 모자라다라는 애로사항을 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이 200만원 이상대서는 활동장소가 멀다는 이유가 높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6) 윈드서핑 동호인 조직에 미 가입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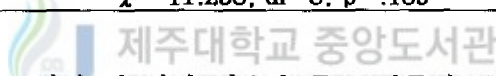
윈드서핑 동호인 조직에 미 가입 이유를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23>과 같다.

<표-23> 윈드서핑의 미 가입 이유

〈성별에 따른 미 가입 이유〉		미 가입 이유					전 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맘에 드는 조직 없어	구속받기 싫어서	조직이 있는 곳 몰라	
성 별	남 자	28(21.1%)	63(47.4%)	14(10.5%)	12(9.0%)	16(12.0%)	133 (100.0%)
	여 자	6(17.6%)	16(47.1%)	1(2.9%)	9(26.5%)	2(5.9%)	34 (100.0%)
전 체		34(20.4%)	79(47.3%)	15(9.0%)	21(12.6%)	18(10.8%)	167 (100.0%)
$\chi^2=9.394, df=4, p=.052$							
〈연령에 따른 미 가입 이유〉		미 가입 이유					전 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맘에 드는 조직 없어	구속받기 싫어서	조직이 있는 곳 몰라	
연 령	20대이하	19(21.6%)	39(44.3%)	9(10.2%)	9(10.2%)	12(13.6%)	88 (100.0%)
	30대	12(23.5%)	23(45.1%)	4(7.8%)	9(17.6%)	3(5.9%)	51 (100.0%)
	40대이상	3(10.7%)	17(60.7%)	2(7.1%)	3(10.7%)	3(10.7%)	28 (100.0%)
전 체		34(20.4%)	79(47.3%)	15(9.0%)	21(12.6%)	18(10.8%)	167 (100.0%)
$\chi^2=6.518, df=8, p=.589$							

〈가계수입에 따른 미 가입 이유〉		미 가입 이유					전 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맘에 드는 조직 없어	구속받기 싫어서	조직이 있는 곳 몰라	
가계수입	120만원 미만	24(26.4%)	46(50.5%)	6(6.6%)	8(8.8%)	7(7.7%)	91 (100.0%)
	120-200만원 미만	9(18.4%)	21(42.9%)	6(12.2%)	6(12.2%)	7(14.3%)	49 (100.0%)
	200만원 이상		8(61.5%)	1(7.7%)	4(30.8%)		13 (100.0%)
전 체		33(21.6%)	75(49.0%)	13(8.5%)	18(11.8%)	14(9.2%)	153 (100.0%)
$\chi^2=13.555, df=8, p=.094$							

〈기량수준에 따른 미 가입 이유〉		미 가입 이유					전 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맘에 드는 조직 없어	구속받기 싫어서	조직이 있는 곳 몰라	
기량수준	초급자	15(19.5%)	37(48.1%)	5(6.5%)	6(7.8%)	14(18.2%)	77 (100.0%)
	중급자	10(20.4%)	25(51.0%)	7(14.3%)	6(12.2%)	1(2.0%)	49 (100.0%)
	상급자	7(22.6%)	16(51.6%)	2(6.5%)	4(12.9%)	2(6.5%)	31 (100.0%)
전 체		32(20.4%)	78(49.7%)	14(8.9%)	16(10.2%)	17(10.8%)	157 (100.0%)
$\chi^2=11.238, df=8, p=.189$							



윈드서핑 동호인 조직에 미 가입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 응답자중 약 48%정도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아서는 남녀간의 특별히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으나 여자 집단에서는 구속받기 싫어서 미가입하고 있다는 응답이 남자에 비해 많고 남자인 경우는 동호인 조직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맘에 드는 조직이 없어서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가 여자보다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나 가계수입별 또는 기량수준별로 미 가입 이유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특별한 유의한 차이는 없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많이 들고 있다.

5. 윈드서핑의 운동효과

윈드서핑운동의 효과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성별,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가?

1) 윈드서핑 활동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효과

윈드서핑활동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의 효과를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24>과 같다.

<표-24> 윈드서핑의 운동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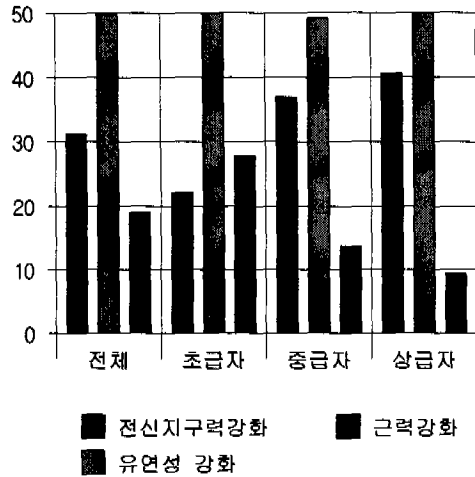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운동효과〉		운동효과			전 체
		전신 지구력 강화	유연성 강화	근력 강화	
성 별	남 자	71(35.3%)	100(49.8%)	30(14.9%)	201(100.0%)
	여 자	12(23.5%)	24(47.1%)	15(29.4%)	51(100.0%)
전 체		83(32.9%)	124(49.2%)	45(17.9%)	252(100.0%)
$\chi^2=6.558, df=2, p=.038$					
〈연령에 따른 운동효과〉		운동효과			전 체
		전신 지구력 강화	유연성 강화	근력 강화	
연 령	20대이하	31(23.8%)	67(51.5%)	32(24.6%)	130(100.0%)
	30대	31(41.9%)	33(44.6%)	10(13.5%)	74(100.0%)
	40대이상	21(43.8%)	24(50.0%)	3(6.3%)	48(100.0%)
전 체		83(32.9%)	124(49.2%)	45(17.9%)	252(100.0%)
$\chi^2=14.966, df=4, p=.005$					
〈가계수입에 따른 운동효과〉		운동효과			전 체
		전신 지구력 강화	유연성 강화	근력 강화	
가 계수 입	120만원 미만	32(25.8%)	63(50.8%)	29(23.4%)	124(100.0%)
	120-200만원 미만	24(32.0%)	43(57.3%)	8(10.7%)	75(100.0%)
	200만원 이상	21(70.0%)	7(23.3%)	2(6.7%)	30(100.0%)
전 체		77(33.6%)	113(49.3%)	39(17.0%)	229(100.0%)
$\chi^2=25.873, df=4, p=.000$					
〈기량수준에 따른 운동효과〉		운동효과			전 체
		전신 지구력 강화	유연성 강화	근력 강화	
기 량수 준	초급자	24(22.2%)	54(50.0%)	30(27.8%)	108(100.0%)
	중급자	24(36.9%)	32(49.2%)	9(13.8%)	65(100.0%)
	상급자	26(40.6%)	32(50.0%)	6(9.4%)	64(100.0%)
전 체		74(31.2%)	118(49.8%)	45(19.0%)	237(100.0%)
$\chi^2=13.711, df=4, p=.008$					

윈드서핑활동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 응답자중 약 49%가 유연성 강화에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다음으로 전신지구력 강화가 약 33%, 근력강화가 약 18%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의 경우 여성들보다 전신지구력 강화에 효과를 주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여성은 근력강화 면에서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효과로 보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은 20대 이하는 근력강화 면에서 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인식 되고 있고, 30대와 40대 이상에서는 20대 이하에 비교하여 전신지구력 강화에 효과를 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계수입별로 보면은 120만원 미만의 수입자에서는 근력강화 효과가 많고, 120-200만원 미만에서는 유연성 강화 효과가 많고, 40대 이상에서는 전신지구력 강화 효과를 응답한자가 타 연령층에 비교하여보면 많은 유의한 차이를 갖고 있다.



〈그림-20〉 기량수준에 따른 운동효과

기량수준별로 보면 근력강화 측면에서는 초급자가 많고, 상급자로 갈수록 전신지구력 강화측면이 많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 윈드서핑활동이 미치는 생활만족도

윈드서핑 활동을 시작한 후 변화된 생활의 만족도를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25〉와 같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의 구체적인 평균치의 차이를 Scheffé의 방식에 의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윈드서핑 활동 후에 생활만족도를 비교하여 보면 성별로 볼 때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는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연령별로 볼 때는 30대가 가장 높게 생활만족도를 갖고있으며, 가계수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가계수입이 200만원이상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20만원미만 집단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수입이 높을수록 윈드서핑 활동 후에 생활만족도를 높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량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기량수준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25〉 각 변인들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차이 검증

종속변인	성별		DF	F	p
	남자	여자			
생활만족도	2.00±.76	2.31±.71	1, 250	7.100	.008
건강체력혜택	3.46±1.51	2.96±1.55	1, 229	4.145	.043
스트레스 해소	1.91±.75	1.98±.76	1, 243	.290	.591

종속변인	연령			DF	F	p
	20대	30대	40대 이상			
생활만족도	2.21±.73 _a	1.88±.79 _b	1.96±.71 _a	2, 249	5.160	.006
건강체력혜택	3.27±1.49	3.47±1.53	3.48±1.64	2, 228	.535	.586
스트레스해소	2.02±.67 _a	1.94±.89 _a	1.63±.68 _b	2, 242	4.769	.009

종속변인	수입			DF	F	p
	120만원미만	120-200미만	200만원이상			
생활만족도	2.15±.77 _a	1.95±.71 _{ab}	1.83±.79 _b	2, 226	3.060	.049
건강체력혜택	3.28±1.39	3.41±1.64	3.41±1.74	2, 207	.193	.825
스트레스해소	2.13±.76 _a	1.77±.74 _b	1.41±.57 _c	2, 221	13.653	.000

종속변인	기량수준			DF	F	p
	하	중	상			
생활만족도	2.35±.73 _a	2.01±.74 _b	1.75±.64 _c	2, 234	15.07	.000
건강체력혜택	3.07±1.49	3.49±1.45	3.56±1.54	2, 213	2.46	.088
스트레스해소	2.11±.63 _a	1.92±.82 _{ab}	1.71±.83 _b	2, 229	5.78	.004

3) 윈드서핑활동이 미치는 건강과 체력만족도

윈드서핑 활동을 시작한 후 변화된 건강과 체력의 만족도를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25〉와 같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의 구체적인 평균치의 차이를 Scheffé의 방식에 의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윈드서핑 활동을 시작한 후에 건강·체력혜택에 대한 평가에서 비교하여 보면 성별로 볼 때는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연령별로나, 가계수입별, 기량수준별에서 볼 때는 특별히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대체적으로 볼 때 건강·체력혜택에 대한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바와 같이 '그렇다'는 답변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는 윈드서핑운동이 건강·체력혜택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운동임을 감안 해볼 수 있다고 본다.

4) 윈드서핑활동이 미치는 스트레스 해소만족도

윈드서핑 활동이 정신적 스트레스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족도를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25>와 같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의 구체적인 평균치의 차이를 Scheffé의 방식에 의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윈드서핑 활동이 정신적 스트레스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족도를 비교하여 보면 성별로 볼 때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볼 수가 없었고, 연령별로 볼 때는 4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량수입별로 살펴보면 기량수입이 200만원이상인 집단에서는 윈드서핑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20만원미만 집단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수입이 높을수록 윈드서핑 활동이 정신적 스트레스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족도를 높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량수준별로 살펴보면 높은 상급자로 갈수록 초급자보다 윈드서핑이 주는 효과로 스트레스의 해소의 효과를 높게 표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윈드서핑이 관광레저스포츠로의 활성화 방안

윈드서핑의 행동적 참여실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성별,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가?

1) 윈드서핑 활동을 즐길 수준 시기의식

윈드서핑활동을 즐길 수준 시기인지를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26>과 같다.

<표-26> 윈드서핑의 즐길 수준

〈성별에 따른 즐길 수준〉		즐길 수준				전 체
		아직 이른 편이다	알맞다	늦은 편이다	모르겠다	
성 별	남 자	61(30.5%)	66(33.0%)	60(30.0%)	13(6.5%)	200(100.0%)
	여 자	18(36.0%)	20(40.0%)	10(20.0%)	2(4.0%)	50(100.0%)
전 체		79(31.6%)	86(34.4%)	70(28.0%)	15(6.0%)	250(100.0%)

$\chi^2 = 2.798, df = 3, p = .424$

〈연령에 따른 즐길 수준〉		즐길 수준				전 체
		아직 이른 편이다	알맞다	늦은 편이다	모르겠다	
연령	20대미만	37(28.7%)	42(32.6%)	38(29.5%)	12(9.3%)	129(100.0%)
	30대	30(40.5%)	26(35.1%)	17(23.0%)	1(1.4%)	74(100.0%)
	40대이상	12(25.5%)	18(38.3%)	15(31.9%)	2(4.3%)	47(100.0%)
전 체		79(31.6%)	86(34.4%)	70(28.0%)	15(6.0%)	250(100.0%)

$\chi^2=9.385, df=6, p=.153$

〈가계수입에 따른 즐길 수준〉		즐길 수준				전 체
		아직 이른 편이다	알맞다	늦은 편이다	모르겠다	
가계수입	120만원 미만	43(34.7%)	39(31.5%)	30(24.2%)	12(9.7%)	124(100.0%)
	120-200 만원 미만	20(26.3%)	32(42.1%)	23(30.3%)	1(1.3%)	76(100.0%)
	200만원 이상	10(34.5%)	9(31.0%)	9(31.0%)	1(3.4%)	29(100.0%)
전 체		73(31.9%)	80(34.9%)	62(27.1%)	14(6.1%)	229(100.0%)

$\chi^2=9.388, df=6, p=.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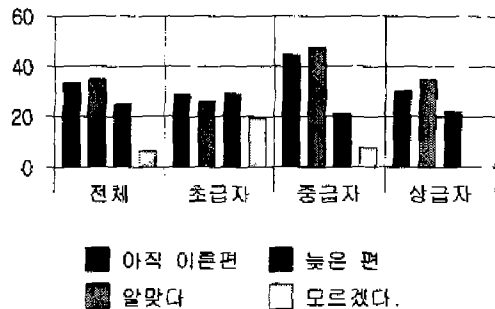
〈기량수준에 따른 즐길 수준〉		즐길 수준				전 체
		아직 이른 편이다	알맞다	늦은 편이다	모르겠다	
기량수준	초급자	31(29.0%)	35(32.7%)	31(29.0%)	10(19.3%)	107(100.0%)
	중급자	29(44.6%)	17(26.2%)	14(21.5%)	5(7.7%)	65(100.0%)
	상급자	19(30.2%)	30(47.6%)	14(22.2%)		63(100.0%)
전 체		79(33.6%)	82(34.9%)	59(25.1%)	15(6.4%)	235(100.0%)

$\chi^2=14.585, df=6, p=.024$

원드서핑활동을 즐길 수준 시기 인지를 전체적으로 볼 때 알맞다가 35%, 아직 이른 편이다 33%, 늦은 편이다 27%, 모르겠다 15% 순서로 응답되었다.

성별이나 연령이나 가계수입별로는 어떤 변인들 공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량수준별에서 원드서핑을 즐길 수준 시기인지 상황을 보



〈그림-21〉기량수준에 따른 즐길 수준 의식

면은 낮은 편이라고 답변한 자중에는 초급자가 많은 편이고, 중급자는 아직 이르다라는 항목에서 많으며, 알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는 상급자에서 많이 나타나 는 유의한 차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2) 윈드서핑에 대한 정보출처

윈드서핑에 대한 정보의 출처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 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27>과 같다.

<표-27> 윈드서핑의 정보출처

〈성별에 따른 정보출처〉		정보출처					전 체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문서적, 팜플렛 등	레저관련 업체	동호인 단체	인터넷	
성 별	남 자	29(15.0%)	17(8.8%)	40(20.7%)	81(42.0%)	26(13.5%)	193 (100.0%)
	여 자	10(20.0%)	2(4.0%)	5(10.0%)	25(50.0%)	8(16.0%)	50 (100.0%)
전 체		39(16.0%)	19(7.8%)	45(18.5%)	106(43.6%)	34(14.0%)	243 (100.0%)
$\chi^2=5.022, df=4, p=.285$							
〈연령에 따른 정보출처〉		정보출처					전 체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문서적, 팜플렛 등	레저관련 업체	동호인 단체	인터넷	
연 령	20대미만	21(16.5%)	9(7.1%)	33(26.0%)	36(28.3%)	28(22.0%)	127 (100.0%)
	30대	13(18.3%)	7(9.9%)	6(8.5%)	41(57.7%)	4(5.6%)	71 (100.0%)
	40대이상	5(11.1%)	3(6.7%)	6(13.3%)	29(64.4%)	2(4.4%)	45 (100.0%)
전 체		39(16.0%)	19(7.8%)	45(18.5%)	106(43.6%)	34(14.0%)	243 (100.0%)
$\chi^2=36.712, df=8, p=.000$							
〈가계수입에 따른 정보출처〉		정보출처					전 체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문서적, 팜플렛 등	레저관련 업체	동호인 단체	인터넷	
가 계수 입	120만원 미만	20(16.3%)	11(8.9%)	29(23.6%)	42(34.1%)	21(17.1%)	123 (100.0%)
	120-200만원 미만	8(11.3%)	3(4.2%)	7(9.9%)	44(62.0%)	9(12.7%)	71 (100.0%)
	200만원 이상	7(24.1%)	4(13.8%)	1(3.4%)	15(51.7%)	2(6.9%)	29 (100.0%)
전 체		35(15.7%)	18(8.1%)	37(16.6%)	101(45.3%)	32(14.3%)	223 (100.0%)
$\chi^2=23.295, df=8, p=.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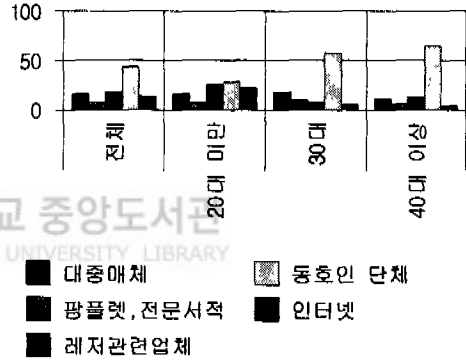
〈기량수준에 따른 정보출처〉		정보출처					전 체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문서적, 팜플렛 등	레저관련 업체	동호인 단체	인터넷	
기량수준	초급자	21(20.4%)	7(6.8%)	26(25.2%)	27(26.2%)	22(21.4%)	103(100.0%)
	중급자	9(14.5%)	3(4.8%)	10(16.1%)	35(56.5%)	5(8.1%)	62(100.0%)
	상급자	9(14.3%)	9(14.3%)	6(9.5%)	33(52.4%)	6(9.5%)	63(100.0%)
전 체		39(17.1%)	19(8.3%)	42(18.4%)	95(41.7%)	33(14.5%)	228(100.0%)

$\chi^2=27.641, df=8, p=.001$

윈드서핑에 대한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동호인 단체를 통해서가 43.6%, 레저관련업체 18.5%, 대중매체를 통해서 16.0%, 인터넷 14.0%, 전문서적 및 팜플렛 등에서 7.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보면 특별히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고 연령별로 볼 때는 인터넷과 레저관련업체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있는 집단은 20대가 많고, 대중매체나 전문서적 또는 팜플렛 등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집단은 30대가 많으며, 40대는 동호인 단체에서 많이 얻고 있으며 연령층별로 비교하여 볼 때 이들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계수입에 따른 비교를 하여보면 인터넷과 레저관련업체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있는 집단은 120만원 미만의 수입자가 많고, 대중매체나 전문서적 또는 팜플렛 등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집단은 200만원 이상 수입자가 많으며, 120-200만원 미만 수입자는 동호인 단체에서 많이 얻고 있는 거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22〉 연령에 따른 정보출처

또한 기량수준별로 보면 초급자는 인터넷과 레저관련업체,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많이 얻고 있고, 중급자는 동호인단체를 통하여 얻고 있는 자가 많으며, 상급자는 전문서적이거나 팜플렛 등을 통하여 얻는 경향이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윈드서핑 활성화의 개선방안

윈드서핑 활성화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28〉과 같다.

〈표-28〉 윈드서핑의 개선방안

〈성별에 따른 개선방안〉		개선방안					전 체
		장비가격이 인하	활동비 인하	편의시설 개선, 확충	활동지도자 의 확충	홍보활동 강화	
성 별	남 자	74(37.6%)	36(18.3%)	45(22.8%)	15(7.6%)	27(13.7%)	197(100.0%)
	여 자	13(26.0%)	12(24.0%)	9(18.0%)	8(16.0%)	8(16.0%)	50(100.0%)
전 체		87(35.2%)	48(19.4%)	54(21.9%)	23(9.3%)	35(14.2%)	247(100.0%)

$\chi^2=5.774, df=4, p=.217$

〈연령에 따른 개선방안〉		개선방안					전 체
		장비가격이 인하	활동비 인하	편의시설 개선, 확충	활동지도자 의 확충	홍보활동 강화	
연 령	20대미만	42(33.1%)	21(16.5%)	34(26.8%)	10(7.9%)	20(15.7%)	127(100.0%)
	30대 미만	23(31.5%)	19(26.0%)	13(17.8%)	10(13.7%)	8(11.0%)	73(100.0%)
	40대이상	22(46.8%)	8(17.0%)	7(14.9%)	3(6.4%)	7(14.9%)	47(100.0%)
전 체		87(35.2%)	48(19.4%)	54(21.9%)	23(9.3%)	35(14.2%)	247(100.0%)

$\chi^2=10.555, df=8, p=.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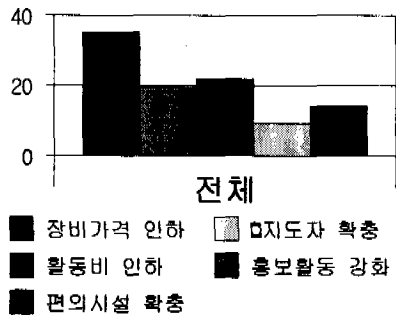
〈가계수준에 따른 개선방안〉		개선방안					전 체
		장비가격이 인하	활동비 인하	편의시설 개선, 확충	활동지도자 의 확충	홍보활동 강화	
가계수입	120만원미만	43(35.2%)	28(23.0%)	30(24.6%)	9(7.4%)	12(9.8%)	122(100.0%)
	120-200만원	23(30.7%)	16(21.3%)	14(18.7%)	8(10.7%)	14(18.7%)	75(100.0%)
	200만원이상	14(48.3%)	3(10.3%)	6(20.7%)	2(6.9%)	4(13.8%)	29(100.0%)
전 체		80(35.4%)	47(20.8%)	50(22.1%)	19(8.4%)	30(13.3%)	226(100.0%)

$\chi^2=7.831, df=8, p=.450$

〈기량수준에 따른 개선방안〉		개선방안					전 체
		장비가격이 인하	활동비 인하	편의시설 개선, 확충	활동지도자 의 확충	홍보활동 강화	
기량수준	초급자	31(29.2%)	19(17.9%)	27(25.5%)	13(12.3%)	16(15.1%)	106(100.0%)
	중급자	16(24.6%)	18(27.7%)	14(21.5%)	8(12.3%)	9(13.8%)	65(100.0%)
	상급자	28(45.9%)	11(18.0%)	13(21.3%)	2(3.3%)	7(11.5%)	61(100.0%)
전체		75(32.3%)	48(20.7%)	54(23.4%)	23(9.9%)	32(13.8%)	232(100.0%)

$\chi^2=11.573, df=8, p=.171$

윈드서핑에 활성화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장비가격이 인하를 35.2%,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이 21.9%, 활동비 인하가 19.4%, 홍보활동 강화가 14.2%, 활동지도자의 확충이 9.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성별이든 연령별이든 수입별이든 기량수준별이든 모든 변인들간에 특별한 유의한 차이



〈그림-23〉 활성화의 개선방안

는 없으며 대체적으로 장비가격과 활동비의 인하와 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많이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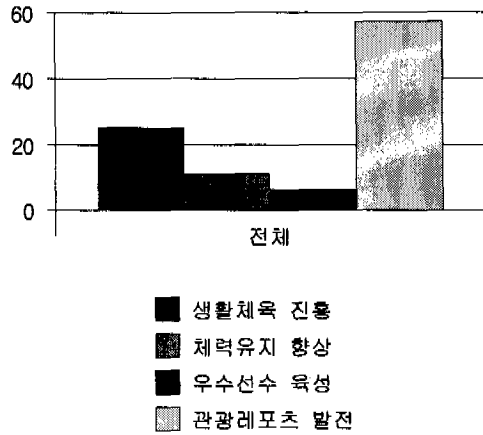
4) 윈드서핑의 정책반영

윈드서핑의 정책반영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수입별, 기량수준별에 따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29>과 같다.

<표-29> 윈드서핑의 정책반영

〈성별에 따른 정책반영〉		정책반영				전 체
		생활체육의 진흥	체력의 유지 및 향상	우수 선수의 육성	관광레포츠로 의 발전	
성 별	남 자	55(27.5%)	24(12.0%)	15(7.5%)	106(53.0%)	200(100.0%)
	여 자	8(16.0%)	4(8.0%)	1(2.0%)	37(74.0%)	50(100.0%)
전 체		63(25.2%)	28(11.2%)	16(6.4%)	143(57.2%)	250(100.0%)
$\chi^2=7.645, df=3, p=.054$						
〈연령에 따른 정책반영〉		정책반영				전 체
		생활체육의 진흥	체력의 유지 및 향상	우수 선수의 육성	관광레포츠로 의 발전	
연 령	20대미만	25(19.4%)	16(12.4%)	11(8.5%)	77(59.7%)	129(100.0%)
	30대	23(31.1%)	8(10.8%)	3(4.1%)	40(54.1%)	74(100.0%)
	40대이상	15(31.9%)	4(8.5%)	2(4.3%)	26(55.3%)	47(100.0%)
전 체		63(25.2%)	28(11.2%)	16(6.4%)	143(57.2%)	250(100.0%)
$\chi^2=6.254, df=6, p=.395$						
〈가계수입에 따른 정책반영〉		정책반영				전 체
		생활체육의 진흥	체력의 유지 및 향상	우수 선수의 육성	관광레포츠로 의 발전	
가 계 수 입	120만원 미만	33(26.6%)	16(12.9%)	10(8.1%)	65(52.4%)	124(100.0%)
	120-200만원 미만	21(27.6%)	6(7.9%)	3(3.9%)	46(60.5%)	76(100.0%)
	200만원 이상	9(31.0%)	4(13.8%)	2(6.9%)	14(48.3%)	29(100.0%)
전 체		63(27.5%)	26(11.4%)	15(6.6%)	125(54.6%)	229(100.0%)
$\chi^2=3.418, df=6, p=.755$						
〈기량수준에 따른 정책반영〉		정책반영				전 체
		생활체육의 진흥	체력의 유지 및 향상	우수 선수의 육성	관광레포츠로 의 발전	
기 량 수 준	초급자	18(16.8%)	13(12.1%)	8(7.5%)	68(63.6%)	107(100.0%)
	중급자	23(35.4%)	4(6.2%)	4(6.2%)	34(52.3%)	65(100.0%)
	상급자	21(33.3%)	11(17.5%)	1(1.6%)	30(47.6%)	63(100.0%)
전 체		62(26.4%)	28(11.9%)	13(5.5%)	132(56.2%)	235(100.0%)
$\chi^2=14.878, df=6, p=.021$						

윈드서핑의 정책반영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관광레저스포츠로의 발전을 57.25로 가장 많이 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생활체육의 진흥의 면에서 25.2%, 체력유지 및 향상의 면에서 11.2%, 우수선수의 육성에 6.4%의 순이며 연령별, 가계수입별로는 특별히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 않으나 기량수준별에 따르면 관광레저스포츠로의 발전과 우수선수의 육성에 중점을 둔 정책반영을 원하는 바에서는 초급자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중급자는 생활체육의 진흥에 많고, 상급자는 체력유지 및 향상에 중점을 둔 정책반영을 원하고 있는 것을 유의한 차이가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24〉 윈드서핑의 정책반영

7. 성, 연령, 가계수입, 기량수준에 따른 만족도 변인들이 차이 검증



1) 성별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성별에 따라서 윈드서핑활동과 관련된 만족도, 건전도 및 기여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30〉와 같다.

〈표-30〉 성별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변인들의 차이 검증

종속변인	성별		DF	F	p
	남자	여자			
활동만족도	1.85±.88	2.31±.99	1, 252	10.592	.001
활동시설만족도	2.27±.99	2.49±.92	1, 247	2.088	.150
생활만족도	2.00±.76	2.31±.71	1, 250	7.100	.008
건전도 평가	1.90±.82	2.00±.75	1, 252	.667	.415
정보제공만족도	2.65±1.07	2.90±1.07	1, 247	2.219	.138
관광정책기여도	2.38±1.16	2.40±1.14	1, 248	.012	.913

*abc는 Scheffé의 사후검증결과로서 문자가 다르면 집단간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표-30〉에 의하여, 윈드서핑활동에 대한 만족도 변인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다른 변인들은 성별에 따른 차이

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윈드서핑 활동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연령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연령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31>와 같다.

<표-31> 연령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변인들의 차이 검증

종속변인	연령			DF	F	p
	20대	30대	40대 이상			
만족도	2.00±.85	1.89±1.02	1.85±.95	2, 251	.651	.523
시설만족도	2.37±.87	2.23±1.12	2.29±1.04	2, 246	.507	.603
생활만족도	2.21±.73 _a	1.88±.79 _b	1.96±.71 _a	2, 249	5.160	.006
건강도평가	1.94±.79	1.92±.90	1.85±.69	2, 251	.208	.812
정보제공만족도	2.69±.96 _a	2.47±1.18 _b	3.06±1.07 _a	2, 246	4.532	.012
관광정책기여도	2.36±.98	2.42±1.32	2.38±1.31	2, 247	.052	.949

*abc는 Scheffé의 사후검증결과로서 문자가 다르면 집단간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표-31>에서 보면 윈드서핑활동을 시작한 후 생활만족도, 정보제공 변인들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다른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들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 만족도는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윈드서핑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30대가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3) 가계수입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가계수입에 따라서 윈드서핑 활동 관련 변인들이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32>와 같다.

<표-32> 가계수입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변인들의 차이 검증

종속변인	수입			DF	F	p
	120만원미만	120-200만원	200만원이상			
만족도	2.02±.89	1.97±1.01	1.57±.86	2, 228	2.935	.055
시설평가만족도	2.31±.95	2.36±1.04	2.07±1.05	2, 223	.965	.383
생활만족도	2.15±.77 _a	1.95±.71 _{ab}	1.83±.79 _b	2, 226	3.060	.049
건강도평가	2.00±.83	1.88±.78	1.72±.70	2, 229	1.699	.185
정보제공만족도	2.57±1.05	2.82±1.13	2.76±1.12	2, 225	1.312	.271
관광정책기여도	2.34±1.12	2.53±1.22	2.17±1.14	2, 226	1.152	.318

*abc는 Scheffé의 사후검증결과로서 문자가 다르면 집단간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만족도의 변인에 있어서 가계 수입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다른 변인들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의 구체적인 평균치의 차이를 Scheffé의 방식에 의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가계수입이 200만원이상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20만원미만 집단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수입이 높을수록 윈드서핑 활동후에 생활만족도를 높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기량수준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기량수준에 따라서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변인들의 차이는 검증한 결과 〈표-33〉와 같다.

〈표-33〉 기량수준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변인들의 차이 검증

종속변인	기량수준			DF	F	p
	하	중	상			
만족도	2.22±.95 _a	1.98±.93 _a	1.58±.73 _b	2, 235	10.45	.000
시설평가만족도	2.49±.86	2.30±1.07	2.20±1.03	2, 231	1.91	.150
생활만족도	2.35±.73 _a	2.01±.74 _b	1.75±.64 _c	2, 234	15.07	.000
건전도평가	1.93±.74	2.12±.84	1.78±.88	2, 236	2.93	.055
정보제공만족도	2.86±.89	2.63±1.19	2.63±1.15	2, 231	1.33	.267
관광정책기여도	2.52±1.01	2.49±1.30	2.19±1.20	2, 232	1.81	.165

*abc는 Scheffé의 사후검증결과로서 문자가 다르면 집단간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표-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윈드서핑 활동만족도, 생활만족도 변인들에서 기량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다른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들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활동만족도는 기량수준이 높은 상급자가 중급자와 초급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생활만족도는 기량수준간에 모두 차이를 보였다. 즉 기량수준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V. 결과의 요약

제주도민의 윈드서핑 활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면서 윈드서핑 인구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및 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주도 내에서 윈드서핑 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인 2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윈드서핑 활동의 실태와 관광정책에 관한 문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윈드서핑 활동인구는

- 거주지역별로는 제주시(65.5%)가 가장 많고 다음은 북제주군(15.2%), 남제주군(11.3%), 서귀포시(8.2%) 순서이다

이는 주 활동장소가 근거리에서 있어 시각적인 효과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보며 또한 가까운 활동장소가 있음으로써 활동인구가 많아진 것으로 본다.

- 성별로는 남자(80.1%)가 여자(19.9%)보다 활동인구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함에 있다고 본다

이에 지도자들은 세일링 하는 사람의 신체와 바람의 세기에 알맞은 세일을 맞추어 줌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탈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연령별로는 20대 이하(52.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대(29.3%), 40대 이상(18.8%)로서 주로 청, 장년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월 평균 가구당 수입별로 보아서는 월 120만원 미만 수입자(49.6%), 120-200만원 미만(29.7%), 200만원 미만(29.7%) 200만원 이상(18.8%)의 순서로서 조사자중 학생들이 많은 이유와 수입이 적은 편의 사람들이 무료 강습할 때만 잠깐 활동하는 이유로 수입이 적은 편의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세일링 실력별로 보면은 기초자(43%)가 두드러지게 많이 있는 편이다

이는 무료강습회 등에 잠시 맛을 보는 정도로 참여하고는 더 이상 기회를 가지 못하고 있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각 지도자들은 기초 강습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가져야 할 것이다.

2. 윈드서핑 주 활동장소 이용실태

윈드서핑 활동장소로는 총15개소 있으며, 활동 편의 시설로는 신양에 훈련장 1개소와 이호, 화순에 칠 따라 여는 클럽하우스가 있는 게 고작이다. (생활체육 제주도 윈드서핑 연합회 : 1999)

- 활동인구는 제주시의 이호가 67.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제주군지구의 신양이 23%, 화순 3.5%, 함덕 1.6% 등의 순서로 주 활동 장소를 찾고 있는데 활동조건이 좋거나 활동편의 시설이 많은 곳은 이용 경험자 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 활동장소와의 거리를 보면 대부분 차로 10분 이상의 거리에 74%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이나 가계수입에 있어서는 특별히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고, 연령에 있어서나 기량수준이 높을수록 차로 30분 이상이 많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3. 윈드서핑의 행동적 참여 실태

세일링 실력별로 구분하여 참여 실태를 파악하여 본 바

- 활동경력(실제 총 활동한 날수)은 남자는 3개월 이상이 많았고 여자는 3개월 미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적으로 볼 때는 3개월 미만이(70.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령별로 볼 때 20대미만의 대부분은 1주일 미만이었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경력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인은 학생 수업과정이나 강습회 기간 중에만 활동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계수입별로 보면 수입이 높아질수록 1년 이상 활동 경력이 많았고, 수입이 적으면 1주일 미만이 많았다. 또한 기량 수준이 초급자는 1주일 미만이 많았으며 상급자로 갈수록 3개월 이상이 많았다.

- 윈드서핑 활동 참여 빈도를 보면 주1회(22.4%)또는 1년에 1회 이하(22.0%)가 많은 편이며, 성별로는 특별한 차이가 없고, 연령별로 볼 때, 20대에서 주1회 활동하는 자가 많고, 30대,40대로 갈수록 1년에 1회 이상 또는 주1회 주4회 이상에서 많은 현상을 보였다. 기량수준 별로 볼 때 초급자에서는 주1회 활동과 1년에 1회 이하가 많고, 중급자에서는 1달에 2,3회 또는 1년에 1회 이하가 많으며, 상급자는 주2회 또는 3회 활동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급자에서 주1회 활동이 많은 것은 학생이 많은 것 때문으로 파악되며, 1년에 1회 이하가 많은 것은 강습회 등 행사에만 참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주 활동계절로는 여름이(54.3%), 사계절참여가(24.0%), 봄-가을(17.7%)

의 순서로 나타나며, 성별로는 남자는 봄-가을이나 사계절을 이용해서 참여가 많고, 여자는 여름에 주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연령이 많아질수록 사계절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기량수준에 따라서는 초급자는 여름(63.5%)이 가장 많았고 상급자로 가면 갈수록 활동하는 계절이 더 많아져 사계절을 다 활동기간으로 쓰고 있다.

- 주 활동요일은 일요일(39.2%)이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 볼 때는 30대와 40대에서 일요일과 구분 없이 바람 좋은 날이 많았고, 가계수입과 기량 수준에 있어서도, 수입이 높아지거나 기량수준이 높아질수록 일요일과 구분 없이 바람 좋은 날에 세일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참여시간 때는 모두 12시에서 5시 사이(55.4%), 바람 좋은 시간(23.9%)으로 많이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구분 없이 좋은 바람시간에 여자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여자는 12시에서 5시 사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연령이나 수입별 또는 기량수준별로 보면 연령이 많아지고 수입이 높아지며 기량 수준이 높을수록 구분 없이 바람 좋은 시간 때에 활동하고 있다.

- 1회 참여시간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2-3시간(33.8%), 여자에게 있어서는 1-2시간(41.2%)으로 1회 참여시간을 같고 있으며, 20대는 2-3시간 사이가 많고, 30대는 1시간에서 3시간 사이가 많고, 40대에서는 3-4시간정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수입별로 볼 때에는 대부분이 2-3시간이 많은 편이고, 수입이 높아질수록 1회 참여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

- 윈드서핑 장비준비를 보면 주로 클럽 공동 장비와 무료 강습 사용자가 많고, 연령별로나 가계 수입별로 볼 때 나이가 많아지고 수입이 많아질수록 개인 장비를 구입하여 활동장소에 보관하거나 이동 운반하여 장비 준비를 하는 형태가 많다. 초급자는 주로 공동장비와 무료 사용을 하고 있고 중급자에 있어서는 공동 장비이용과 유료임대 상황이 많은 편이며 상급자에 있어서는 공동장비 이용과 더불어 개인장비에 이동운반과 활동장소에 보관상태로 장비 준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윈드서핑 단체에 대한 소속은 가입자가(약54%)정도이고, 연령이 많거나 수입이 많고 기량수준이 높을수록 협회가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 초급자들에서는 대부분 미가입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초 초보 강습 시에 강습자들에 대한 지도자들의 계속적인 지도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서 한순간의 경험으로 끝나게 하고 있다고 본다.

- 윈드서핑 관련 자격증, 수료증 또한 기초, 초급자들 대부분으로 65%가 없는 상황으로 협회의 체계적인 자격부여 방안을 잘 강구함으로서 더욱 많은 활동인구가 자신이 어느 정도의 실력상황인지 기초 입문 시부터 관리를 잘 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4. 윈드서핑 활동경비 실태

윈드서핑 활동경비 실태를 살펴보면

- 장비가격에 있어서는 성별이나 연령, 수입에 대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주로 대부분의 장비 가격에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대에 장비를 많이 갖고 있다. 기량 면에서는 고급자로 갈수록 고가의 장비를 구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윈드서핑의 희망가격을 보면 주로 100만원이하를 원하고 있고, 연령이 많아 지거나 가계수입이 많고 기량 수준이 높아질수록 고가의 장비를 희망하고 있다.
- 월 평균 경비에서는 5만원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나 가계수입별 또는 기량수준으로 볼 때 40대 이상에서는 3만원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월 평균 희망경비 또한 5만원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이나 가계수입, 기량수준이 높을수록 희망경비가 3만원이상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다.

5. 윈드서핑 참여동기와 제약요인

윈드서핑 활동에 대한 참여동기와 제약요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 윈드서핑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로서는 학교수업을 통해서(29.8%)선배의 권유(23.8%), 흥미와 취미(24.7%)무료강습회를 통해서(13.7%), 대중매체(5.5%)의 순서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참여동기가 학교수업을 통해서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이가 높아지고, 수입이 높아지며, 기량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참여하게된 동기가 친구 선배의 권유나 자신이 흥미와 취미가 있어서 활동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윈드서핑의 활동목적은 보면 건강과 체력 증진에(32.6%), 스트레스 해소(23.4%), 단조로운 생활 탈피(16.7%)순서이며 여성에게 있어서는 스트레스 해소와 단조로운 생활탈피가 많았으며, 나이와 기량수준에 대해서는 별 유의한 차이가 없고, 가계수입 면에서 보면 120만원미만에서는 스트레스 해소와 일의 능률향상 기술 학습 면에서 높고, 120-200만원 대에서는 단조로운 생활 탈피, 스트레스 해소에서 높고 건강·체력증진은 200만원 이상 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수입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해소나 학습 면에서 높게 나타나고 수입이 높을수록 건강체력증진에 활동목적을 두고 있다.
- 윈드서핑활동에 제약요인으로서는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이나 기량수준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고, 연령

별로나 가계수입별에서 보면, 연령이 많아지고 가계수입이 많아질수록 정신적 여유가 없는 제약 요인이 많아지고 있다.

- 주 활동장을 찾는 이유로는 거리가 가까워서가(50.0%), 동호인이 좋아서가(24.3%), 활동조건이 좋아서(11.1%)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볼 때 나 기량 수준별로 볼 때 나이가 적거나 초급자일수록

가까운 거리가 사용료가 적게 드는 이유를 많이 들고 있고, 나이가 많아지거나 상급자로 갈수록 활동조건이 좋거나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찾는 경향성을 유의하게 볼 수 있다. 또한 남자는 활동조건이 좋거나 동호인이 있어서 많이 찾고 있는 반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거리가 가까운 이유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활동장을 찾는 경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 윈드서핑활동시설 이용 시 애로 사항을 보면 활동 지도자가 모자라다(30%), 활동장소가 멀어서(20%)의 순서로 많으며, 나이가 적거나 가계수입이 적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소의 복잡함과 사용료가 비싸고 사용시간이 제한적인 애로 사항을 타 연령층에 비하여 많이 지적하고 있고, 연령층이 높아지고 수입이 높아질수록 활동장소가 멀다는 이유를 높게 보고 있다.

- 동호인의 미가입 이유로 어떠한 변인들간의 특별히 유의한 차이를 볼 수가 없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47.3%), 경제적 부담 때문(20.4%)으로 대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동기와 제약요인을 보면 처음에 배우러 왔을 때 기초, 초보자들에게 시설 및 서비스에 불만을 갖게되어 다시 참여하지 않는 수도 있다고 본다.

이에 사설 및 공영 활동편의 시설들이 잘 갖추어지도록 기관 또는 활동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대민 정신과 서비스 친절의 모습으로 동호인 및 지도자들은 활동해야 할 것으로 본다.

6. 윈드서핑 활동의 운동효과

윈드서핑 활동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 효과를 보면 유연성 강화(49.2%), 전신지구력 강화(32.9%), 근력강화(17.9%)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이 낮거나 가계수입이 적고 기량수준이 초급자인 경우가 근력강화에 효과가 많다고 보고 있고, 나이가 많고 수입이 많아지고 기량수준이 높아질수록 전신 강화에 운동 효과가 많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 윈드서핑활동 후 생활이 변화 상태는 대체적으로 효과가 있다(41.5%)고 나타나고 있다.

- 또한 윈드서핑 활동 후에 건강에 도움을 주는가의 상황에서도 그렇다

(40.5%)는 답변이 많은 편이다.

이는 윈드서핑 활동이 새로운 활력과 건강을 줄 수 있는 좋은 운동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윈드서핑 활동 후에 생활만족도를 비교하여 보면 성별로 볼 때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는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연령별로 볼 때는 30대가 가장 높게 생활만족도를 갖고있으며, 가계수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가계수입이 200만원이상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20만원미만 집단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수입이 높을수록 윈드서핑 활동 후에 생활만족도를 높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량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기량수준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윈드서핑 활동을 시작한 후에 건강·체력혜택에 대한 평가에서 비교하여 보면 성별로 볼 때는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연령별로나, 가계수입별, 기량수준별에서 볼 때는 특별히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대체적으로 볼 때 건강·체력혜택에 대한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바와 같이 '그렇다'는 답변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는 윈드서핑운동이 건강·체력혜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임을 감안 해볼 수 있다고 본다.

- 윈드서핑 활동이 정신적 스트레스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족도를 비교하여 보면 성별로 볼 때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볼 수가 없었고, 연령별로 볼 때는 4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계수입별로 살펴보면 가계수입이 200만원이상인 집단에서는 윈드서핑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20만원미만 집단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수입이 높을수록 윈드서핑 활동이 정신적 스트레스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족도를 높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량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상급자로 갈수록 초급자보다 윈드서핑이 주는 효과로 스트레스의 해소의 효과를 높게 표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윈드서핑이 관광 레저스포츠로의 활성화 방안

- 윈드서핑 활동을 즐긴 수준 시기인지를 인식하는 상황을 보면, 알맞다(35%), 아직 이른편이다(33%), 늦은 편이다(27%) 모르겠다(15%)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기량 수준에 따라서 보면 늦은 편이라고 답변한 자중에는 초급자가 많은 편이고, 중급자는 아직이르다는 항목에서 많으며, 알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는 상급자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의한 차이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 윈드서핑에 대한 정보출처를 보면 동호인 단체를 통해서(43.6%), 레저관련 업체(18.5%), 대중매체를 통해(16.0%), 인터넷(14.0%), 전문서적 및 팜플렛(7.8%)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볼수 없고, 나이가 적거나 수입이 적고 초급자일수록 인터넷이나 레저관련업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고 30대나 중급자 수준에서는 동호인 단체를 통하여 얻고, 나이와 수입, 기량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서적이거나 팜플렛에 통해서 얻는 경향이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윈드서핑의 활성화 개선방안을 보면 장비가격인하에(35.2%), 편의시설 개선 확충(21.9%) 활동비 인하(19.4%), 홍보활동 강화(14.2%), 활동지도자 확충(9.3%)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변인들간에 특별히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대체적으로 장비가격과 활동비의 인하와 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많이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윈드서핑 활동이 정책에 반영이 된다면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에서는 관광레포츠로의 발전(57.2%), 생활체육진흥(25.2%), 체력유지 향상(11.2%), 우수선수 육성(6.4%)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량수준별로 보면, 관광레저스포츠로의 전과 우수선수 육성에 중점을 둔 정책반영을 원하는 바에서는 초급자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중급자는 생활체육진흥에 많고, 상급자는 체력유지 및 향상에 중점을 둔 정책반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나날이 발전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의 경제성장은 과학 기술이 발달 및 노동시가의 단축, 국민소득이 증대, 생활수준이 향상, 여가의 증대 등을 수반함으로써 스포츠의 대중화와 보편화 현상으로 촉진시키고 있다. 이에 윈드서핑 활동을 통한 보다 나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합목적 신체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정부차원에서 정책에 반영되는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되리라고 본다.

8. 성, 연령, 가계수입, 기량수준에 따른 만족도

- 성별에 따른 활동 관련 만족도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윈드서핑활동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건강체력혜택에 대한 평가는 여자가 남성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연령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생활만족도는 30대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스트레스 해소에 있어서는 4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0대에서는 정보제공에 있어서,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

- , 가계수입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생활만족도에서 가계수입이 높을수록 원드서평 활동 후 생활만족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 기량 수준에 따른 만족도에서는 활동만족도는 기량수준의 상급자가 초급자보다 높고, 기량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결과와 같이 연구목적에 따른 윈드서핑 활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윈드서핑의 활동장소 실태, 윈드서핑에 대한 행동적 참여실태, 윈드서핑의 활동 경비 실태, 참여동기 및 제약요인의 측면, 윈드서핑 활동의 심리·생리적 효과 측면, 관광레저스포츠로의 활성화 관점 측면 등을 성별, 연령별, 한달 가계수입별, 기량 수준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윈드서핑의 주 활동장소 이용실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거주지역별, 성,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2) 윈드서핑의 행동적 참여실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거주지역별, 성,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윈드서핑 인구는 제주시(65.5%)가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주 활동장이 제주시권 내의 이호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성별로는 남자(80.1%)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52%)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수입별로 볼 때 월 평균 120만원 미만의 수입자가 (49.6%)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실력별로는 초급자(4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활동하는 윈드서핑 인구중 대부분은 초보자와 학생이 많은 경향이 있으므로 인해 좋은 활동여건보다는 주로 가까운 활동장을 많이 찾고 있으며 활동빈도 또한 주1회 수업 시간 또는 1년에 1번 이하의 무료강습 등만을 이용하여 경험에 그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 활동 시기를 보면 일요일이 가장 많은 편이며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규칙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여름의 휴가 또는 방학 등을 잠깐만 활동하는 자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3) 윈드서핑의 활동경비실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거주지역별, 성,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활동경비는 대부분 5만원 이하(78.1%)이며 희망경비 또한 5만원 이하(84.9%)를 많이 원하고 있으며, 장비구비 상황으로는 대부분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장비를 이용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장비(51%)를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장비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윈드서핑 참여동기와 참여제약요인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성,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참여동기로 볼 때 여성이나 저연령층, 초급자나 저수입자들은 학교수업 또는 무료강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연령층 고수입 상급자 수준으로 갈수록 흥미와 취미가 있어서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활동 목적으로는 건강과 체력증진 스트레스 해소에 많다고 하고 있다. 또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활동제약을 많이 받고 있으며 주활동장을 찾는 이유를 보면 거리와 동호인, 활동조건 등을 들고 있다. 협회 가입상황을 보면 초급자와 상급자가 많음을 볼 수 있고 미가입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를 많이 들고 있다.

5) 윈드서핑의 심리·생리적인 효과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성,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연령이나 가계수입, 기량수준이 높을수록 전신지구력 강화에 좋다고 하고 있고 낮을수록 유연성 강화와 근력강화에 좋다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활 만족도, 건강 체력혜택에 대한 평가에서 보면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자는 생활만족도가 높고, 여성은 건강체력에 대한 평가를 높이 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생활 만족도는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윈드서핑이 주는 스트레스 해소에 있어서는 40대 이상에서 높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가계수입별로 보면 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수입이 높을수록 높고, 스트레스 해소감 또한 높아지고 있고, 기량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해소의 효과에 높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6) 윈드서핑 의식, 홍보, 개선방안, 관광레저스포츠로의 정책 등의 윈드서핑 활성화 방안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성, 연령, 직업, 기량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윈드서핑 즐길 수준 의식을 보면 기량별로 볼 때 상급자에게서는 알맞다고 보고 있으나 중급자는 아직 이른 편이라고 보고 있으며 정보출처로는 고 연령층이나 고수입 상급 기량으로 갈수록 동호인 단체에서 주로 얻고, 낮아질수록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활성화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장비가격 인하와 편의시설 확충을 많이 들고 있으며 윈드서핑의 정책반영의 면에서 보면 기량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체육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은 관광레저스포츠로의 발전에 대한 정책 반영을 원하고 있다.

7) 윈드서핑 활동 관련 만족도 변인들은 성, 연령, 수입, 기량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윈드서핑활동에 대한 만족도 변인, 생활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 보면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자는 윈드서핑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생활만족도는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윈드서핑에 대한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30대가 높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가계수입별로 보면 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수입이 높을수록 높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제 언

윈드서핑 인구의 저변확대와 활성화 방안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윈드서핑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기초과정에서부터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윈드서핑 동호인을 포용할 수 있는 지도자들은 노력해야 한다.

2) 윈드서핑 전 동호인의 화합 속에 다채로운 윈드서핑 활동을 이루어 나가며 지속적인 메스컴을 활용한 홍보 등 윈드서핑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3) 물밀 듯 다가오는 레저 관광의 시대에 정부 차원에서 윈드서핑 활동장소의 시설을 확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 국민생활 건강과 관광 정책으로의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

4) 윈드서핑 동호인들은 서로의 윈드서핑상식 및 경험을 토대로 서로 머리를 맞대어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동 연구 노력해야 한다.

5) 여러 가지 레포츠여행시대에 알맞은 윈드서핑 활성화 정책을 도는 각 기관과 단체와 상호 보완적 관계로 정책의논을 가져 전천후 레포츠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할 때 윈드서핑 인구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는 물론 국민 의 건강한 생활과 관광정책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도내 윈드서핑에 대한 실태조사의 모든 것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자세한 분석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1. 한국문헌

〈단행본〉

- 김교준(1990), "윈드서핑의 이해" 경운출판사
김영철(1988), "보드세일링 교본" 한국보드세일링협회
김효윤(1997), "레포츠 가이드" 오성출판사
안두옥(1989), "윈드서핑(초급편)", 안두옥 윈드서핑교실
장영주(1983) "보드세일링" 도서출판 세진사
정항동(1995) "파워 윈드서핑" 삼호미디어
제주도윈드서핑협회(1996), "윈드서핑 기초교본" (사) 제주도윈드서핑협회
하명수(1996) "윈드서핑" 하서출판사
한강일(1995) "최신 레포츠 백과" 도서출판 솔바람
한국레저연구회(1996) "실전윈드서핑교실" 예문당

〈논문〉

- 고동우(1997), "보드세일링 동호인들의 참여정도와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민희(1995), "Sail Board 우수 선수와 비우수 선수간의 체격, 체력에 관한 비교분석"
박진우(1998), "특별소비세가 윈드서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양명환(2000), "윈드서핑 여가스포츠의 참여동기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 39권 제2호
이영태(1993), "국내보드세일링 경기의 활성화 방안", 경원대학교 논문집
이영태(1994), "보드세일링과 안전사고", 경원대학교 논문집.
이영태(1996), "보드세일링 학습에서의 정신연습 효과",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필성(1997) "요트선수들이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미정(1993) "수상스포츠 참여빈도에 관한 사회 경제적 요인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병호(1995) "스포츠활동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기타 문헌〉

- 강신겸, 김용규(1998), "IMF시대 저비용 여가시설의 개발방안", <http://econdb.seri-samsung>
- 권희범(1996), "1.2급 지도자 심판 강습", 사단법인 대한윈드서핑협회
- 문화체육부(1995.12), 국민여가활동참여실태조사
- 배길진(1996), "윈드서핑의 생활체육 확대방안" 국민생활체육 10월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배효길(1999), "생활체육윈드서핑 지도자 연수교재" 국민생활체육전국윈드서핑연합회
- 생활체육제주도윈드서핑연합회(1999), "윈드서핑 관련자료", 제주도스포츠기획단
수신 발송 문서번호 99-46)
-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연구소(1986), "국민체육활동 실태조사"
- 서울윈드서핑협회(1990) "한가람" 13호, 서울윈드서핑협회
- 안두옥(1988), "한가람", 서울보드세일링협회
- 이영태(1990), "사회체육 종목으로서의 윈드서핑" 한가람16호 서울윈드서핑협회
- 이원형(1997), "'97 생활체육 종목별연합회 연수교재",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이한기(1990) "윈드서핑" '90-여름호, 대한윈드서핑협회
- 임번장(1986) "사회체육 소식 창간호" 한국사회체육 진흥회
- 체육부(1988) "국민여가활동참여실태조사" 중앙도서관
- 체육부(1989)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실태조사" UNIVERSITY LIBRARY
- 최강렬(1994), "윈드서핑" '94신년호, 사단법인 대한윈드서핑협회
- KWA홍보위원회(1994) "윈드서핑" 94신년호 사단법인 대한윈드서핑협회

2. 동양문헌

- Hi-Wind(1996), 第17卷 第12号 通卷第185号
- Slalom Method(1994), 第5卷 第13号 通卷58号

3. 서양문헌

- GLENN TAYLOR(1980), Windsurfing, Calif., McGraw-Hill Company
- PHIL JONES(1992) "LEARN TO WINDSURF IN A WEEKEND"
Dorling Kindersley Limited, London
- U.S.A Sailing A.(1996) "Teach Windsufing Right"
- WEFA(1988), The Contribution of World Travel and Tourism
Industry to the Global Economy
- Windsurfing Magazine, November/ December 1996, Vol. 15, No. 8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Windsurfing Activities of People in Cheju Island

Kim, Ki-Yoon

Physical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ul-Won

This study is aimed at having a grip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lace of activity of windsurfing, active participation, the cost of activity, the motive of participation, the factor of restriction of,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effect through the activity of windsurfing and the plan of activation of windsurfing in order to research the actual conditions of activity of windsurfing in Cheju area, and heightening the position of windsurfing as tourist leisure sport, and giving th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its development plan. With a view to accomplishing this purpose, I made a survey of 256 subjects with formulated questionnaires and the result of investigation was divided into seven sections established by this study. The break-down of the result was as follows.

1. As for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main active place of windsurfing, those who were young, had small income and had the level of low technique used near places for the activity of windsurfing, and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ed according to the changing factors of population and sociology(sex, age, income, the level of techniqu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

In terms of resident area, the population of windsurfing was the largest in Cheju city(65.5%) and the main place of its activity was Iho beach. In terms of sex generally windsurfers was men. In terms of age those people less than 20 years old(52%) were the most active. In terms of income those who earned less than \1,200,000 a month(49.6%) were the most active. And in terms of the level of technique beginners(43%) were the most active. Those people who were the most active thus used near places for its activity and did windsurfing during the class once a week or through free course once a year.

2. The actual conditions of active participation in windsurfing also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changing factors of population and sociology(sex, age, income, the level of technique).

When it comes to the time of enjoying windsurfing, windsurfers used Sunday and summer vacation most because of the scanty time.

3. As for the cost of the activity of windsurfing, both the actual cost(78.1%) and the hope cost(84.9%) of its activity were less than \50,000. As for the price of its equipment, the amount of \1,500,000 to \2,000,000 was common and the hope price of it was less than \1,000,000(51%). So most of windsurfers tended to think its price expensive. And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ed according to the changing factors of population and sociology(resident area, sex, age, income, the level of technique).

4. As for the motive of participation in windsurfing and factor of participation restriction of i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ed according to the changing factors of population and sociology(sex, age, income, the level of technique).

In terms of the motive of participation in windsurfing, women, youn people, beginners and small income earners mostly participated in windsurfing through class or free course. On the other hand older people, large income earners and people in advanced level began to participate in windsurfing as the activity of hobby or interest. The purpose of its activity was generally for good health, the improvement of physical body and the clearing up of stress. Most of windsurfers was restricted by scanty time, and the condition of activity of windsurfing depended on distance and lovers' society. As for registration situation for registering the windsurfing association, beginners and seniors joined it most but there were many windsurfers who didn't joined owing to the scanty time.

5. As for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effect of windsurfing,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ed according to the changing factors of population and sociology(sex, age, income, the level of technique).

As for the satisfaction with windsurfing, life and healthy body,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ed according to sex. Men were much satisfied with their life, while women were much satisfied with healthy body. And people over 40 years old were much satisfied with the clearing up of stress. The larger home income got, the more the clearing up of stress got and the higher the level of technique got, the more the satisfaction of life and resolution of stress got.

6. As for the consciousness, publicity, the plan for improvement of windsurfing and the policy of it as tourist leisure spor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ed according to the changing factors of population and sociology(sex, age, vocation, the level of technique).

In terms of the conscious level of enjoying wind · surfing, windsurfing was suitable for people in advanced level but not kind of suitable for people less than intermediate level. As for the source of information, older people, large income earners and seniors got the information for the most part from lovers' society, while young people, small income earners and beginners got it mostly through mass media and internet.

As for the improvement plan for activation of windsurfing, windsurfing wanted the price of equipment to be low and the facilities to be expanded. In terms of the policy for windsurfing, seniors wanted to concentrate windsurfing on the development into life gymnastics, while most of windsurfers hoped that windsurfing would be included in the policy of its development as tourist leisure sport.

7. As for the satisfaction related to the activity of windsurfing,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ed according to the changing factors of population and sociology(sex, age, vocation, the level of technique). In terms of age, people in 30's had the highest satisfaction with life. And in terms of home income, the larger the income got, the higher the satisfaction got.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윈드서핑동호인들이 활동참여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참여자들의 현황과 참여동기 및 제약요인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활동을 위한 개선점과 관광정책 활용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결과는 연구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며,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될 것입니다.

부디 바쁘시드래도 시간을 내주셔서 설문내용을 잘 읽으신 후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9. 4.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기 윤 올림

먼저 귀하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p>1. 거주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시 (2) 서귀포시 (3) 남제주군 (4) 북제주군 <p>2. 성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 (2) 여 <p>3. 연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대 미만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이상 <p>4. 한 달 가계수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80만원 이하 (2) 80 ~ 120만원 미만 (3) 120 ~ 150만원 미만 (4) 150 ~ 200만원 미만 (5) 200만원 이상 	<p>5. 직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 /어업자 (2) 자영업 (3) 판매 /서비스직 (4) 기능 /작업직 (5) 사무직 (6) 경영 /관리직 (7) 전문 /자유직 (8) 가정주부 (9) 학생 (10) 기타 <p>6. 윈드서핑 세일링 실력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자 (범리치 가능정도 이하) (2) 초급자 (택킹 가능정도) (3) 중급자 (자이빙 가능정도) (4) 고급자 (프리 스타일 가능정도)
--	--

귀하께서 윈드서핑 활동상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p>1. 귀하의 윈드서핑 활동경력(실제 참여한 날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1 주일 미만 (2) 1주일-1 개월 미만 (3) 1개월-3개월 미만 (4) 3개월-6개월 미만 (5) 1년 이상 	<p>2. 귀하의 윈드서핑 활동참여 빈도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 4회 이상 (2) 주 2-3회 (3) 주 1회 (4) 한 달에 2-3회 (5) 한 달에 1회 (6) 1년에 1회 이하
--	---

<p>3. 귀하께서 윈드서핑을 주로 하시는 계절은?</p> <p>(1) 봄 (2) 여름 (3) 가을 (4) 봄-가을 (5) 사계절</p> <p>4. 주로 어느 때에 서핑 활동을 하십니까?</p> <p>(1) 평일 (2) 토요일 (3) 일요일(휴일) (4) 휴가(방학) (5) 구분 없이 바람좋은날</p> <p>5. 윈드서핑을 주로 어느 시간 때 하십니까?</p> <p>(1) 오전 9- 12시 (2) 오후 12-5시 (3) 오후 5-일몰 직전 (4) 구분 없이 바람 좋은 시간</p> <p>6. 1회 참여시 평균소요 시간은?</p> <p>(1) 1시간 미만 (2) 1-2시간 미만 (3) 2-3시간 미만 (4) 3-4시간 미만 (5) 4시간 이상</p> <p>7. 귀하께서 윈드서핑 활동시 장비의 준비는 어떻게 하시는지?</p> <p>(1) 활동장에 있는 장비를 유료임대 (2) 활동장의 가입 클럽 공동장비 이용 (3) 개인장비를 활동장에 보관 (4) 개인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이동운반 (5) 강습회 할 때 무료사용</p>	<p>8. 귀하께서 장비를 소유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p> <p>(1) 롱보드 ()대 (2) 숏보드 ()대 (3) 세일 ()장 (4) 세팅가능()대</p> <p>9.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의 가격은 1대에 평균 얼마정도입니까?</p> <p>(1) 100만원 이하 (2) 100-150만원 미만 (3) 150-200만원 미만 (4) 200-250만원 미만 (5) 250만원 이상</p> <p>10. 귀하께서는 장비의 가격이 1대에 얼마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100만원 이하 (2) 100-150만원 미만 (3) 150-200만원 미만 (4) 200-250만원 미만 (5) 250만원 이상</p> <p>11. 귀하께서 윈드서핑 활동에 월 평균 경비는 어느 정도입니까?</p> <p>(1) 1만원 이하 (2) 1-3만원 미만 (3) 3-5만원 미만 (4) 5-10만원 미만 (5) 10만원 이상</p> <p>12. 귀하께서 윈드서핑 활동에 월 평균 경비는 얼마정도였으면 좋겠습니까?</p> <p>(1) 1만원 이하 (2) 1-3만원 미만 (3) 3-5만원 미만 (4) 5-10만원 미만 (5) 10만원 이상</p>
--	--

윈드서핑에 대한 참여동기 및 제약요인의 측면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1. 귀하께서 윈드서핑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1) 친구 선배의 권유
- (2) 흥미와 취미가 있어서
- (3) 대중매체를 통해서
- (4) 학교 수업을 통해서
- (5) 무료강습회를 통해서
- (6) 기타()

2. 귀하께서 윈드서핑 활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 (2) 만족
- (3) 보통
- (4) 불만족
- (5) 매우 불만족

3. 귀하께서 윈드서핑 활동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건강과 체력증진
- (2) 기술 학습
- (3) 일에 능률 향상
- (4) 단조로운 생활 탈피
- (5) 스트레스 해소
- (6) 정신력 강화
- (7) 대인관계 향상
- (8) 자극적 경험을 통한 만족감 형성
- (9) 사업을 하기 위하여
- (10) 기타()

4. 귀하께서 규칙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2) 체력이 모자라거나 의욕이 없어서
- (3) 주위에 활동할 장소 도구 시설이 없어서
- (4) 같이 할 사람이나 지도자가 없어서
- (5)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6) 예상되는 만족감이 없어서
- (7) 위험스럽다고 여겨져서
- (8) 즐기는 방법과 기술을 잘 몰라서
- (9) 기타()

5.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활동장이 있다면 그 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거리가 가까워서
- (2) 이용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 (3) 시설 및 도구 사용료가 적게 들어서
- (4) 같이 활동할 지도자나 클럽동호인이 있어서
- (5) 바람, 파도, 조류 등 활동조건이 좋아서
- (6) 기타()

6. 귀하의 활동장소의 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 (1) 대단히 만족하다
- (2) 만족하다
- (3) 그저 그렇다
- (4) 불만족하다
- (5) 대단히 불만족하다

7. 귀하께서 윈드서핑 활동시설 사용 시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1) 활동장소와의 거리가 멀다
 - (2) 장소가 협소하거나 복잡하다
 - (3) 오염되어 더럽다
 - (4) 사용료가 비싸다
 - (5) 사용가능 시간이 제한적이다
 - (6) 편의시설이 불충분하다
 - (7) 주민 및 동호인이 불친절하다
 - (8) 활동지도자가 모자라다
 - (9) 기타 ()

8. 동호인 조직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회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 (2) 개인적으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 (3) 주위에 마음에 드는 조직이 없어서
 - (4) 구속받기 싫어서
 - (5) 조직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 (6) 기타 ()

윈드서핑 활동의 효과측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1. 윈드서핑을 시작한 이후 현재 귀하의 생활을 이전과 비교하여 볼 때
- (1) 대단히 만족한다
 - (2) 만족한다
 - (3) 그저 그렇다
 - (4) 불만족한다
 - (5) 대단히 불만족한다
2. 귀하께서는 윈드서핑 활동이 건강과 체력에 도움을 주는 운동으로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그렇다
 - (3) 그저 그렇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3. 귀하께서 건강과 체력에 도움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크다고 보십니까?(문2.에서 1,2항에 답한 사람만)
- (1) 전신 지구력 강화
 - (2) 유연성 신장
 - (3) 근력 강화
 - (4) 평형성 개발
 - (5) 종합체력 개선
 - (6) 질병개선의 효과(요통, 신경통 등)
4. 윈드서핑 활동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대단히 도움이 된다
 - (2) 도움이 된다.
 - (3) 그저 그렇다.
 - (4) 도움이 안된다.
 - (5) 전혀 도움이 안된다.

윈드서핑이 관광정책으로의 관점 측면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 | | |
|---|--|
| <p>1. 윈드서핑을 활동을 통한 여가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1) 매우 건전하다
(2) 건전하다
(3) 보통이다
(4) 불건전하다
(5) 매우 불건전하다</p> <p>2. 불건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에서 4,5항에 답한 사람만)</p> <p>(1) 불건전한 시설과 장소가 많기 때문
(2) 과다비용을 허비하는 사치성 스포츠이므로
(3) 쾌락적이고 향락적 풍조가 만연되기 때문
(4) 활동 중에 공중도덕심이 결여되기 때문
(5) 힘들고 위험한 스포츠이기 때문
(6) 기타 ()</p> <p>3. 현재 우리 나라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윈드서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아직 이른 편이다
(2) 알맞다
(3) 늦은 편이다
(4) 모르겠다</p> <p>4. 현재 윈드서핑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p> | <p>5. 윈드서핑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는가?</p> <p>(1) 대중매체를 통해서
(2) 전문서적, 팸플렛, 포스터
(3) 레저관련업체
(4) 동호인 단체
(5) 관광단체
(6) 인터넷
(7) 기타 ()</p> <p>6. 윈드서핑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에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p> <p>(1) 장비가격이 인하
(2) 장비 렌탈 및 활동비의 인하
(4) 활동 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
(5) 활동지도자의 확충
(6) 윈드서핑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7) 기타 ()</p> <p>7. 윈드서핑 활동이 도내의 관광 정책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크게 기여함
(2) 기여함
(3) 그저 그렇다
(4) 기여하지 못함
(5) 전혀 기여하지 못함</p> <p>8. 윈드서핑 활동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생활체육의 진흥
(2) 국민 건강체력 유지 및 향상
(3) 우수 선수의 육성
(4) 관광레포츠로의 발전
(5) 기타 ()</p> |
|---|--|